차　례

초청받은 날

창살같은 번개가 번쩍 하더니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한 천둥소리가 울리였다.

방금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길로 하늘을 쳐다본다.

얼마후 손님들은 개찰구쪽으로 바삐 뛰기 시작하였다.

사복차림을 한 리철소위는 그림판을 옆구리에 바싹 끼여안고 빠른 걸음으로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비방울이 후둑후둑 떨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헤덤비며 뻐스문에 매달렸다.

어느새 리철이가 입은 난방샤쯔는 절반나마 젖어들고 있었다. 더는 참을수 없는듯 리철은 땅바닥에 두발끝을 박고 사람들의 등을 떠밀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다간 뻐스에 오르기전에 온몸이 흠뻑 젖을것만 같았다.

《왜 이러세요.》

갑자기 앞에서 자지러지는듯한 처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리철은 미는것을 그만두고 한발 뒤로 물러섰다.

순간 처녀의 손에 들려있던 손가방이 갑자기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그속에서 사기단지같은것이 깨지는 소리가 났다.

처녀는 리철이를 아니꼽게 쏘아봤다.

《미안하게 됐습니다.》

얼굴이 벌개진 리철은 얼른 허리를 굽혀 가방을 쳐들었다.

《아이, 어쩌나…》
울상이 된 처녀는 리철의 손에서 가방을 빼앗다싶이 받아쥐고 돌아섰다.
《자, 빨리 오르시오. 뻐스가 떠나겠소.》
먼저 오른 한 사람이 처녀와 리철이가 오를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면서 말했다.
처녀가 오르자 그 뒤로 리철이가 그림판을 먼저 들이밀면서 따라올랐다.
뻐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대줄기같은 비가 쏟아져내리면서 차창을 사정없이 후려갈겼다. 사람들은 그 소나기를 맞지 않게 된것이 다행이라고 하면서 기뻐들 했다.
하지만 리철은 처녀에게 무안을 준것으로 해서 마음이 무거웠다.
(이럴 땐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과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수 있는지 알수 없었다.
어느덧 뻐스는 원포시 항구동정류소에 와서 멎었다. 리철의 뒤에 서있던 처녀가 얼른 내리면서 우산을 펼쳐들었다. 그 뒤로 두명의 손님이 내렸다.
비속을 뚫고가는 처녀를 지켜보던 리철은 비로소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듯 닫기는 문짬을 비비며 뻐스에서 내렸다. 그는 처녀의 뒤모습만 지켜보며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었다.
(저 처녀는 분명 무례하고 거친 나의 행동에 성이 났어.)
리철은 뛰다싶이 처녀를 따라잡았다. 손으로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비물을 훔쳐낸 리철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처녀동무…》

처녀는 흠칫 놀란듯 몸을 돌렸다.

순간 두 눈길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왜 그러세요?》

순간 리철은 일시에 부끄러움이 들어 다음말을 뗄수가 없었다.

《저…》

리철은 입으로 흘러드는 비물을 푸푸 내뱉으며 입을 열었다.

《아까 그 일때문에 그러세요?》

처녀의 목소리는 아까와는 달리 퍽 부드러웠다.

《예, 정말 안됐습니다.… 아, 난 일없습니다. 저, 옷이 젖습니다.》

리철은 어느새 우산이 자기 머리우에 온것을 보고 빙긋 웃으며 처녀를 찬찬히 쳐다보았다.

하얀 살결에 머루알같은 눈, 그 우에 가는선으로 그린듯한 초생달같은 눈섭, 약간 나부죽한 코, 가볍게 다문 입, 볼수록 생기가 넘치는 처녀의 얼굴은 나무랄데가 없었다.

부서에 돌아온 리철은 부장에게 출장보고를 한 다음 침실에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덜썩 드러누웠다.

《허참…》

오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민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가방안에 무엇을 넣었기에 깨지는 소리가 그럴가.… 참 그게 뭐 큰일이라구 내가 아직까지도 그 생각에…)

리철은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앉았다.

그때 문이 열리면서 두성대위가 벙글써 웃으며 들어왔다.

《갔던 일은 잘됐나?》

대답없이 일어섰던 리철은 의자를 가리키며 침대우에 도로 앉았다.

《가겠네. 젠장, 비를 홀딱 맞았다면서?》

《예.》

《감기에 걸리지 말게. 리철동무, 오늘저녁은 우리 집에 가서 같이 하자구. 동무가 배치되여온지 한달이 넘도록 한번도 초청하지 못해서 미안하네. 젠장.》

두성대위는 이러면서 자기의 막역한 친구의 녀동생이 꿀을 가지고오다가 단지를 깨긴 했어도 먹을것이 좀 생겼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꿀도 꿀이거니와 두성이가 리철이를 저녁에 집으로 초청한데는 딴 목적이 있었던것이다. 그것은 친구의 녀동생이 집에 온김에 리철이를 그와 상면시켜 서로 눈이 맞으면 약혼이나 해놓았다가 가을이 아니면 래년에 결혼을 시키려는것이였다.

두성이의 이러한 생각은 부장이 어데 리철이와 짝이 맞는 처녀가 없겠는가고 물어본 달포전부터였다. 그는 리철의 약혼문제는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그때 말까지 했었다.

그런 사연이 있는줄 모르고있는 리철은 두성대위를 흐뭇한 눈길로 쳐다보면서 대답했다.

《대위동지의 초청을 쾌히 승낙합니다.》

어느덧 저녁이 되였다.

사무실에 나가 주민들속에서 진행할 담화자료를 만들고있던 리철은 전화종소리에 급히 일어나 송수화기를 들었다.

부장의 석쉼한 목소리가 울리였다.

《내 방으로 제꺽 오시오.》

《알았습니다.》

대답하기 바쁘게 송수화기를 놓은 리철은 부장의 방으로 찾아갔다.

《거기 앉소.》

부장은 심중한 기색으로 리철이를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리철은 부장이 저런 기색으로 지켜보는것은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기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다.

담배를 입에 물고 불을 붙인 부장은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후― 하고 내뿜고는 띠염띠염 말하기 시작했다.

《사건은 사건마다 보통날에 예고없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요. …》

부장은 또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이였다.

(사건은 사건마다 보통날에 예고없이 일어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라… 무슨 사건이 발생하였는가? 그런데 왜 나만 불렀을가?…)

부장은 말을 이었다.

《리철동무가 담당한 룡수동에 사는 조녕월로친의 맏딸 최경숙이가 이틀전에 실종됐는데 오늘에야 신고해왔소. 우선 리철동무는 이 가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해보시오.》

리철은 일어서면서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사무실에 돌아온 리철은 책상우에서 잉크단지로 한쪽귀를 눌러놓은 쪽지편지를 발견했다.

《리철동무, 기다리지 않겠소. 결심대로 일해주시오. 두성.》

(두성동지도 알고있구나. 그런데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대학에서 실습을 해보았지만 현실적으로 사건을 직접 하나 맡고보니 걱정이 산같았다. 선배들은 이런 사건의 시작은 어떻게 뗐는지 누구에게 물어보고싶은 생각도 간절하였다.

리철은 동사무소로 찾아가 거기서 조녕월네 가정에 대한 자료를 뒤져보고 돌아왔다. 부서에 돌아와 책상을 마주하고앉은 그는 요약해서 써가지고 온 종이장을 펼쳐들고 다시 들여다보았다.

조녕월 51살, 룡수동위탁수매소 수매원
인민반사업에 열성이 높다.

최칠보 조녕월의 남편, 황해남도 재령군 송월리에서 농사짓다가 1950년 놈들의 폭격에 사망

최경숙 맏딸, 룡수동 양복점에서 재봉사로 있다가 8개월전 1966년 11월 18일 지질탐사대에서 사업하고있는 김홍기와 결혼

최경옥 둘째딸, 도가무단 무용배우

종이장우에서 눈을 떼고 잠시 땅거미지는 창밖을 내다보는 리철의 머리속에는 집안사람들은 괜치 않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집안에 불상사가 생기다니…)

봄날의 아지랑이 피여오르듯 리철의 머리속에서는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새록새록 피여올랐다.

그는 펜을 잡고 자기의 생각을 점을 찍어가면서 종이

장우에 적기 시작했다.

놈들의 검은 마수가 이 집에 뻗친게 아닌가?

가정불화?

경숙이 7개월된 임신부, 두달동안 병원에 입원, 고민끝에 자살?

남편과 다툰 일이 없었는가?

뜻하지 않은 실수?

그 누구의 타살?

그런데 왜 이틀후에 신고됐는가?

간첩사건과 관련된 문제는 아닐가?

최경숙 실종, 실종… 왜 앓았을가? 무슨 병이였는가?

최경숙, 최경숙…

리철은 펜을 놓고 일어섰다. 사무실안을 무겁게 거닐기 시작하였다.

중요한 단서

푸르끼레하던 동녘하늘이 아침해가 발산하는 빛을 받아 분홍색물감을 풀어놓은듯 점점 짙게 물들어가자 거리는 생기를 띠기 시작했다.

생신하고 상쾌한 아침이다.

새들도 이런 아침은 별스레 좋은 모양이다.

창밖의 나무에 와앉은 한쌍의 까치가 깍—깍— 울었다.

그 무슨 심각한 꿈을 꾸는지 까딱않고 잠들고있는 리철의

머리맡에 놓여있는 원탁우엔 어제밤 늦도록 그가 사색의 심연 속에서 한장한장 그린 그림종이들이 여라문장 널려있었다.

그중 하나의 그림은 《사과못한 처녀에게》라는 그림이였는데 그것은 소나기가 퍼붓던 길가에서 만났던 그 인상깊은 처녀의 얼굴을 그린것이였고 하나는 《최경숙》이라는 세 글자밑에 큼직하게 《?》를 그려놓은것이였다.

리철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그림그리는것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앞으로 훌륭한 화가가 될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는 오늘 화가가 된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보이지 않는 전선에서 싸우는 혁명전사로 되였으며 이 길에서 자기의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바칠것을 결심하고있었다.

리철이가 안전원이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리농근맹위원장을 하던 리철의 아버지는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전략적후퇴시기 당원들을 이끌고 식량소개를 하다가 후퇴하지 못하고 적들에게 체포되여 학살되였다.

그때 사형장에는 리철의 어머니는 물론 리철이도 《치안대》놈들에게 체포되여 끌려와있었다.

놈들은 남자들과 녀성들을 동뚝에 갈라세워놓고 총질을 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내무원 박호범이 이끄는 인민유격대가 사형장으로 달려왔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놈들이 학살만행을 감행한 뒤끝이였다.

리철은 아버지가 놈들의 탄알을 몸으로 막아준 덕분에 살게 되였다.

그후 리철은 박호범의 집에서 몇달 보내다가 혁명학원에 갔다. …

다음날아침 리철은 서둘러 룡수동분주소로 나갔다. 경숙이의 실종문제를 더 자세히 알고싶었던것이다.

거리는 여전히 건설로 들끓었다. 단층집들과 반토굴집들이 땅바닥에 다닥다닥 붙어있던 자리에 일떠선 고층건물들의 창문들은 아침해빛을 받아 거울처럼 반들거리고 새로운 구역의 건설장들에는 숲처럼 일떠선 기중기들이 긴 팔을 휘둘러대며 블로크벽체를 물어올리고있었다. 건설장의 한곳에서는 《천리마선구자의 노래》가 확성기를 통해 힘있게 울리고있었다.

하루가 다르게 일떠서는 건설장의 모습에 심취되여 바라보았을 리철이였건만 오늘은 다른곬으로 생각이 흘러가고있었다.

(실종, 경숙의 실종…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시름시름 앓았다고 했지? 왜 앓았을가?…)

리철은 그 무엇을 추리해보려고 모지름을 썼으나 아직 실머리를 잡아쥘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이건 큰 사건이야. 하지만 결과가 보잘것없는 그런 사건이 아닐가? 아니야, 내가 무슨 생각을…)

리철은 단층살림집들이 비좁게 들어선 골목길을 지나 룡수동분주소로 찾아들어갔다.

동분주소 소장은 마침 책방에서 일하는 경숙이와 친한 사이였던 복실이란 녀성이 찾아왔는데 그를 먼저 만나보라고 하면서 그가 방금 들어간 방으로 리철이를 안내하였다.

이름처럼 복실복실하게 생긴 녀자였다. 그 녀자는 몸가짐을 바로하며 리철에게 약간 머리숙여 인사를 하였다.

《자, 앉읍시다.》

리철이 먼저 책상을 마주하고 의자에 앉았다.

복실이도 앉았다.

《최경숙이문제때문에 스스로 찾아온거겠지요?》

《예.》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군중이 각성하고 떨쳐나서면 나쁜놈들이 작간할수 없습니다. 만약 작간한다고 해도 배겨낼수 없지요.》

복실은 리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후리후리한 키에 강파롭고 패기가 있어뵈는 빛나는 눈, 불깃불깃 혈색이 좋은 둥실한 얼굴, 마치 어느 정탐영화에서 본 주인공같기도 했다.

《경숙동무를 알게 된지 얼마나 됩니까?》

《중학교 1학년때부터 알게 되였습니다. …》

《그러니 사탕 한알이 생겨두 나누어먹구 또 그러다가도 하찮은 일로 다투기도 했겠군요.》

《예.》

복실은 미소를 지었다.

리철이도 허허 하고 웃었다.

《할 얘기가 있어 찾아온것 같은데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복실은 자리를 고쳐앉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사실 제가 찾아온것은 경숙이문제때문입니다. 경숙이가 실종된지 벌써 며칠되지 않습니까. 그래 그의 어머니는 울며불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이상한 기미를 느꼈습니다.

경숙이 어머니는 몇해전에 철야식당에서 취사원을 하였는데 몸이 아프다고 하면서 몇달 놀다가 위탁수매소를

차려놓았습니다. 경숙이 어머니는 인민반사업에도 열성이 있고 이웃과도 나쁘지 않게 지냅니다. 그런데 경숙이가 시집을 가고 사위가 들어와 같이 살게 되면서부터는 경숙이를 뜨문히 구박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생기를 잃은 경숙인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서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병원에 입원했지요. 그때 내가 그를 면회간적이 있었는데 그는 나를 붙잡고 어쩐지 자꾸만 마음이 불안하고 눈만 감으면 악몽속에서 허덕이는것 같아 무섭기만 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숙이가 병이 낫기도전에 퇴원하였습니다. 그래 나는 왜 병이 낫지 않았는데 퇴원하였는가고 물었지요. 그러니 그는 집에서 약초를 캐서 달여먹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하루는 나보고 산으로 같이 가자고 하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느 일요일날에 점심밥을 준비해가지고 고명산에 약초캐러 갔던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후의 일이지요. 경숙이가 약탕관 빌리러 우리 집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너네 집에두 약탕관이 있는데 왜 우리 집에 빌리러 왔니 하였어요. 그랬더니 그는 어머니가 약탕관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것이였습니다.

〈약탕관이 있으면서두 못쓰게 한단 말이니?〉 하고 나는 또 물었습니다.

그러니 경숙인 자기 어머니두 약을 달여먹는다는것이였습니다. 그러나 며칠후에 알아본데 의하면 그사이 그의 어머니는 약을 달여먹은적이 한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조리있게 말을 엮어내려가던 복실이가 분개하였는지 어처구니가 없는지 혀를 차면서 눈섭을 찡그리였다.

복실의 말 한마디한마디를 새겨들으며 말없이 앉아있던 리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래두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요.》

《사정이란게 있을수 있습니까? 딸인데 어쩌면 그럴수 있어요. … 어쩐지 제보기엔 그 어머닌 경숙의 진짜…》

《아니… 어서 말하시오.》

리철은 저도모르게 복실에게 말을 재촉했다.

《언젠가 그애가 나한테 이런 말을 한적이 있었어요.》

《…》

《어느날 경숙이는 제가 차고있는 이 시계를 보더니 〈야, 이거 금시계가 아니니?〉하고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사랑 변치 말자, 랑군님 채워주신 금시계란다.〉하고 자랑을 좀 했어요. 그랬더니 몹시 부러워하면서 자기 어머니한테도 금가락지가 있는데 다시한번 달라고 졸라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며칠후부터 그렇게 명랑하고 쾌활하던 경숙이가 몹시 우울해져서 말도 잘하지 않은 사실이지요. 잘 모르긴 하겠지만 혹시 금가락지를 달라고 하다가 어머니의 미움을 사게 된거나 아닌지… 통 말을 해야 알지요.》

리철은 금가락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이상 더 하지 않았는가고 호기심에 찬 어조로 물었다.

복실은 잠시 생각을 굴리더니 대답하였다.

《했어요. 그때 나는 그래두 너넨 괜찮다야, 어떻게 금가락지가 다 있니 하고 물었지요.》

《그래서요?》

《경숙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게 있는줄 몰랐는데 어느날 밤 잠에서 깨여보니 자기 어머니가 아래목에 돌

아앉아 그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여보더라는거예요. 경숙이는 호기심이 나서 어머니에게 무슨 가락진가고 물었답니다. 그러자 깜짝 놀라서 가락지를 치마폭에 감출것처럼 하더니 자기가 시집올 때 너의 아버지가 준 선물인데 대를 물려줄 아들자식이 없다고 하더라는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놈들의 폭격에 죽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더랍니다.》

리철은 사려깊은 어조로 말했다.

《많은것을 이야기해줘서 감사합니다.》

《참고가 되실려는지…》

《되구말구요. 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리철은 경숙이 남편에 대한 문제와 경숙이 동생 경옥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몇가지 더 물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별로 문제시될만 한것은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경숙이가 실종되기전에 약초캐러 또 같이 가자고 얘기한적은 없었습니까?》

복실은 눈을 깜빡거리더니 대답했다.

《있어요. 전번주 수요일인가… 그래요. 목요일이였어요. 자기 어머니가 말하는데 저 벼랑바위가 있는 해안가가 있지 않아요. 그 벼랑바위가 있는 산등성이에 간염에 좋다는 약초가 많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거기에 같이 가보지 않겠는가고 하였습니다. 그때 나는 집에 온 시형이 일요일 낮차에 돌아가기때문에 시간을 낼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 일요일날에 그 벼랑바위산에 경숙이 혼자서 간게 아닐가요?》

《글쎄말입니다. 내 생각에두…》

《감사합니다. …》

리철은 일어서면서 앞으로도 얘기할게 있으면 아무때건 찾아와달라고 했다.

복실은 방에서 나갔다.

벼랑바위산에 찍힌 발자국

안전부장은 연기가 몰몰 피여오르는 담배를 손가락사이에 끼우고 방안을 거닐다가 창문을 등지고 서서 타다남은 담배꽁초가 무득한 재털이를 지켜보며 생각에 잠겼다.

(경숙이실종문제에 이어 공원방향과 천두산방향에서 날은 두 전파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서로 련관된 문제일가? 아니면 별개의 문제?)

좀전에 안전부장 박호범은 무선감시소로부터 이상한 전파가 공원쪽에서 날았다는 통보를 받았던것이다.

전보문을 해득한데 의하면 《황제, 새는 날고싶어한다. 날개를 보내달라. 범나비》라는 무슨 요청문이였다. 그때 박호범은 머리가 한층 복잡했다.

조녕월로부터 자기 딸이 실종되였다는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을 보냈으나 사건해명을 위한 실머리를 잡지 못한 이무렵에 예상외의 전파가 난것은 무엇을 말하는것인가?…

올해에 잡혀 쉰다섯살나는 부장이였다. 그가 넘어선 고

개에는 불언덕과 같은 험준한 길도 있었다.

3개월간의 평양학원을 마친 후 어버이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반혁명분자들의 준동을 저지시키기 위한 사업에 동원되였다가 보안서에 배치된 다음부터 단 하루도 마음의 끈을 풀어본적이 없는 박호범이였다.

평화적건설시기에는 물론 전화의 나날을 거쳐 그는 오로지 어버이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보위하는 길에서 자기의 청춘과 정열을 깡그리 바쳐왔다.

포연은 가시여졌으나 사회주의건설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원쑤들과의 보이지 않는 전투는 의연히 계속되고있었다.

부장은 불이 꺼진 담배를 입에 문채 성냥을 그어댔다.

얼마후 문기척소리가 났다. 리철이가 방안에 들어왔다. 그림판과 함께 괴이한 물건을 손에 든 그의 얼굴엔 아이적에 무슨 장한 일을 해놓고 자랑하고싶어하는 그런 웃음이 어리여있었다.

부장은 입에 물었던 담배를 재털이에 비벼끄고 일어섰다.

리철은 발뒤축을 소리나게 모아붙이며 보고하기 시작했다.

《부장동지… 소위 리철은…》

《됐소. 리철동무…》

부장은 리철이 앞으로 다가서며 그의 한어깨에 손을 다정히 얹었다.

순간 리철은 친아버지와 같은 혈육의 정을 느끼였다. 박호범의 집에서 몇달 어린 시절을 보낸적 있는 리철은 학원에 가있을 때며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도 언제나 박호범을 친아버지처럼 존경해왔었다.

리철은 목구멍까지 치미는 뜨거운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입을 열었다.

《부장동지!》

《수고했소! 자, 여기 와 앉소.》

여전히 박호범은 어성을 바꾸지 않고 리철을 대해주었다. 부장앞에 다가선 리철은 책상우에 웬 놀이감같은 《두꺼비》를 내놓았다.

공원쪽에서 날은 이상한 전파를 탐색하는 추적과정에 얻은 아이들 놀이감식자동송수신기였다.

《부장동지, 이건 아까 공원에서 아이들이 먼저 발견하였습니다.》

《아무튼 좋소. 사고없이 우리 손에 들어왔으니…》

리철의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던 부장은 도로 의자에 가앉으며 말을 이었다.

《이 도시에 잠입해있던 어떤 놈이 지금 도주시도를 하고있는것 같지 않소?…》

리철은 사건의 심도가 깊어지고 폭이 넓어지는것을 느꼈다. 그러나 아직은 무엇이라고 자기의 주견을 말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경숙이실종문제를 놓고 고심하던 길에서 《두꺼비》사건과 맞다들게 되니 더욱 갈피를 잡을수 없는 리철이였다.

(부장동진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있을가? 내가 룡수동분주소에 갔댔다는것을 알고있을텐데. 왜 거기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을가?)

리철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복실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죄다 보고하자. 그러면 부장동진 얼마나 기뻐할것인가. …)

리철이 이런 생각을 굴리며 잠시 《두꺼비》를 지켜보고 있는데 부장이 혼자소리로 말했다.

《그런데 왜 이 친구들이 나타나지 않을가. …》

리철은 두성대위와 경수상위를 생각했다. 아침에 그들이 부서에 나오지 않은걸 봐서 부장은 분명 그들에게 무슨 중요한 임무를 준것 같았다.

이윽고 부장은 서글서글한 눈매로 리철이를 보면서 동분주소에 갔던 일이 어떻게 되였는가고 물었다.

이때 무전수가 무전문을 들고 들어왔다.

부장은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읽었다.

《꽃이 나비를 따르니 이상토다
허나 꽃의 속삭임 나비 들으면
나비도 매혹되기마련이거니
나비는 꽃을 이끌어줄지어다
왕, 황제》

《왕, 황제?》

부장은 혼자 중얼거리며 의문어린 눈길로 리철이와 무전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서툰 시조로군!》

리철이와 무전수가 서로 쳐다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부장은 심각하고도 사색적인 표정을 짓고 말하였다.

《정말 문제가 심각해지는것 같소. 경숙이실종문제가 제기되자 〈두꺼비〉문제가 제기되였는데 이번에는 이런 시조가 날아왔소. 그런데 이것 보오. 아이들 놀이감같은 이 자동송수신기에서도 〈황제〉라는 전파가 날았는데 이 시

조에도 〈황제〉라는 말이 나오지 않소. 이걸 어떻게 봐야 좋겠소?》

부장은 옛 친우의 아들인 리철이를 한동안 기대가 담긴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는 이복잡한 사건을 리철에게 맡기여 그가 실천투쟁속에서 단련하도록 하고싶었다.

《시간은 이 모든것을 판명해줄것이요. 무전수동무, 이 시조를 변신조장에게 가져다주시오. 해득하면 곧 알리도록 하시오.》

《알았습니다.》

무전수가 무전문을 받아들고 방에서 나갔다.

비로소 리철은 동분주소에 나갔다가 복실이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부장에게 자세히 보고하였다.

부장은 담배만 피우며 리철이의 말을 묵묵히 듣고있었다.

이야기가 끝나자 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중얼거렸다.

《〈금가락지〉, 〈금가락지〉라…》

부장은 몇걸음 방안을 거닐었다.

《〈금가락지〉를 치마폭에 감출것처럼 놀라더란 말이지…》

방 한가운데 멈추어선 부장은 리철이를 보며 한참 말없이 서있었다.

《예…》

《리철동무, 나에겐 평화적건설시기부터 해오던 흥미있는 일이 있소. 그런데 지금까지 종결짓지 못했소. 참 묘한 사건이지. 〈금가락지〉와 련관된 사건이란 말이요.》

《그러면 혹시?…》

《아니, 아직은 속단하지 마오.》

1949년 초겨울 어느날이였다.

박호범은 자수해온 백치민이라는자와 마주앉은 일이 있었다. (그자는 전쟁시기 《치안대》에 가담하여 만행을 감행하다가 인민들의 손에 처단되였다.)

백치민은 자기는 《황군》첩보기관의 가리도시란자가 조직한 《무궁화》망의 망원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감행한 만행은 없으니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였다. 그러면서 이자는 자기들은 망의 다른 놈들을 일체 알게 되여있지 않으므로 그놈들을 고발하지 못하는것이라고 말했다.

너무도 순순히 자백하는것이여서 믿기 어려운 노릇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그 말을 무근거하게 대할수도 없는것이였다.

그자의 말에 의하면 가리도시란자는 《무궁화》망의 망원들을 조선에 잠입시키면서 《금가락지》를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때 가리도시는 《금가락지》속에는 《무궁화》망의 명단이 들어있는데 그 《금가락지》를 가지고있는 망책이 중요한 시기에 지령을 줄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사실을 이야기한 박호범부장은 잠시 숨을 돌리더니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우리는 〈무궁화〉망을 일망타진해야 했소. 그래서 나는 백치민이란자가 자수해온 그때부터 〈금가락지〉를 가진 망책을 잡아보려고 무진 애를 써왔소. 그런데 리철동무가 그 실마리를 다시 이어준것 같소. 리철동무가 말이요.》

부장은 십년묵은 체증이 꺼져내리는것 같은감을 느끼며 방안을 거닐었다.

리철은 부장의 그 발자국소리를 새겨들으며 자기 생각을 굴리였다.

(내가 정말 그 실마리를 이어준것이 아닌가. 그러나 《금가락지》라는거야 지난 시기에 많았던것이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귀중품으로 가지고있을수 있는 물건이 아닌가. 그런 별치 않은 문제를 가지고 공연히 나는 부장동지를 흥분시키고 또 녕월로친을 의심하는것이 아닌가.)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있소?》

잠시 창문가에 뒤짐지고 서있던 부장이 조용히 물었다.

리철은 헛기침을 한번 하고나서 자기의 생각을 내비치였다.

부장도 리철의 말을 일축해버릴수 없는듯 이렇게 말했다.

《하긴 리철동무의 생각에는 일리가 있는것만은 사실이요. 그렇다고 상정된 문제에 의심을 사게 할수 있는 요소가 충분히 내포되여있는이상 우리는 가만 앉아있을수 없소.》

이것은 리철이로 하여금 그 의심스러운 문제를 빠개놓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 분발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부장의 성미를 잘 알고있는 리철은 그의 말뜻을 인차 알아차리고 활기에 넘쳐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부장동지, 대책을 취하겠습니다.》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들어오시오.》

부장의 석쉼한 목소리가 울리기 바쁘게 두성대위가 들어왔다.

《부장동지, 경숙이시체를 발견했습니다.》

《덤비지 말고 여기 와 앉아서 천천히 얘기하오.》

부장이 의자를 가리켰으나 두성은 리철이쪽에 눈길을

보냈다.

리철은 두성에게 눈인사를 보내면서 생각했다.

(아, 부장동진 벌써 경숙이실종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면밀히 하였구나. 그리고 벼랑바위산을 지목하고 있었을뿐아니라 두성대위동지를 거기에 파견하였구나.)

리철은 얼핏 보기에는 푸수하고 순박하지만 반탐사업에서는 놀랄만치 로숙한 부장을 존경이 어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젠장…》

리철이와는 대조적으로 작달막한 키에 가슴이 딱 바그라진 두성은 밤을 패며 일해도 지칠줄 모르는 정열가였다.

그는 말할 때마다 《젠장》이란 말을 버릇처럼 썼다.

그는 지금도 《젠장》하고 서두를 떼놓고는 잠시 머뭇거리였다.

《…벼랑바위기슭의 바다물에서 발견했는데 바위산에는 이런 두 녀인의 비닐신발자국이 있었습니다.》

두성은 신발자국을 찍은 사진을 내놓았다.

《그 근방에서 소를 방목하는 아바이의 도움을 좀 받았습니다. 그 아바이말에 의하면 이틀전에 한 임신부같은 녀인이 아침 10시쯤해서 벼랑바위산으로 가는걸 봤는데 점심때엔 예쁘장하게 생긴 처녀가 또 거기로 가더라고 했습니다.》

《음…》

부장은 방안을 오락가락 거닐었다.

《추측하건대 처녀라고 인정되는 녀인이 경숙이를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지 않았겠는가 하는것입니다. 풀대들이 벼랑바위턱까지 넘어져있었는데 경숙이와 뒤치락거리다

가 그를 거기까지 끌고간것 같습니다.》
《음… 그래 그 산에 약초가 좀 있는것 같소?》
《별로…》
《알만하오.》
부장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리철이

이튿날 현지에 나갔던 리철소위와 두성대위는 마치 약속이나 한것처럼 복도에서 만나 부장의 방으로 들어갔다.
《마침 둘 다 왔구만. 잘됐소. 자, 여기 와서 앉소.》
책상을 마주하고앉아 무엇인가 쓰고있던 부장이 담배를 한대 쥐고 빙빙 돌리며 반갑게 맞아주었다.
《왜 그러구들 서있소? 나갔던 일들이 잘 안된 모양이구만. 어떻게 생각하는대로 모든 일이 그렇게 척척 잘돼가겠소. 나도 생각되는바가 있어 한자리에 모여앉았으면 했는데 자, 어서 와서 앉소.》
리철이와 두성은 부장의 앞에 길게 《T》자형으로 놓인 책상을 서로 마주하고 앉았다.
《담배를 피우오.》
담배갑을 두성이앞에 밀어놓은 부장은 입에 문 담배에 성냥을 그어댔다.
두성이도 담배를 피웠다.
말없이 담배연기만 깊숙이 빨아들이는 부장과 두성이

를 바라보는 리철이도 담배생각이 간절했다. 하지만 꾹 참았다. 그는 친아버지와 같은 부장앞에서 담배를 피우는것을 례의범절에 어긋나는 버릇없는 행동으로 간주하고있었다.

《그래 경숙이시체에 대한 부검결과는 어떻소?》

이윽고 부장이 침묵을 깨뜨렸다.

두성이 일어섰다.

《앉소. 앉아서 얘기하오.》

부장이 앉으라고 손까지 내들고 흔들었다.

두성은 앉았다.

《경숙이는 간염으로 입원했는데 초기증세는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차츰 치료를 하는 과정에 병은 차도가 있었는데 동생 경옥이가 면회왔다간 다음에는 또 악화되군 하였답니다. 경숙이가 입원하고있는 두달어간에 경옥이가 혼자 면회간적은 네번이고 어머니와 같이 간적은 두번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경옥이가 같이 면회갔다온 이후에는 경숙의 병세에서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고 합니다. 의심스러운것은 왜 경옥이가 혼자 면회하고 오면 경숙의 병세가 더 심해졌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런데 부검에서는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외부적타상도 전혀 없었습니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가 벼랑바위산에서 떨어진것만은 사실인데 물을 많이 먹지 않은걸 봐서는 심장마비로 죽은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에겐 더욱 커지는 의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경숙이가 왜 간염을 앓기 시작했는가, 그가 누구의 말을 듣고 그 벼랑바위산으로 가게 되였는가, 거기에 나타난 다른 한 인물은 어떤 인물이며 이걸 간첩사건과 련관시켜보는것이 옳지 않는가 하는것입니다. 젠장.》

두성은 불이 꺼진 담배에 성냥을 그어대고 몇모금 빨았다.

잠시 두성을 지켜보던 부장이 물었다.

《녕월로친을 만났을 때 벼랑바위산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하지 않았소?》

《그렇습니다.》

《그럼 복실동무의 이야기와는 다르지 않소?》

《…》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리철은 녕월로친을 만나보고싶은 생각이 간절하여 부장을 쳐다보았다.

(왜 다른 동무들은 녕월로친과 만나게 하면서 나는 못만나게 할가?…)

경숙이의 실종문제가 제기되였을 때 리철은 부장에게 자기 담당구역문제이므로 녕월로친은 제가 만나보겠다고 했다. 그러자 부장은 리철의 그 제기를 막으며 자기가 허락하기전에는 절대로 녕월로친한테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말했었다.

리철은 그때 부장이 하던 말이 문득 생각되여 다시금 의아한 눈길로 부장을 쳐다보았다.

비로소 침묵을 깨치며 부장이 리철이를 향해 입을 열었다.

《리철동무는 소득이 좀 있었소?》

리철이 일어섰다.

하지만 부장은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저는 복실동무를 녕월로친과 하루밤 동무시켜 재웠습니다. 그런데 가락지는 어데 두었는지 알아내기 힘들

다고 합니다. 마침 경숙이가 실종되였다는 소식을 받고 순회공연으로 나가있던 경옥이가 와있었는데 그는 언니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찾을 궁리를 하지 않는 어머니를 원망하더랍니다. 특별히 관심을 끄는것은 그 로친이 사위를 몹시 욕하더라는것입니다. 녕월로친은 경숙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사위가 딴 녀자를 좋아했다고 하면서 사위는 직업이 그래서 집에 들어오지 않은것이 아니라 그런 꿍꿍이가 있었기때문이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구 경숙이가 실종되였다는것을 알렸는데 아직 집에 나타나지 않는것도 다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것입니다. 딱 찍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사위가 경숙이를 죽인 기본장본인이라는것 같습니다.》

《음…》

부장은 오래도록 담배를 입에 물고있었다.

부장을 지켜보고있던 리철이 말을 이었다.

《복실동무를 통해서 이번에 새롭게 알아낸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녕월로친이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는것을 본 경숙이가 무슨 가락진가고 물었을 때 치마폭에 감추려고 했다는 그날 약을 달여먹지도 않은 약탕관이 아래목에 있었다는것입니다. 약탕관, 벌써 이 약탕관이 몇번째 화제에 오르군 했는데 여기에 무슨 미묘한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 약을 달여먹지도 않은 약탕관이 〈금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워본 그날 아래목에 놓여있었겠는가… 그리구 녕월로친이 사위를 몹시 의심하고있는데 그렇게 생각할만한 조건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탐사대당위원회에 알아보았는데 어제야 경숙이가 실종되

였다는 소식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숙이남편 홍기동무가 지금 멀리 나가있는데 그곳에 알렸다고 하면서 오늘저녁엔 집에 가닿게 될것이라고 합니다.》

리철의 사업에서는 빈틈이 없었다.

수사의 가지를 더 뻗치게 되는가부다 하고 생각하고있던 부장은 리철이가 이런 결론까지 척 내리게 되자 다시한번 그가 돋보였다.

(리광춘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더니 파시 광춘이 아들이 분명해. 광춘이, 리철이가 저렇듯 성장한것을 보니 자네를 보는것만 같네. 이젠 마음을 놓게. 하지만 어루만지면서 온실에서 자란 화초처럼 키우지 않겠네. 용광로에서 강철을 달구어내듯이 투쟁의 불길속에서 쇠소리 챙챙나는 당의 보위일군으로 키워내겠네. 말하자면 자네의 원쑤를 갚는 길에서 헛발을 내디디지 않게 하겠네.)

부장은 학살된 리철이의 아버지를 그려보며 내심 감동을 받았다.

리철이가 자리에 앉자 부장은 손가락으로 잠시 책상을 다독이다가 말했다.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과 제기된 문제를 놓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말해보시오.》

부장이 이렇게 제기한것은 경숙이실종문제가 제기된 이후의 사업을 총화짓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데도 있었지만 중요하게는 리철이가 벌어진 사건과 제기된 문제들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보고 추리는 어떻게 하며 어떤 결론을 가지고 어떻게 해나가려는가 하는것을 시험해보려는데 있었다.

바로 이렇게 하는것은 독단을 버리는데도 좋았다. 또 아래사람들의 창발성을 계발시키고 자질을 키워주는데도 좋았다.

두성은 책상밑으로 리철의 발을 건드리면서 어서 일어서라고 독촉했다.

리철이 다시 일어섰다.

《예-》

서두를 이렇게 뗀 리철은 마치 어려운 시험문제를 받아안은 학생처럼 부장을 힐끔 쳐다보았다.

여느때와 달리 말하기 어려워지는 자신을 다잡으며 리철은 다시 말머리를 이었다.

《첫째로, 부장동지가 말하다싶이 경숙이실종문제가 보통날에 예고없이 제기되였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 복실동무와 방목공아바이의 도움을 적지 않게 받았으며 일정한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엔 아직 미지의 문제들이 적지 않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경숙이가 왜 앓기 시작하였는가, 벼랑바위산에 나타난 예쁘장하게 생겼다는 그 처녀는 누구이며 그가 왜 경숙이를 죽였는가, 이것이 그자신이 혼자서 감행한 일인가, 아니면 그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짓인가 하는것입니다. 여기서 의심되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인데 그럼 어머니가 자기 딸을 죽이려고 했겠는가. 우리는 이것을 꼭 해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째로, 〈금가락지〉 문제입니다.

금가락지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귀중품으로 고이 간직하고있는것으로서 지금도 적지 않은 가정들에 있는것입니다. 그럼 그런 가락지를 가지고있는 녕월로친을 부장동지가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고있는 그 〈금가락지〉건과 련관시켜봐야 하는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녕월로친을 의심해야 하는데 그는 전쟁시기 남편을 놈들의 폭격에 잃었으며 지난날뿐아니라 지금도 인민반사업과 위탁수매소사업

에 열성이 높은 주민입니다. 비록 경숙이실종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 녕월로친에게 의문부호를 붙일수 있는 이러저러한 단서를 쥐였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리철이 숨을 돌리면서 부장과 두성이를 번갈아 쳐다보고는 말을 했다.

《저는 이 사건은 일반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금가락지〉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고 그 비밀을 알아내는데 화살을 쏘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금가락지〉의 비밀만 알아내면 녕월로친에 대한 리해를 바로 할수 있을뿐아니라 경숙이실종문제를 해명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셋째로, 공원에서 날린 전파문제입니다. 〈두꺼비〉는 〈범나비〉라는 별호를 가진 놈이 〈황제〉라는 자기 상전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전파만을 날리였는데 제 생각엔 우리 북반부에 있는 〈범나비〉란자가 저 남쪽에 있는 자기 상전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다시말해서 도주시도를 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경숙이실종문제와 련관된것이겠는가, 만약 련관된것이라면 〈범나비〉란자가 도주하기전에 제기된 사건을 결속지을수 있도록 우리는 자기 사업을 맹렬히 추진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넷째로, 놈들이 남쪽에서 전파로 보내온 시조입니다. 변신조에서 어떻게 해득하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시조에서 나오는 〈나비〉라는것이 〈두꺼비〉가 날린 전파에서 〈황제〉에게 구원을 요청한 그 〈범나비〉가 아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가만.》

부장은 리철의 말을 중단시켰다.

《말이 난김에 시조에 대해서 말합시다. 변신조에서 해득하였는데 그걸 알려주겠소. 시조에서 〈나비〉를 따른다는 〈꽃〉은 침입간첩놈을 의미하는것이요. 처음구절에서 〈꽃〉이 〈나비〉를 따르니 이상타 하였는데 이것은 침입간첩놈이 〈나비〉를 따르니 경각성을 높여 기회를 마련하라는 뜻이요. 〈꽃의 속삭임 나비 들으면 나비도 매혹되기마련이거니〉라고 한것은 〈꽃〉이 들어와서 상전의 지시를 전달하면 〈나비〉도 매혹될수 있다는 뜻이요. 그러니 〈꽃〉의 요구대로 〈나비〉는 행동하라는 뜻으로 〈나비는 꽃을 이끌어줄지어다.〉라고 했소. 그리고 시조의 마지막에 〈왕, 황제〉라고 한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비〉의 상전들을 의미한것 같소.》

《그렇다면…》

리철은 성급히 입을 열었다.

《여기서 의문되는것은 〈나비〉가 〈꽃〉을 어디로 이끌어가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렇소, 그것이요!》

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가볍게 내리쳤다.

《그런데 우리는 〈꽃〉의 침투지점도 모르고있으며 〈꽃〉이 상봉하게 될 〈나비〉도 모르고있지 않습니까?》

리철은 부장을 의문이 가득 실린 눈길로 쳐다보았다.

《그래서 해안경비대에 알렸소. 침투하는 놈이 있으면 내버려두고 미행할수 있게 알려달라고 말이요. 그러나 〈꽃〉이 어디로 어떻게 침투하겠는가 하는것을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조건에서 주민들속에 들어가 수상한자를 보면 인츰 신고하도록 주민정치사업을 하도록 동분주소들에 포치하였소.》

《그렇다면 이제는 〈꽃〉을 맞이하기 위한 〈환영〉준비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꽃〉이 상봉하

게 될 〈나비〉가 〈두꺼비〉가 날리는 전파에 나오는 〈범나비〉라면 그리고 〈범나비〉가 경숙이실종문제와 련관된 인물이라면 우리는 보다 한걸음 내디디게 될것이며 미해명문제들도 손쉽게 풀어나가게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소!》

《부장동지, 그러니 우리는 보다 긴박한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는 조건에서 경숙이문제와 〈금가락지〉문제에 돌리던 력량을 당분간 〈꽃〉을 맞이하기 위한 사업에 돌려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요.》

부장은 리철의 제의를 단마디로 일축해버리였다.

리철은 어정쩡해서 한대 맞은 사람처럼 서있었다.

《리철동무가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종합분석한데 대해서는 나도 동감이요. 나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문제까지 제기했을뿐아니라 분석도 잘하였소. 그러나 력량편성에 대한 문제만은 잘 제기하지 못했소. 아직 침입간첩을 맞이하지 못한 조건에서 경숙이문제와 리철동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금가락지〉문제를 둘러싼 이여의 문제들에서 모두 손을 털고 〈꽃〉을 앉아서 기다릴수는 없소. 두성동무는 경숙이문제를 해명하는데 계속 달라붙으시오. 경수동무와 인하동무는 〈금가락지〉문제를 해명하는데 붙이겠소. 〈꽃〉에 대한 문제는 리철동무가 혼자서 담당해야겠소. 앞으로 리철동무가 요구할 때는 정황에 따라 사람들을 배속시켜주겠소.》

부장은 리철의 낯색을 살피다가 말을 이었다.

《오늘은 푹 쉬오. 리철동무, 푹 쉬라고 할 때 쉬여야지 그렇지 않다간…》

《알았습니다.》

리철은 대답했으나 마음은 알찌근했다.

《그럼 돌아가시오.》

두성이와 리철은 부장방에서 나왔다.

말없이 복도를 걸어가던 두성이 부러운 눈길로 쳐다보며 말했다.

《리철동무, 나는 오늘 동무가 그처럼 좋은 얘기 해줄줄은 몰랐소. 젠장.》

리철은 웃으며 얼굴을 붉혔다.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마십시오. 대위동지가 일어났다면 아마 나보다 더 론리정연하게 종합분석하였을겝니다.》

《젠장, 아니요. 나는 보다싶이 말주변이 없소.》

《대위동지, 그런데 그 젠장, 젠장 하는 말을 꼭 해야 하겠습니까?》

두성은 성근 머리를 쓸어올리며 소리내여 웃었다.

리철이도 가볍게 소리내여 웃었다.

흔적을 따라

이틀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아직 추적대상이 없는 리철이였지만 그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 그는 해안경비대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무슨 정황이 없었는가 알아보면서 그림도 그리고 탐정소설도 읽었다.

저녁이였다.

문이 사르르 열리였다.

그림을 그리던 리철은 사색의 세계에서 깨여나지 못했다.

《그림그리는것을 방해하는게 아닌가?》

두성대위는 벌거우리한 얼굴에 미소를 짓고 문옆에 있었다.

《아, 대위동지…》

리철이 놀란듯 돌아섰다.

《아니 가겠소.》

《갈걸 왜 들렸습니까?》

《〈실업자〉가 때식을 굶지 않았나 걱정되여서…》

그러면서 두성은 보자기에 싼것을 내밀었다.

《터밭에 심은 감자를 삶은거네. 가루가 폭폭 나서 먹을만 하더군. 젠장, 우리 영호 에미가 보내는거야.》

《감사합니다.》

감자보자기를 받아안은 리철이 두성이를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래 대위동지 일은 잘됩니까?》

《리철동무가 방목공아바이 말을 듣고 그려준 그 인물화를 가지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두 처녀를 알아냈지. 그래 방목공아바이를 데려다 물어보았는데 아니라구 하지 않겠나. 젠장, 또 미산동에 비슷한 처녀가 있다구 해서 지금 가보려구 나선 길이네.》

《녕월로친에게선 요즘 뭐 새로운…》

《녕월로친이 오늘 오전에 동분주소에 나타나 울며불며 경숙이를 찾아달라구 했다네. 그리구 사위가 왔다가 경숙이를 찾아보겠다구 하면서 갔는데 그 사람을 한번 알

아봐달라구 했다누만. 젠장, 그래서 인하중위가 탐사대로 떠났네.》
《경수동진 뭘하고있습니까?》
《응, 그는 녕월로친이 전쟁시기에 살았다는 재령군에 출장갔다왔소. 이번엔 녕월로친의 파거생활문제를 의뢰하고 돌아왔는데 인츰 소식이 있을것이라고 하오.》
《모두들 분주하게 시간을 보내고있구만요. 그런데 난 대위동지가 말하다싶이 〈실업자〉가 되였으니…》
《아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요. 우리 전투의 기본공격방향은 리철동무가 담당한 방향이요.》
《예?! 목표도 없는데 기본공격방향이라구요?…》
《이제 목표가 출현할게요. …》
리철이와 두성은 서로 마주 쳐다보다가 머리를 뒤로 젖히면서 소리내여 웃었다.
다음날 리철은 해안경비대로부터 수상한 흔적을 발견하고 지금 수사중이라는 통지를 받았다. 리철은 즉시에 해안경비대 구분대로 나갔다.
리철은 도래굽이초소에서 부초소장을 만났다. 얼굴이 검실검실한 중사였다.
《전화를 받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동무들이 군견을 가지고 수색중에 있는데 나와 같이 나가봅시다.》
리철이 중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으면서 물었다.
《흔적을 어떻게 남겼습니까?》
중사는 곰산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는듯 목을 빼들고 앞을 주시하면서 대답했다.
《도래굽이 모래불에 어린 아이 발자국이 나있었습니다.》

《아이발자국?…》

《예…》

중사는 빙긋 웃었다.

《흥미있는데요.》

그들은 부지런히 걷기만 했다.

곰산을 가까이 했을 때였다.

골짜기입구에서 군견을 앞세운 수색조원들이 숲을 헤치며 내려왔다.

3명의 수색조원들이 중사앞에 와서 멎었다.

《어떻게 됐소?》

중사가 다우쳐물었다.

《헛탕을 쳤습니다.》

하사가 대답했다.

《수색결과를 말해보오.》

하사는 따분한듯 떠듬거리며 대답했다.

《군견이 이끄는대로 우리는 도래굽이로부터 세선마을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발자국흔적을 남긴자는 그 세선마을옆을 흐르는 시내물을 리용하여 종적을 감추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군견수와 시내물 좌우기슭을 타고 올라가면서 발자국을 찾기로 하고 성일동무는 논벌에서 논물보는 한 농장원이 있어 그를 찾아가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성일동무를 농장원에게 보내고 나와 군견수동무가 시내물을 따라 한참 살피며 오르고있을 때였습니다. 성일동무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오면서 농장원이 하는 말이 뉘네집 아이인지 달리기련습을 하는것 같더라면서 도래굽이쪽에서 달려와 곰산쪽으로 가는걸 보군 더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견을 앞세우고 곰

산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군견은 통 냄새를 맡지 못하였습니다.》

하사는 실망의 빛이 어린 눈길을 떨구었다.

중사는 생각깊은 눈길을 들어 곰산골짜기를 바라보았다.

리철은 락심하였다. 용히 쌓아놓았던 닭알무지가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은감을 느끼였다.

《논물보는 농장원을 다시 찾아가봅시다.》

리철은 중사에게 말했다.

《나도 그 생각입니다. 가봅시다.》

그들은 돌아섰다.

곰산골짜기입구에서 떠난 그들은 한참 걸어서야 세선마을 논벌에 이르렀다.

그러나 논벌엔 논물보는 농장원이 없었다.

《농장원이 논물보던 곳이 어디쯤이요?》

예민한 눈길로 논벌을 살피던 중사가 물었다.

《저기—》

전사가 손짓으로 가리켰다.

그러나 전사가 가리키는 곳에도 그 근방에도 농장원은 없었다.

《전사동무, 물어봅시다. 논물보는 농장원은 이미부터 알고있던 사람이였습니까?》

리철이 미심결에 전사의 발그레한 볼에 눈길을 보내며 물었다.

《처음보는 사람이였습니다.》

《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의심스러운것을 느낀건 없습니까?》

《별로…》

《전사동무, 그 농장원의 얼굴이 해빛에 탄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글쎄… 어쩐지 해빛에는 많이 탄것 같지…》

이때 한쪽에서 첨버덩 하는 소리가 울렸다. 군견이 논물속에 뛰여든것이다.

이어 군견은 웬 시꺼먼 물건을 물고나왔다.

리철이와 중사는 일시에 군견한테로 뛰여갔다.

《중사동지, 어린이신발짝입니다.》

중사는 군견수가 물고 흔드는 신발짝을 얼른 받아보고는 리철에게 내밀었다.

《교활한 놈!》

리철의 눈에서 불이 펄펄 일었다.

논물을 보던 농장원의 정체가 비로소 드러났던것이다.

군견수는 분해서 어쩔바를 몰라했다.

《전사동무, 그놈이 어떻게 생겼던지 좀 말해보시오.》

전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띠염띠염 말했다.

《눈은 크고 이마는 좁구… 코는 뭐랄가… 입은 큰것 같습니다. …》

《얼굴형은 둥글었습니까? 길쭉했습니까?》

《저… 뭐랄가… 곽삽…》

《하하하, … 곽삽이라, 훌륭한 비유요. 전사동무.》

리철은 뜻밖에도 호탕하게 웃었다.

중사도 곁따라 웃었다.

그들은 얼마후 도래굽이를 떠났다.

합숙에 돌아온 리철은 그림판을 꺼내놓고 경비대 전사가

말해준 그 논물보는 《농장원》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리기 시작하였다.

그가 그림을 다 그렸을 때는 벌써 창밖에 어둠이 쫙 잠긴 밤도 깊은무렵이였다.

첫 싸움

이튿날 아침이였다.

해안려관 접수원으로부터 수상한 사나이가 려관에 숙박하고있다는 통보를 받은 리철은 부랴부랴 사무실을 나섰다.

그런데 수상한 사나이는 벌써 기미를 알아차렸는지 자기 호실에 그림자도 안남기고 사라지고 없었다.

리철은 때늦게 도착한 자기를 질책하며 접수원아바이에게 물었다.

《아바이, 그 사람이 수상하다는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 호실열쇠를 받아쥔 그 사람이 몇발자국 가다가 돌아서더니 글쎄 그 방에도 테레콘이 있는가고 묻는게 아니겠소. 테레콘이란 저 남조선에서 텔레비죤을 보고 하는 말이 아니요. …》

《아바이, 정말 각성이 높으십니다. 그래 뭐라고 했습니까?》

《호실엔 없고 중앙홀에 있는데 보시겠으면 거기 나와서 보시지요 하고 말했습지요.》

《감사합니다.》

리철은 흥분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며 돌아섰으나 손맥이 풀렸다. 그러나 마음속의 긴장감만은 조금도 늦추지 않고 다시 거리로 나왔다.

11시가 되였을 때였다.

하늘에서는 뜨거운 해빛이 자글자글 내리쬐이고있었다.

리철은 옆구리에 그림판을 끼고 공원쪽으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공원입구에 이른 그는 무심결에 한 키큰 사나이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무그늘밑에 놓여있는 의자를 향하여 걸어가는것을 얼핏 띄여보았다.

(혹시?…)

리철은 사나이의 얼굴을 찬찬히 여겨보았다.

사나이의 옷차림은 별다른것이 없었다. 모자가 특별히 시선을 끌었다.

보통사람들은 소홀히 할수 있는 그런 문제이지만 리철이의 눈에는 모자가 이상하게 여겨졌다. 회색인데 채양의 색갈은 유별나게 새까만 모자였다.

리철은 한쪽에서 그림을 그리는척 하면서 사나이를 더 찬찬히 여겨보기로 작정했다.

사나이에게 접근하거나 그를 살피는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얼마후 사나이는 의자우에 들고나온 꾸레미와 신문을 남겨놓고 분수가에 가서 뿜어오르는 물안개를 한참 지켜보고는 도로 의자에 가서 앉아 신문을 펼쳐들었다.

리철은 순간에 그 어떤 이상한 기미를 포착하였다.

그렇다!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매우 정확하였다.

바로 그 사나이가 려관에서 통보해온 수상한 사람이였던

것이다. 하지만 리철은 아직은 그 내막을 다 알길이 없었다. 그는 지금은 다만 자기의 예감을 증명해보려는데만 신경을 쓰고있을뿐이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그사이 환갑을 넘은 아바이, 소년단넥타이를 맨 학생들, 처녀들, 중년의 녀인들, 청년들을 비롯한 형형색색의 사람들이 그 사나이 앞으로 오갈뿐 아직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사나이는 그냥 앉아있었다.

이윽고 사나이는 한곳에 앉아있기가 지루한지 일어나 의자앞을 서성거리다가 접은 신문과 꾸레미를 들고 아이들이 떠들며 노는 미끄럼대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리철의 신경은 날카로와졌다.

사나이는 태연하게 공원안을 살피다가 미끄럼대를 잡고 아이들의 놀음에 취한듯 서있었다. 하지만 그의 왼쪽손은 나무로 만든 미끄럼대의 이음짬에 종이말이를 끼워넣고있었다.

(옳구나! 그럴테지!)

리철은 환성을 지르고싶었다.

그는 정확한 자기의 눈을 두고 어떤 귀한 보물처럼 온 세상에 자랑하고만 싶은 심정에 휩싸였다.

이제 두성대위와 경수상위에게 이 한순간 포착한 묘준점높은 눈에 대하여 자랑도 하자. 리철은 원쑤놈을 눈앞에 두고있다는 긴장감보다도 이런 자신에 대한 긍지감으로 하여 가슴이 막 터질지경으로 울렁거렸다.

사나이는 인차 미끄럼대에서 물러났다.

리철은 늦게까지 공원에서 그림을 그렸다.

어느덧 공원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비로소 리철은 팽팽해진 긴장감속에 자기가 빠져들고

있음을 느끼였다.

무슨 쪽지를 저 미끄럼대짬에 끼웠을가, 아니면 내가 잘못본것은 아닐가. …

리철은 드디여 결심을 내렸다.

그는 미끄럼대에로 걸어갔다. 한걸음, 한걸음이 무겁고 또 무거운 걸음이였다.

그는 미끄럼대 이음짬에다 손을 대였다. 아닐세라 종이말이가 끼여있었다. 재빨리 꺼내 풀어보았다.

《12일 밤 11시 №2상면장소에 〈범나비〉 나타날것, 〈꽃〉—〈까나리〉》

《아! 〈꽃〉—》

리철은 저도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꽃》, 공격목표가 이제야 나타났구나. 별호가 《까나리》인 모양이지? 접근하려는 상대방은 《범나비》란 말이지? 그러니 시조에서 나오는 그 《꽃》을 이끌어갈 《나비》가 아닌가? 아, 내가 얼마나 큰것을 발견했는가. 《범나비》, 《범나비》…)

리철은 못견디게 가슴이 울렁거리였다.

(《까나리》만 놓치지 않으면 《범나비》도 만나게 될것이며 《범나비》가 《꽃》을 이끌고 갈 그곳까지 나는 가게 될것이 아닌가. 거긴 어딜가? 거긴 무엇을 하는 곳이고 무엇이 있을가? 가만, 《범나비》… 《두꺼비》가 날린 전파에서 구원을 요청한것이 《범나비》가 아닌가. 그런데 왜 구원선이나 구원자는 보내지 않고 시조에서는 오히려 《범나비》보고 《꽃》을 이끌어주라고 했으며 《까나리》를 들여보냈을가? 혹시 《까나리》가 구원자가 아닐가? 그래 시조에서 《꽃》의 속삭임 《나비》들으면 매혹될것

이라고 하지 않았는가. 아, 《범나비》는 어떤 놈일가? 《까나리》만 놓치지 말자. 그러면 만나게 될것이다.)

리철은 한생을 다 생각해도 짜내지 못할만큼 많은 이러한 생각들이 일시에 뇌리로 줄달음치는데 스스로가 놀라왔다.

그는 인차 공원에서 바람처럼 사라졌다.

다음날에도 리철은 공원으로 나갔다. 누가 보아도 어제 다 그리지 못한 그림을 그리러 나온 화가로 그를 볼것이였다.

한참 그림을 그리는데 그 사나이가 나타났다.

《까나리》였다. 리철은 이제는 제가 친 그물에 걸린 《까나리》는 더는 문제될것이 없다는 배심이 생겨 아무런 긴장감도 느껴지지 않았다. 누가 《까나리》와 접선하는지 그 미지의 인물을 찾아만 내면 되는것이였다. 두번째 인물은 과연 누굴가.…

《까나리》는 리철이가 점찍어둔 그 의자에 여전히 앉아 오래도록 신문을 보고있었다.

공원에는 어제보다 찾아오는 사람들이 곱절 많았다.

일요일이였던것이다.

리철은 비로소 오늘이 일요일이라는것을 알게 되자 속으로 피식 웃었다.

그는 그림을 그리면서도 《까나리》를 놓치지 않았다.

둬시간 흘렀을 때였다.

《까나리》는 어제처럼 아이들의 놀음에 취한듯 미끄럼대로 가더니 이음짬에 얼른 손을 댔다 떼는것이였다. 순간의 동작이였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유유히 공원밖으로 사라졌다.

리철은 아연실색하였다.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건가? 어느새 암호를 교환한것은 아닐가?…)

해수욕장에서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부장은 리철의 전화를 받고 경수상위와 교대하든가 그를 더 보내주겠노라고 하였다.

하지만 리철은 교대하는것은 불리하며 지금은 인원이 더 요구되지 않으니 필요한 경우 요구할 때 한명 보내달라고 하였다.

이튿날 중낮이 될무렵 방안에 들어박혀있던 《까나리》가 드디여 폭양으로 숨이 컥컥 막히는 려관문밖을 나섰다.

리철은 보풀인 소설책을 말아쥐고 《까나리》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까나리》는 뜨거운 해볕이 싫었던지 인도의 가로수밑으로 스적스적 걸었다. 그는 한가스레 건재상점, 신발상점, 일용품상점들에 들려 빈둥거리다가 시계를 들여다보더니 부지런히 걷기 시작했다.

내려쪼이는 불볕은 뜨겁다못해 막 아렸다.

리철은 땀이 밴 손수건을 쥐여짠 다음 그것으로 연신 이마의 땀을 훔치면서 《까나리》를 먼발치에서 따라 걸었다.

(공원쪽으로 가지 않는것으로 봐서 어제 비밀암호로 상면장소를 바꾼 모양이구나. 오늘은 《범나비》와 직접 상면하지 않을가?)

해수욕장이 눈앞에 나타났다.

바다물을 말아올리며 이랑지어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

만 바라보아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해수욕장이였다. 그러나 8월의 폭양에 뜨겁게 달아오른 백사장을 거쳐 불어오는 해풍은 증기처럼 후더웠다.

바다물에서 자맥질하던 사람들이 불덩어리같이 뜨거운 모래불우에 뛰쳐나와 드러눕군 하였다.

《까나리》는 왁새처럼 목을 빼들고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농립모로 부채질하였다. 그러더니 해수욕장과 좀 떨어진 소나무숲속으로 걸음을 옮기였다.

해수욕장과 소나무숲을 한눈에 지켜볼수 있는 소나무그늘밑으로 자리를 옮긴 리철은 휴대용자동무선기로 부장을 찾았다.

경수를 보내겠다는 부장의 목소리를 들은 리철은 안도의 숨을 내쉬며 소나무숲쪽에 눈길을 던졌다.

그런데 리철의 눈에 그 소나무숲쪽으로 두리번거리며 걸어가는 한 녀인이 보였다.

몸치장을 간편하면서도 시원스럽게 하였고 머리단장도 틀어올린것이 40대의 녀인이였다. 그러나 걸음걸이는 좀더 나이든 녀인의 걸음걸이처럼 느리였다.

(가만, 40대의 녀인, 저런 모상의 녀인을 어데서 보았더라?…)

리철은 생각을 톺아나갔다.

(그렇지. 그제 공원에서였지. 《까나리》의 앞으로 지나간 사람들중에서 그를 한번 쳐다본 사람의 하나가 저런 40대의 녀인이였어. … 그래그래. 그때 40대녀인은 《까나리》의 모자를 보고 상대방을 확인했을것이다. 그 녀인이 지나간 다음 몇분후에 《까나리》는 앉았던 의자앞을 다섯번 왔다갔다 했지. 그리고 신문을 두번 들

었다 놓았다 했어. 이것이 40대녀인에게 접선장소를 알리는 신호가 아니였을가? 맞았어. 이건 틀림없이 접선장소를 알리는 신호였어. 이 신호를 40대녀인은 공원의 어느 장소에서 지켜보았을거야. 그래서 《까나리》는 이튿날 공원의 미끄럼대 이음짬에서 필요없게 된 그 쪽지를 가져갔어.)

리철의 추리는 틀리지 않았다. 놈들은 그런 방법으로 접선장소를 알리고 또 알아가졌던것이다.

리철이 이런 생각을 굴리며 40대의 녀인이 사라지는 소나무숲쪽에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경수상위가 오면 40대녀인의 인상특징에 대해 알려주고 그를 미행해달라고 부탁하리라 마음먹었다.

이 시각 소나무숲속 락엽썩은 냄새가 구수하게 풍기는 땅우에 앉아 담배를 꺼내문 《까나리》는 무슨 책을 펼쳐들고 들여다보면서 활활 부채질을 하고있었다.

여기에 40대의 녀인이 나타나 발볌발볌 다가서며 약간 떨리는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에— 덥다. 한소나기 쏟아지구 바람이나 좀 불어주지.》

그러더니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다가 말을 이었다.

《손님, 거 부채가 참 좋수다. 어디서 샀소?》

《산게 아닙니다.》

《그럼 자체로 만들었는가요?》

《그렇지요.》

《그 나비는 무슨 나빈가요?》

《〈범나비〉지요. —》

《그런데 나비를 하나만 그려서 멋이 없구만요. 거기

다 〈꽃나비〉를 하나 더 그려넣으면 보기 좋겠시다.》

《여보시오. 아주머니, 왜 〈범나비〉가 오지 않고 당신이 나타났소?》

불현듯 맵짜게 울리는 소리에 얼떠름해진 녀인은 《까나리》를 멍하니 쳐다만 보았다.

《?!…》

《까나리》는 《범나비》를 50살을 넘긴 로친으로 알고있었다. 그런데 공원에 나타났던 40대의 녀인이 아닌가. 불쾌했다.

갑자기 그의 머리속에는 혹시 안전원들이 보낸 사람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번개쳤다. 《까나리》는 목을 쭉 빼들고 눈알을 디룩디룩 굴리며 사방을 살펴보았다.

《나는 〈범나비〉가 쉰살을 넘긴 로친으로 알고있는데…》

한참만에야 《까나리》는 녀인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녀인은 웃었다.

《호호호… 쉰살을 넘긴 로친을 보구싶단 말이지요?… 변장이라는게 그래서 있지 않나요. 내가 가발을 썼다는걸 몰랐지요? 얼굴분장한것두 모르겠수.》

녀인은 입을 비쭉거리였다.

《까나리》는 눈이 그냥 퀭해서 《40대녀인》을 쳐다보았다.

《그래두 나를 못믿겠어요?》

《가리도시선생과 패스맨각하는 나비형 〈은가락지〉를 보여줄 때만 그를 〈범나비〉로 인정하라구 했소.》

《〈은가락지〉?》

녀인은 옷섶을 헤치더니 거기서 나비형《은가락지》를

꺼내여들었다.

《40대녀인》은 가락지를 옷섶에 감추었다.

《까나리》는 그걸 넋나간 놈처럼 지켜보았다.

《이래두요. … 어서 들어온 목적이나 말해요!》

《〈범나비〉, 가리도시선생과 패스맨각하는 당신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좋아요. 그건 그렇구 나를 어떻게 데려가겠는지 무슨 얘기가 없었어요?》

《한달후 ××상선이 원포시 무역항에 들어오오.》

《흥, 알만해요.》

《아니, 이거 너무 쌀쌀하게 굴지 마시오. 어디 말 한마디 온전히 하겠소?》

《그래 당신이 받은 임무는 무엇이예요?》

《나는 〈부나비〉를 만나고 다시 돌아가야 하오. 당신은 그 〈은가락지〉를 나에게 넘겨줘야 하오. 패스맨각하의 지시요.》

《패스맨?!》

녀인은 《까나리》를 쏘아보았다.

《아, 가리도시선생과 패스맨각하의 지시요. …》

《그건 안돼요. 한달후에 가리도시선생과 패스맨각하를 만나면 내가 직접 전달하겠다구 알려요.》

《까나리》는 온몸이 나른해졌다. 《은가락지》를 가지고 돌아가지 못하면 자기는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같았다.

《그래 들어온 목적이 그게 단가?》

풀이 죽은 《까나리》의 낯짝을 빤히 지켜보던 녀인은 다시 물었다.

《다른 지시도 또 있소. 조선소와 통신기계공장을 하

늘로 날려보내야지요.》

《호호호… 정말 당신들이 하는 일이란… 여하튼 난 거기엔 상관안하겠어요. …》

녀인은 다시 《까나리》를 쳐다보며 거의 명령조로 말하였다.

《이봐요. 래일 원포시와 옥천군 경계표식말뚝이 있는 곳에서 서쪽으로 100메터 가면 구새먹은 가둑나무가 있는데 그걸 찾아내세요. 구새먹은 나무일거예요. 그 구새속에 밀봉한 삼각봉투를 가져다넣고 3일후에 다시 가보면 그곳에 당신에게 전하는 무슨 글쪽지가 있을거예요.》

《…》

《까나리》는 의문이 잔뜩 실린 눈을 꺼벅거리며 녀인을 빤히 쳐다보았다.

《명심할건… 삼각봉투에 개미 세마리를 꼭 잡아넣고 밀봉하는거예요. 세마리예요.》

《알았수다.》

《까나리》는 코를 킁킁거리였다. 이제는 《범나비》에게서 《은가락지》만 뽑아내면 성공이였다.

《그럼 〈부나비〉를 만나고 오겠으니 3일후에 제1상면장소 아니면 제2상면장소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다음 나는 패스맨각하가 별도로 준 임무대로 장산군에 가겠소.》

《장산군?!…》

하고 녀인은 갑자기 놀란 소리를 지르며 《까나리》의 얼굴에 칼줄같은 시선을 박았다.

《까나리》는 저도모르게 말한것을 후회하며 한수 뜰심사로 시물시물 웃었다.

사실은 다시 만나는 그 장소에서 묘한 수를 써 《범나

비》의 은가락지를 뽑아낼 결심이였던것인데 녀인은 자기의 그 속심을 빤히 들여다보는것만 같았다.

《좋아요. 무엇때문에 장산군에 가려고 하는지 알만해요. 〈흰〉망을 만나자는거겠지요?》

《예?…》

《까나리》는 속으로 이년이 정말 보통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래 그는 더 숨김없이 솔직히 말하였다.

《…장산군에 패스맨각하의 〈흰〉망이 있는데 그 망의 〈도마뱀〉을 나는 만나야 하오.》

《〈도마뱀〉을 만나건 안만나건 나에겐 상관이 없어요. 그럼 헤여지자요. 나를 등지고 앉아요.》

신고자

구구구— 하고 비둘기들이 울었다.

정인하는 아이들의 발밑에서 먹이를 주어먹느라 맴도는 비둘기무리쪽에 눈길을 보냈다.

거기로 스적스적 발걸음을 옮기던 《까나리》가 방향을 바꾸어 공원울타리밖으로 나갔다.

인하도 그를 놓치지 않고 따르고있었다. 리철이로부터 《까나리》를 인계받은 정인하였다.

얼마후 《까나리》는 식당안으로 들어갔다. 밥표를 떼가지고 빈 식탁에 가앉은 《까나리》는 한숨을 푹푹 쉬며 창밖을 내다보고있었다. 머리속에는 별의별 불길한 생각이 검은 구

름처럼 맴돌고 눈앞에는 입을 비쭉거리며 해수욕장 소나무숲속에 나타났던 《40대녀인》의 얼굴이 유령처럼 얼른거리였다.

(《40대녀인》, 고약한 년, 원포시와 옥천군 경계점 숲속의 구새먹은 나무를 리용하면 《부나비》를 만날수 있을거라구 나를 속여넘겼지. 그런데 3일후에 공원에서 만나자는 약속은 왜 지키지 않을가?… 제2접선장소에 가있지 않을가? 그곳으로 가보자.)

접대원처녀가 밥을 식탁에 가져다놓았다.

그러나 《까나리》는 밥을 몇술 뜨다말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접대원처녀는 신경병환자처럼 행동하는 《까나리》를 의혹에 찬 눈길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그것을 느끼지 못한 《까나리》는 경기장쪽으로 내처 걷기만 하였다. 로천동뻐스정류소까지 숨이 턱에 닿도록 걸어온 그는 여기서부터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가로등기둥을 12개까지 그런 걸음으로 걸으며 지나가고 오는 사람들을 힐끔힐끔 쳐다보던 그는 홱 돌아섰다.

(고약한 년, 왜 나타나지 않았을가?)

《까나리》는 분통이 터져 참을수 없었다. 그러나 또 한가닥의 희망이 가슴속에서 움텄다.

(지금쯤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을가?)

《까나리》는 또 공원으로 갔다. 그는 공원을 거닐며 사람들을 살폈다.

《40대녀인》은 눈에 띄지 않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오른 《까나리》는 려관으로 돌아갔다. 2층 7호실에 들어가 안으로 문을 잠근 《까나리》는 베개를 베고 벌렁 드러누웠다.

(아, 그놈의 《은가락지》를 대관절 어떻게 빼앗는단 말인가.)

《은가락지》만 가지고 돌아가면 패스맨과 가리도시는 금붙이를 안겨줄것이고 그것이면 명동거리의 《칼멘》, 《비너스》, 《춘희》, 《마드리스》 등 한다하는 캬바레며 카페, 다방에서 계집들과 춤추고 마시며 놀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은가락지》를 아직 손에 쥐지 못한 자기가 못내 한스러웠다.

《까나리》의 눈앞엔 쌕스폰에서 울려나오는 《코스모스》의 음악에 맞추어 계집들의 몸뚱아리를 그러잡고 노근해진 다리를 옮기고있는 장면이 안개속에서처럼 안겨왔다.

《까나리》는 후닥닥 일어나앉았다. 숨구멍이 컥 막히는것 같았다. 그는 활랑거리는 가슴우에 손을 얹고 눈을 사르르 감았다. 순간 온 대지가 먹물을 뿌린듯 캄캄해지고 장송곡같은 음향이 어지럽게 울리였다. 온몸이 오싹 저려났다.

이러는 때 문밖에서 인적기가 났다.

《까나리》는 다시 신경을 가시처럼 꽂꽂이 세워가지고 일어나 문을 빠끔히 열었다.

복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였다.

(영달의 꿈은 이제 영영 깨지고만것이니 될대로 되라지. 가보자. 그 귀신같은 년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 만나자.… 가만, 패스맨과 가리도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근처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제길, 인제 그걸 따질 때가 됐는가?)

《까나리》는 다시 려관을 나서 공원쪽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였다.

정인하가 뒤를 따르고있었다.

공원에 이른 《까나리》는 마치 놀러 나온 사람처럼 거닐면서 사람들을 살피였다.

녀인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혹시 8번째 가로등기둥밑에 상면암호쪽지라도 집어넣을수 있지.)

이런 생각을 굴리던 《까나리》는 공원을 빠져나와 식당에 들려 빵 한그릇 사서 종이에 싸들고 경기장쪽으로 향하였다. 로천동뻐스정류소에 이른 그는 가로등기둥을 《하나, 둘, 셋…》하고 속으로 세면서 8번째 가로등아래서 들고가던 빵을 실수하는척 하면서 떨구었다. 종이가 헤쳐지면서 둥그런 빵덩어리들이 땅바닥에 굴었다.

《허참, 재수없군…》

《까나리》는 씨부렁거리며 사방을 휘둘러보았다. 사람들이 가까이 없다는것을 안 그는 가로등기둥밑에 나져있는 새둥지같은 구멍에 손을 밀어넣고 무엇인가 찾았다.

그러나 손에 잡히는것은 없었다.

(괘씸한 년!)

땅바닥에서 빵을 하나 집어들고 일어선 《까나리》는 홱 돌아섰다.

(이년, 나를 속여넘겼구나! 찾아가 덜미를 잡고 태를 쳐놔야지.)

《까나리》는 룡수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층집들이 비좁게 들어선 골목길을 에돌며 룡수동에 이른 《까나리》는 빈둥거리며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목을 길게 뽑고 담을 넘겨다보기도 하고 집마당에 녀인이 있으면 활랑거리는 가슴을 안고 유별나게 살피기도 하였다. 그러던 나머지 어느 한 집 울타리를 지나가다가 빨래를 널

고있는 녀인을 어찌도 넋나간 사람처럼 지켜보았던지 그 녀인이 얼굴을 붉히며 돌아서게까지 하였다.

그제야 자기가 사람찾는데 옴하던 나머지 도수가 넘게 행동했다는것을 감촉한 《까나리》는 자기의 실책을 크게 뉘우치며 처신을 똑바로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한 골목에 이르렀을 때였다.

《까나리》의 눈에 《위탁수매소》라는 간판이 눈에 띄였다. 그 집 마당에는 파고철과 파지, 빈병무지들이 있었는데 세명의 아주머니들과 두명의 아이들이 저울대옆에 둘러서서 가지고온것들을 수매하고있었다.

《까나리》는 그 집 울타리를 천천히 지나가면서 녀인들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는 《까나리》쪽에 녕월로친이 무심히 눈길을 보내다가 저울눈을 들여다보았다.

수매소집을 다 지나간 《까나리》는 인츰 돌아서기가 멋적어 대여섯집을 지난 다음 사방을 살펴보다가 돌아섰다.

한 녀인이 수매소집에서 수매증과 돈을 받아들고 나와 종종걸음으로 《까나리》가 걸어오는 골목을 빠져나갔다. 그 녀인을 힐끔 쳐다보며 지나온 《까나리》는 수매소집 마당안에 서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천천히 다가갔다.

녕월로친은 의문이 실린 눈길로 《까나리》의 아래우를 훑어보았다.

《저 이 마을에 한월매라는 어르신네가 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까나리》는 울타리밖을 힐끔힐끔 살피였다.

《어르신네라니요?》

《저 한월매라는 로친말입니다.》

《몇살쯤 났습니까?》

《쉰살은 넘었습니다.》

《한월매… 친척되는가요?》

《아, 아니요.》

《그런 로친은 없수다.》

녕월로친은 다시금 《까나리》를 발끝으로부터 머리끝까지 의문스러운 눈길로 훑어보았다.

《까나리》는 당황해났다. 그는 이곳 말투가 아닌 자기네들식으로 로인들을 《어르신네》라고 한 생각이 나서 녕월로친이 자기를 의아쩍게 대하는것이라 생각했다.

《손님, 우리 마을엔 그런 로친이 없으니 다른 마을에 가보시우.》

녕월로친은 의혹감이 실린 시선과는 달리 부드러운 어조로 말하며 돌아섰다.

다행이라고 생각한 《까나리》는 인차 돌아서 울타리 밖으로 나와 왼쪽 골목길로 스적스적 걸어갔다.

잠시후 수매소앞으로 정인하중위가 지나갔다.

그를 발견한 녕월로친이 인하를 불러세웠다.

《여보게 젊은이, 방금 수상한 사람이 저 골목길로 달아났네. 여기 와서 한월매라는 로친이 이 마을에 살지 않는가구 물었는데 글쎄 로친이란 말을 〈어르신네〉라고 하지 않겠나. 〈어르신네〉라는 말이야 저 남에서 로인들을 존경해서 부르는 말이라던데…》

녕월로친은 왼쪽 골목길을 가리켰다.

《감사합니다.》

인하는 지체하지 않고 그쪽으로 달려갔다.

녕월로친도 인하의 뒤를 따랐다.

달려가던 인하가 두갈래의 길이 나진 곳에 서서 좌우

를 살피였다.

그때 인하가 있는 곳으로 엎어지듯 달려온 녕월로친이 수상한 그 사나이가 변소에서 나오는것을 알려주었다.

《저 사람이웨다.》

정인하는 립장이 따분해졌다.

남몰래 미행하려던것이 《까나리》를 눈앞에 놓고 가리켜주는 바람에 그의 신분이라도 확인해보는척 하는수밖에 없었다.

《저…》

《까나리》와 마주선 인하는 선뜻 말이 나가지 않았다.

《왜 그러십니까?》

《까나리》가 태연하게 물었다.

정인하는 신분증을 꺼내보이면서 말했다.

《신분을 좀 확인합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까나리》는 공민증을 꺼내는척 하면서 눈깜박할사이에 정인하의 면상에 타격을 가했다.

정인하는 《악－》 하면서 땅바닥에 굴었다.

순간 놀란것은 녕월로친이였다.

정인하가 타격을 받고 땅바닥에 나딩구는줄 알았는데 《까나리》가 저만치 나가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것이였다.

신경을 곤두세우고 서있던 정인하가 《까나리》의 주먹이 날아들어오는 순간 번개같이 피하면서 발로 놈의 배허벅을 냅다 찼던것이다.

그러나 《까나리》도 보통놈이 아니였다. 어느새 정인하에게 달려들면서 발길질을 했다.

인하도 한바퀴 굴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발로 놈의 다리

를 걸어챘다.

《까나리》가 코를 땅바닥에 찧으면서 앞으로 쏙 뻗었다.

《사람살리오— 사람들 어데 없소?—》

녕월로친이 소리질렀다.

《여보시오— 여기 도적놈 잡아주시우— 도적놈 잡아라—》

멀리에서 지나가는 한 청년을 향해 녕월로친이 발을 동동 구르며 웨쳤다.

지나가던 청년이 달려오고 집집에서 어른들과 아이들이 막 쏟아져나왔다.

그러나 달려온 청년도 마을사람들도 인하를 도와주기에는 이미 늦었다.

어느새 가느다란 포승줄로 《까나리》의 두손을 묶어놓은 정인하가 허리를 펴면서 일어섰다.

《멀쩡한 놈이 도적질을 하다니?—》

《누구네 집을 털었소?》

《저런 놈은 손목을 잘라버려야 해.》

모여선 사람들이 《까나리》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말소나기를 퍼부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숨을 몰아쉰 정인하가 녕월로친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을… 난 젊은이가 욕볼가봐 겁이 더럭 났댔수다.》

녕월로친은 혀까지 끌끌 차면서 인하의 옷에 묻은 흙을 털어주었다.

《괜찮습니다. 수매소집 어머니가 제때에 알려주지 않았더라면 놓칠번 했습니다.》

인하가 이러면서 바지에 묻은 흙을 툭툭 털었다.

《경숙이 어머니는 언제봐두 각성이 높다니까.》
《정말 그래요!…》
모여선 사람들은 녕월로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니, 그런데 저놈이 왜 저러우?》
녕월로친이 한찰나 두부물자루처럼 되여 땅바닥에 딩구는 《까나리》를 손가락질했다.
가슴이 섬찍해진 인하가 《까나리》의 두볼을 손으로 꽉 잡았다.
그리고 쩍 벌어진 《까나리》의 입안을 들여다보았다.
이제 더는 살길이 없다는것을 알게 된 놈은 극약이 든 목깃 혼솔을 깨물어먹었던것이다.
《자동차!… 거리에 나가 아무런 차라두 불러와야겠소.》
정인하는 급한 소리를 질렀다.
한 청년이 거리쪽으로 달려갔다.
《저놈은 진짜 간첩이 분명해요!》
녕월로친은 이발을 사려문채 낯색까지 파래가지고 모여선 사람들한테 말하였다.

론 쟁

부장의 방에서 모임이 있다는 련락을 받은 리철이가 부랴부랴 부서에 돌아왔다.
《리철동무―》
부장의 방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일어선 경수상

위가 리철이를 보자 손을 내밀면서 반갑게 맞아주었다.
경수의 손을 잡은 리철이 호인답게 웃었다.
《상위동지, 해수욕장에서 헤여진 후 건강했습니까?》
《그럼.》
《그런데 그 〈40대녀인〉을 놓쳤다면서요?》
《면목이 없소. 리철동문 새로운 인물과 맞다들었다면서? 모두들 기대가 크오.》
《봐야 알지요. 거물이겠는지, 새우겠는지… 그런데 상위동지, 해수욕장 소나무숲속에서 〈40대녀인〉을 놓친 다음 어떻게 했습니까?》
《가기요. 부장동지 방으로 가면서…》
말끝을 흐린 경수는 대답할 면목이 없었던지 먼저 방을 나섰다.
조급해진 리철이 다시 물었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보다싶이 지금까지도 찾아내지 못했는데 그후의 이야기를 해서 뭘하겠소.》
몇발자국 따라걷던 리철이 다시 물었다.
《해수욕장에서 〈까나리〉와 헤여진 〈40대녀인〉을 처음엔 정확히 미행하지 않았습니까?》
《허허참…》
경수는 허공에다 가벼이 웃음을 한번 뿜어올리고나서 말하였다.
《동무가 처음 미행해달라고 했을 때 그 녀인은 분명 빈몸이였소. 그런데 소나무숲속에서 나올 때 그의 손에는 무슨 물건이 들려있더란 말이요. 그래 나는 바싹 긴장해서 그 녀인의 뒤를 따라 시내로 들어갔소. 뻐스를 탈

거라 타산했소.

그런데 그다음 무슨 일이 생긴지 아오. …》

경수는 잠간 말을 끊고 이야기를 더 흥미있게 해보려는듯 리철이를 슬쩍 보고나서 말하였다.

《녀인은 새마을동 6층아빠트로 들어가는것이 아니겠소. 그래 난 닭쫓던… 허허, 그거 비유가 적합치 않군. …그래 한동안 바깥에서 멍청히 기다리다가 도대체 어느 집으로 들어갔나 해서 아빠트로 올라갔소. 있을게 뭐요. 매 집 문을 다 열어볼수도 없지… 이래서 다시 아빠트앞에서 한동안 서성거리다가 뻐스정류소에 가보았소.》

《현관문은 외통으로 난 아빠튼가요?》

리철이 조급하게 물었다.

《두개의 현관이 있는데 한쪽 현관문은 봉해있었소. 그러니 들어가는 문이자 나오는 문이라고도 할수 있지. …》

《거참, 뻐스정류소에서는 더 무슨 일이 없었습니까, 상위동지.》

《없었소. 헌데 녕월로친이 날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하더군.》

《예? 경숙이 어머니말입니까?》

《왜 갑자기 놀라오?》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

리철은 빙긋이 웃었다.

어느새 그들은 부장방 앞까지 다가섰다.

경수와 리철은 방안으로 들어갔다.

방안에는 두성이와 인하가 먼저 와 앉아있었다.

부장은 이내 자기 의자에 가앉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모임을 시작합시다. … 알다싶이 리철동무는 〈까나

리〉를 미행하다가 새로운 인물을 발견했소. 그래서 〈까나리〉를 인하동무에게 인계한거요.

새로운 인물이 〈40대녀인〉이라 붙인 그 녀자와 헤여진후 〈까나리〉가 찾아갔던 원포시와 옥천군 경계점의 숲속에 있는 구새먹은 나무가 있는 곳에 나타났드랬는데 그를 미행하던 리철동무는 그가 원포식료공장 인수원이며 이름은 칠녀라는것을 알아냈소.

직접상면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서로 구새먹은 나무를 통해 무슨 련계를 가지고있다가 3일후에 〈까나리〉는 녕월로친의 신고에 의해 인하동무에게 덜미를 잡히였소.

문제는 칠녀요. 리철동무는 칠녀, 그 녀자가 벼랑바위산에 나타났던 인물이라 추리하는데 어떻소?

만약 이 추리가 정확하다면 큰 소득이 생길터인데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소. 〈까나리〉가 이제 의식을 회복하면 다소 의문을 풀수 있는 자료를 뽑아낼수 있겠지만 아직 그놈은 혼수상태에 있소. 이런 조건에서 우리는 당장 그놈의 입을 열수 없게 되였소. 때문에 나는 놈들이 〈까나리〉가 체포되였다는걸 알게 된 이상 무슨 망동을 부리기전에 집체적지혜로 지금까지 벌어진 사건을 놓고 새로운 대책을 취하기 위해 모임을 조직했소. 생각되는바가 있으면 누구든 말해보시오.》

부장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다독이면서 두성이와 경수의 얼굴을 쳐다보다가 이번에는 인하를 쳐다보았다. 그러던 부장의 눈길이 리철의 얼굴에 와서 멎었다.

리철은 머리를 수그리고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부장쪽에 눈길을 던졌다.

순간 부장은 그의 얼굴에서 눈길을 떼고 창문밖을 내

다보며 다시 말을 곱씹었다.

《어떻게 귀결시킬수 있겠는가?…》

《부장동지, 제가 생각되는바를 말해도 되겠습니까?》

《어서 말해보오.》

머밋머밋하던 리철이 드디여 입을 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침입간첩 〈까나리〉와 간접상면을 한 원포식료공장 인수원 칠녀라는 처녀의 사진을 방목공아바이에게 가져다 보여주었는데 그는 가까이에서 보지 않아 딱 찍어 말할수는 없지만 비슷한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놓고 나는 다음과 같이 추리하고싶습니다.

벼랑바위산에 나타난 처녀는 칠녀가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가 경숙이를 죽이지 않았겠는가. 그러면 〈까나리〉와 간접상면을 한 칠녀는 왜 경숙이를 죽였으며 그의 집에 손을 뻗치였는가? 단정하기 어려운 이 문제를 해명하려면 여전히 의문부호로 남아있는 책방의 복실동무가 제공해준 녕월로친의 그 〈금가락지〉에 대한 비밀을 지체함이 없이 밝혀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놓고보면 또 경숙이 어머니 녕월로친이 의심스러운 인물로 화제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다 알다싶이 침입간첩 〈까나리〉가 수상하다고 신고한 경각성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여기서 말을 끊은 리철은 잠간 두성이와 인하를 쳐다보고는 말을 다시 이었다.

《부장동지 방에 들어오기전에 나는 경수동지로부터 해수욕장 소나무숲속에서 〈까나리〉와 만났다가 헤여진 〈40대녀인〉을 미행하다가 새마을동 6층아빠트에서 놓친

후 뻐스정류소에 서있는 녕월로친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40대녀인〉은 간데온데 없는데 얼마후 그곳 뻐스정류소에 서있었다는 녕월로친, 어쩐지 나는 그에 대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리철은 할말을 다하지 않고 도중에 끝낸듯한 인상을 남기고 앉았다. 누가 반박하는 의견을 내놓지 않겠는지, 부장이 엉터리없는 판단이라고 하지 않겠는지 슬그머니 걱정이 된 리철은 동무들의 얼굴을 다시 새삼스레 살펴보았다.

경수상위가 일어섰다.

《리철동문 마치 경숙이 어머니 녕월로친이 해수욕장솔밭에 나타났던 〈40대녀인〉이였던것처럼 말하면서 변장했던 그를 알아보지 못한 나에 대해 의견이 있는듯한 인상을 남기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녕월로친이…》

불쑥 자리에서 일어선 리철이가 경수의 말허리를 끊으며 성급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서 의견이 있습니다. 나는…》

《리철동문 앉으시오.》

부장이 엄한 목소리로 리철의 말을 눌러놓고 경수더러 계속하라고 턱짓했다.

《…그리고 녕월로친이 〈40대녀인〉으로 변장했다고 해도 그 사이에 변장했던 허울을 다 벗어버릴수 있겠는가 하는것입니다. … 만약 그렇다면 녕월로친이 가지고있는 〈금가락지〉에 무슨 연고가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한 작전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공연히 사람을 의심해서 사건에 혼란을 조성시키지 말며 또… 하여튼 저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경수는 의자를 끄당겨놓으며 앉았다.

이번에는 인하가 일어섰다.

《저도 생각되는바를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리철동무는 경숙이를 죽인자가 칠녀이며 〈40대녀인〉이 해수욕장 소나무숲에서 〈까나리〉를 만난 그날 뻐스정류소에 서있은 녕월로친을 의심하고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가설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판명되겠는가 하는것은 두고봐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간첩망이 우리의 면전에서 유령처럼 움직이고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더욱 의문이 깊어지는것은 〈금가락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장동지가 새로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사건을 49년도 백치민이란자의 자수에서 나온 〈금가락지〉사건과 련관시켜보군 하였는데 그 어느 사건에서도 〈금가락지〉건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금가락지〉란 실물이 나타났으며 그로 해서 은근히 우리의 감정은 거기로 끌려가고있습니다. 때문에 이 〈금가락지〉의 비밀만 알아낸다면 〈까나리〉에게 구새먹은 나무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대주었다고 인정되는 〈40대녀인〉이 식료공장 인수원 칠녀이겠는지 아니면 그처럼 말밥에 오르군 하는 녕월로친이겠는지 하는 문제도 해명할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인하는 좌중을 둘러보더니 천천히 앉았다.

《두성동무는 할 얘기가 없소?》

부장은 모임을 서둘러 끝내려는듯 인하가 자리에 앉기바쁘게 물었다.

두성이 책상을 짚고 일어섰다.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견을 종

합해보면 화살은 분명 〈금가락지〉한곳으로 향했는데 그 비밀을 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성이의 견해도 결국은 리철이가 론쟁의 초점에 올린 《금가락지》에 떨어지자 부장은 한층 마음이 긴장되여 책상만 다독이며 앉아있었다.

벗과 원쑤를 갈라놓아야 할 중요한 문제인것만큼 성급히 결론을 내릴수 없었다. 그는 다시금 생각을 깊이 톺아보고 나서야 천천히 말을 뗐다.

《동무들의 론쟁을 난 하나도 반박하고싶지 않소. 다 일리가 있는 견해들이요. 〈금가락지〉의 비밀을 발가놓아야 한다는데로 의견이 일치된것만은 사실인데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동무들이 자기 사업에서 연구심이 많았다는걸 말해주는거요. 이것이 기쁘오. 문제가 제기되면 추리하고 판단하고 예리한 분석력으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세운데 근거하여 새로운 작전을 벌리려고 하는 당의 보위일군으로서의 그 기질이 마음에 든단 말이요.

어떻소, 이젠 우리의 싸움이 명백치 않소. 보이지 않는 원쑤와의 싸움은 이처럼 그 어떤 수사학적공식이나 고정불변한 처방만을 가지고는 문제를 정확히 해명할수 없소. 왜냐하면 사람문제이며 따라서 벗과 원쑤를 갈라놓는 계급투쟁이기때문이요.

리철동무 고쳐야 할게 있소. 상상이 나래친것은 좋은데 결론을 서두르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버릇을 고쳐야겠소. 말하는 도중 반박해나서는 행동은 위험하오. 정말 위험하오. 명석한 두뇌를 가진 수완있는 당의 보위일군일수록 동지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법이요. 그런데 뭐요?…》

부장은 고개를 푹 수그리고있는 리철을 넌지시 쳐다보며

다시 말을 이었다.

《리철동무, 고칠수 있소?》

리철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예…》

《대답이 씨원치 않소. 꼭 고쳐야 하오.》

(이거 오늘은 톡톡히 망신을 주려는건가. …)

리철은 한층 얼굴이 뻘개서 그냥 서있었다.

《앉소. 꼭 고쳐야 하오. 아직 어렸을 때부터 피우던 그 고집이 있거던…》

부장은 마지막 말마디를 거의 혼자소리처럼 중얼거렸다.

리철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리철이를 일깨워주는 부장의 엄한 말때문인지 방안에 무거운 침묵이 드리워있었다. 한동안 지나서야 부장은 결론하듯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론쟁의 초점에 오른 그 〈금가락지〉에 대한 작전을 펼칩시다. 시간을 준다는것은 오히려 우리가 적들과의 싸움에서 피동에 빠진다는것을 말하오. 명심할것은 흥분을 앞세우지 말고 심중해야 하오. 〈금가락지〉의 내막을 밝혀내는 일은 두성동무와 그리고… 에, 리철동무가 하시오.》

《예?!…》

리철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매를 안기고는 새로운 임무를 자기에게 주는 부장의 마음을 좀처럼 리해할수가 없었다.

《은》으로 변한 《금》

검증조에서는 부장의 지시에 의하여 《가락지》에 대한 검증전투가 진행되고있었다. 리철이가 탐사대에서 돌아온 경숙이의 남편 홍기로부터 《가락지》를 받아가지고 왔던것이다.

리철은 홍기와의 사업을 이미 치밀히 짜고 벌리였었다. 경숙이의 실종문제를 놓고 녕월로친에게서 제기되였던 사실들을 솔직히 홍기에게 이야기해주었던것인데 지금은 데릴사위로 들어갔던 홍기도 무엇인가 짐작되는것이 있는지 리철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방조해나서는것이였다. 그리하여 홍기는 약탕관안을 주의깊게 살피지 않으면 알아낼수 없을 정도로 밑에 덧판을 씌워 그 안에다 감추어둔 《가락지》를 찾아내여 리철에게 가져다준것이다.

검증이 끝나면 다시 《가락지》는 본래대로 약탕관에 넣어야 했다. 물론 그 일도 홍기가 하게 되여있었다.

그래서 지금 검증전투는 시간을 다투고있었다. 《가락지》에는 《나비》가 붙어있었는데 눈부위는 우묵하게 들어가있었다. 《금》이 아니라 《은》으로 된 《가락지》라는데 검증조원들은 한층 놀랐다.

조원들은 론의가 분분하였다.

의견이 분분하던 방안에 침묵이 흘렀다.

《가락지》를 들고 그것의 특성을 관찰하며 들여다보던 조장은 핀센트의 끝을 《은가락지》의 우묵한 눈에 가

져다대였다.

이때 한 조원이 《조장동지, 열번 돌려보십시오. 여기 날개에 10개의 구멍이 있는데 어쩐지 열번을 돌리라는 표식같지 않습니까?》하고 말했다.

《글쎄…》

조장은 그럴듯 하기도 하다는 표정을 짓고 그의 말대로 열번을 돌렸다. 아니나다를가 열번을 돌렸을 때 나사가 삐여져나왔다. 나사가 빠진 그곳에서 바늘과 같은 작은 한개의 침이 나왔다. 조장의 손에서 그 침을 받아쥔 한 조원이 그것을 확대경으로 비쳐보았다.

《조장동지, 이 침에 수자 〈8〉이 새겨져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암호같습니다.》

침을 관찰하던 조원이 신기한것이나 발견한것처럼 눈을 크게 뜨고 말하였다.

《조장동지, 〈은가락지〉 나비날개의 구멍에 수자 〈8〉이 새겨져있습니다.》

이번에는 나비의 날개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던 다른 한 동무가 말했다.

조장이 《가락지》를 받아들고 나비날개의 구멍들을 확대경으로 살펴보았다.

《좋소. 침을 이리 주오.》

침을 받아든 조장은 그 침을 《은가락지》 나비날개의 수자 《8》이 새겨진데다가 밀어넣고 눌렀다. 그러자 《가락지》의 나비가 둘로 갈라지면서 그속에서 《나비》가 또 나왔다.

《신기하오! 정말 신기하오!》

조장은 의문이 가득한 눈매로 지켜보는 조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조원들은 이제 조장이 무슨 결론을 내릴것인가 하고 그의 얼굴만 지켜보았다.

《해놓고보면 다 별게 아니요. 사람이 만든것이니까. 그렇지 않소?》

조원들은 조장의 말이 새삼스럽다는듯 서로 마주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조장이 확대경을 들고 나비를 한참 주의깊이 들여다보았다.

확대경에는 암호문으로 된 무수한 점들이 나타났다.

《자, 김동무, 이걸 제꺽 해득하오. 부장동지에게서 받은 시간이 30분밖에 남지 않았소.》

방안에는 침묵이 흘렀다.

조원들은 초조한 마음을 안고 김동무를 지켜보았다.

김동무는 나비를 들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그러는 그의 얼굴에 대번에 가느다란 웃음이 어리였다.

《조장동지, 이 점들은 〈황군〉첩보기관 고베지부훈련소에서 훈련받고나간 놈들만이 사용하는 비밀암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놈들이 사용한 《암호해득책》을 펼쳐들고 나비에 새겨진 점 하나하나를 대조해보았다.

《가리도시 앞. 〈무궁화〉망 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인계받았음. 〈부나비〉》

조장은 물론 조원들의 얼굴에는 희열과 함께 실망의 빛이 어리였다.

한가닥의 희망과 기대를 걸고있던 조장은 나비를 다시 확대경으로 비쳐보더니 실망의 빛이 어린 조원들의 얼굴을 살피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은가락지〉는 망명단을 정확히 인계하였다는것을 자기 상전에게 보여주기 위한 증거물인 부적이요. 일은 맹

랑하게 되였소. 임무는 성과적으로 끝냈지만…》

검증조장은 부장과 리철, 두성이가 방에 들어서는 바람에 말끝을 맺지 못하고 조원들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검증조원들을 자리에 앉힌 부장은 조장으로부터 《가락지》검증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다음 조용히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모두들, 실망했구만. …

동무들, 격정할건 하나도 없소. 시간문제지… 우리는 〈무궁화〉망이라는 하나의 망을 알아냈으며 이 망을 타승할 새로운 작전을 세울수 있게 되였소. 이것은 우리 사업에서 전진이요. 우리는 이 〈무궁화〉망을 인계받은자가 어떤 놈이라는것을 짐작하고있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할수 있게 된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요. 자, 웃으시오.》

부장의 석쉼한 목소리는 조원들의 가슴에 격정의 파문을 일으켰다.

《가락지》를 본 위치에 가져다둘 임무를 받은 리철은 검증조원들의 방에서 나와 거리를 걸으면서 착잡한 생각에 잠겼다.

(양대가리를 뒤집어쓴 조녕월, 교활한 원쑤!)

《40대녀인》으로 변장하고 공원에 나타나 《까나리》와 접선한 년, 그년이 지금까지 《범나비》라는 대호로 《무궁화》망의 망책으로 있다가 새로운 망책 《부나비》에게 망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넘겨주었다. 그리고 《금가락지》를 정확히 인계하여 주었다는 표식으로서의 부적인 《은가락지》를 가지고 자기 상전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꾀를 쓰고있는 년, 경숙이가 보았다는 《가락지》는 망명단이 들어있는 그 《금가락지》였을것이다. 그래서

그 녀자는 희생물이 된것이다. 그러면 망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인계받은 《부나비》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데 있을가?…

리철은 약속된 지점에서 약속한 시간에 홍기와 만나 그에게 《은가락지》를 넘겨주었다. 이제 홍기는 녕월로친몰래 집에 있는 약탕관속에 《은가락지》를 본래대로 집어넣을것이다.

뜻밖의 사고

쉬임없이 방안을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부장은 전투가 끝나가고있는것이 아니라 시작되고있다는것을 느꼈다.

부장은 《무궁화》망은 움직이지 않고 깊숙이 잠복하여 《지구전》을 하고있던 왜놈첩보기관의 망이라고 추리했다. 그것은 《무궁화》라는 망의 이름이 일제가 조선을 강점하고있던 때에 많이 쓰던 꽃이름이며 또 《은가락지》에 부장이 이미 전쟁전에 한 자수간첩놈에게서 알아낸 왜놈첩보장교 가리도시란 이름이 박혀져있기때문이였다. 그런데 지금까지 잠복하고있던 이 망이 최근에 와서 망책교체놀음을 벌리는것과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것이라고 생각되였다.

(적극적인 정보수집 아니면 주요대상물 폭파와 같은 위험한 장난을 벌리려는게 아닌가?…)

어쨌지 리철이가 몹시 기다려졌다.

(리철의 말에 의하면 《까나리》가 해수욕장 소나무숲속으로 갈 때 무엇인가 들고갔는데 돌아나올 땐 빈손이였다고 하지 않았는가. 대신 빈손으로 갔던 《40대녀인》은 무슨 물건인지 들고나왔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무엇일가? 혹시 놈들이 말하는 시한탄같은 《특수기재》가 아닐가?)

《똑똑…》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두성대위가 들어왔다.

《부장동지, 검증조동무들이 〈까나리〉놈의 수첩갈피에서 발견한 손바닥만한 구룡폭포전경화를 검증하였습니다. 시약을 작용시켰더니 이런 지령문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봅시다.》

자기 의자에 가서 앉은 부장은 두성이더러 책상 맞은켠 의자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부장의 앞에 다가온 두성은 그냥 선자세에서 책상우에 종이장 한장을 꺼내놓았다.

부장은 그것을 가까이 당겨다놓고 들여다보았다.

종이장우에는 다음과 같은 지령문이 활자로 박혀져있었다.

지령문

《흰》망의 망책으로 임명된 《도마뱀》에게 다음과 같이 지령한다.

첫째, 《무궁화》망의 망책 《부나비》와 접선하고 망을

합치자는 의견을 다시 제기할것. 망을 합치는데 동의하면 망책임무를 수행할것.

둘째, 망을 합치는데 동의하지 않으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무궁화》망의 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탈취할것.

셋째, 망을 합쳐 망책임무를 수행하게 되거나 《금가락지》를 탈취하게 되면 스트렙토미찡병에 바퀴 세마리(그중 암컷 한마리 , 수컷 두마리)를 잡아 넣고 그것을 ××해안 쌍바위의 약속된 장소에 가져다 넣을것.

나의 지령을 성과적으로 수행할 때에는 홍콩은행의 구좌에 50만딸라를 더 넣어준다.

만약 나의 지령을 거역하거나 지령내용을 로출시키는 경우에는 해당한 대책을 취한다.

1967년 ×월 ×일

패스맨(수표있음)

지령내용을 다 읽은 부장은 심중한 표정을 짓고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음, 〈흰〉망에 〈도마뱀〉이라… 〈도마뱀〉을 망책으로 임명했단 말이지? 지금까지 고심끝에 〈무궁화〉망이라는 하나의 망을 알아냈는데 엎친데 덮친다구 〈흰〉망이라는 하나의 망이 또 나타나다니… 그런데 또 뭐 망을 합치자구?…》

부장은 뒤짐을 지고 방안을 거닐었다. 그러면서 혼자소리처럼 또 이렇게 말했다.

《〈무궁화〉망은 가리도시가 조종하는 왜놈첩보기관의 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흰〉망은?… 미제의 패스맨

이란 놈이 조종하는 망이 아니겠는가.

그러고보면 두 첩보괴수들은 사상적으로 결탁했어. 그러나 리해관계측면에서는 아직 차이가 있는것 같소. 그렇지 않으면 왜 패스맨이 〈도마뱀〉을 시켜 〈무궁화〉망과 〈흰〉망의 활동을 추동하면서 망책자리를 타고앉으라고 하며 응하지 않으면 망의 생명이라고 할수 있는 망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까지 탈취하라고 하겠는가. 아니면 패스맨이 〈무궁화〉망을 넘겨다보는것으로 봐서 그 망이 기대되는 믿음직한 망이거나 제놈의 〈흰〉망이 보잘것 없거나 거덜이 난 모양이다. 차라리 잘됐지. 우리는 놈들의 이런 약점을 리용해야 한다.》

부장은 무슨 새로운 작전이 무르익어가는지 불꽃이 이는듯한 눈길로 두성이를 쳐다보았다.

부장의 말을 새겨들으며 서있던 두성이 《젠장》하면서 서두를 뗐다.

《의식을 회복한 〈까나리〉란 놈이 묻는 말에 겨우 답변하는 정도이지만 몇가지 물어보았는데 〈흰〉망과 〈도마뱀〉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장산군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성은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부장앞에 창과 칼이 《×》형으로 새겨진 노란 구리단추를 하나 꺼내놓으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구리단추는 무엇인가고 물었는데 〈까나리〉는 〈도마뱀〉이 망책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구리단추와 지령문을 〈도마뱀〉에게 전달할 임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도마뱀〉이 장산군 어디에서 사는지 아는

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까나리〉는 모른다고 합니다. 암호쪽지로 〈도마뱀〉을 호출하게 되여있는데 상면시간과 나누게 될 암호에 대해서는 아직 불지 않았습니다.》

《수고했소. 그다음 더 알아낸것은 없소?》

《〈범나비〉에 대해 물었는데 〈까나리〉는 그가 〈40대의 녀인〉이라고 하면서 아주 교활한 년같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까나리〉는 〈범나비〉에게 원포조선소와 통신기계공장을 폭파할데 대한 패스맨의 지령을 전달하면서 〈특수기재〉를 넘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나비〉에게도 그런 〈특수기재〉를 전달하였다고 합니다.》

《글쎄, 내 추측이 맞았지. 그리고 또 있소?》

《또 있습니다. 나는 혹시 〈도마뱀〉을 통해서 〈부나비〉를 알아내고 그와 상면할수 있지 않겠나 하여 〈도마뱀〉이 〈부나비〉와 어떻게 상면하라고 패스맨이 대준것이 없는가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부나비〉는 직접 만나지 못하고 〈범나비〉를 통해서만 만나게 되여있답니다.》

《〈범나비〉를 만난 다음 또 그 구새먹은 나무를 리용한다는거겠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젠 그 구새먹은 나무는 쓸모없게 되였소. 〈까나리〉가 잡힌것으로 해서 〈부나비〉는 다시는 구새먹은 나무를 리용하지 않을거요. 그다음 또 있소?…》

《예, 패스맨 몰래 가리도시가 비밀리에 준 지령이라고 합니다. 패스맨은 〈도마뱀〉에게 〈부나비〉를 만나 망합동놀음을 제기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리도

시란 놈은 〈까나리〉에게 〈부나비〉를 만나면 망합동을 제기하는 〈도마뱀〉의 요구에 겉으로만 응하는체 하라는 지령을 전달하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지령을 전달하지 못했답니다.》

《보시오. 내 추측이 맞지 않는가. 놈들은 사상적으로는 결탁했지만 리해관계측면에서는 결탁하지 못했단말이요. 오늘은 〈까나리〉란 놈이 그 비밀지령을 전달 못했지만 래일은 또 가리도시란 놈이 무전이나 다른 경로로 그런 지령을 떨굴수 있소. 때문에 추측이지만 망합동놀음은 순조롭게 되지 않을거요. 이 문제는 두고봅시다. 그리고 또 알아낸것이 없소?》

《그 외에 더 알아낸것이 없습니다.》

《음, 비교적 잘 불어댔군. 죽자고 했던 놈이 살아나니 죽음이라는게 무서웠던 모양이지?》

이러면서 의자에서 일어선 부장은 깊은 생각에 잠겨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뚜거덕뚜거덕 발자국소리를 내면서 방안을 거닐던 부장이 창문을 등지고 서서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장산군안전부에 〈흰〉망과 〈도마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소. 알아보고 우리 사람이 〈까나리〉대신 〈도마뱀〉과 접선하는게 좋겠소. 그다음 풀어나갑시다. 그리고 놈들이 원포조선소와 통신기계공장폭파를 시도하고있는것만큼 경비를 강화하도록 알려주어야 하겠소.》

잠시 말없이 돌아서서 창문밖을 내다보던 부장이 천천히 방안을 거닐면서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패스맨놈이 〈무궁화〉망 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탈취하려고 하는것만큼 선손을 쓰지 않다간 일이

맹랑하게 될수 있겠소.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하겠소. 수를 써야 하겠단 말이요. 그런데 〈금가락지〉를 넘겨받았다는 〈부나비〉는 과연 누구인지… 만약 칠녀가 〈부나비〉가 아니겠는지. 빨리 타진해봐야겠는데 리철동문 왜 나타나지 않소?… 두성동무, 나가서 리철동무의 행처를 알아보시오. 나타나면 곧장 여기로 보내시오.》

《알았습니다.》

두성이 차렷자세를 취했다가 돌아섰다.

두성이 열고나간 문을 지켜보고 서있던 부장이 깊은 생각에 잠겨 또 방안을 조용히 거닐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문두드리는 소리에 정신을 가다듬은 부장이 출입문쪽을 향하여 돌아섰다.

리철이가 들어왔다.

부장은 여느때없이 눈이 푹 꺼지고 입이 한일자로 꾹 다물린 리철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말했다.

《리철동무, 마침 보구싶었는데 찾아왔구만. 그런데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군. 몹시 수척했구만. 저기 쏘파에 가앉아 한시간쯤 좀 눈을 붙이지.》

부장은 쏘파를 가리켰다.

리철은 전번 모임때 호되게 꾸짖은 부장이 오늘 조용히 앉아 풀어주려고 하는것이 아닌가고 생각하면서 쏘파에 가앉았다.

부장도 보통의자를 창문가에 가져다놓고 앉았다. 그런 다음 리철의 얼굴을 다시금 들여다보았다.

(수태 얼굴이 축갔어…)

리철은 푹신한 쏘파에 앉으니 저도모르게 마음이 편안해

지며 긴장해졌던 몸이 풀리였다. 부장의 말처럼 한잠만 자고나면 몸이 거뜬해지고 날아갈것 같았다. 사실 리철은 《까나리》를 추적하기전에 부장이 푹 쉬라고 할 때 며칠 쉬여본 다음부터 오늘까지 어느 하루도 잠자리에 편히 든적이 없었다. 지난밤에도 그는 칠녀가 한밤중에 어디로 쏘다니지 않겠나 하여 감시하다나니 눈 한번 제대로 붙이지 못했던것이다.

부장이 선풍기바람이 리철이쪽에 가도록 돌려놓고 발끝걸음으로 조용히 자기 방에서 걸어나갔다.

리철이가 쏘파에 앉기 바쁘게 잠이 들었던것이다.

선풍기날개가 돌아가는 고르로운 음향이 울리는 방안에 마치 그것을 돌려주는 기계의 동음이런듯 리철이 코고는 소리가 또한 가락맞게 울리였다.

그러던 리철이 무엇에 놀란 사람처럼 후닥닥 쏘파에서 솟구치듯 일어섰다.

정신을 가다듬은 리철은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부장이 보이지 않았다.

리철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겨우 15분이란 시간밖에 흘러가지 않았다. 하지만 몸은 얼마나 거뜬한지 몰랐다.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다가간 리철이 송수화기를 들고 돌리개를 돌렸다.

《직일관실입니까?… 거기 부장동지가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상대방한테서 대답이 오기전에 출입문이 벌컥 열리였다.

리철이 송수화기를 잡은채 그쪽에 몸을 돌리고 굳어진듯 서있었다.

《벌써 일어났소?》

부장은 복도를 거닐다가 말소리를 듣고 들어왔던것이다.

리철은 송수화기를 놓고 부장앞에 다가섰다.

《부장동지, 칠녀의 행동에서는 아직 별다른 기미를 찾아볼수 없습니다.》

부장은 창문가에 놓여있는 나무의자에 가앉으며 담배를 입에 물고 성냥을 그어댔다.

《오늘도 물자를 인수하려는 나갔드랬겠지?》

《예, 그런데 연평식료공장에서 파철을 주어실은 칠녀가 그것을 룡수동위탁수매소에 가서 방금 수매하고 자기네 식료공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요?!》

리철은 갑자기 어리벙벙해졌다.

《…경수동무가 지금 어데 가있을가? 경수동무를 찾아야겠소.》

부장은 자동무선기가 있는쪽으로 걸어갔다.

이때 전화종소리가 갑자기 무겁게 드리운 방안의 공기를 째며 울렸다.

부장이 송수화기를 잡고 귀에 가져갔다.

《부장입니다.》

부장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상대방의 말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도란도란 울려나왔다. 경수상위의 목소리였다.

《그래 현장은 어떻게 처리하였소?… 곧 와서 상세하게 보고하시오.》

송수화기를 놓은 부장이 리철의 얼굴을 지켜보며 분기가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놈들이 선손을 썼소.》

리철은 오리무중에 빠진 기분이였다.

《위탁수매소 녕월의 집에서 사고가 났소. 파철더미에서 폭발사고가 났소. 파철더미를 정돈하던 녕월로친이…》

리철은 가슴이 철렁하였다.

부장은 팔짱을 끼고 뚜벅뚜벅 발자국소리를 내며 방안을 거닐뿐 더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리철의 마음은 좁은 울타리속에 갇혀있는것마냥 갑갑하고 어깨는 무거운 짐에 눌리우듯 뻐근해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경수가 부장의 방에 조용히 들어섰다.

출입문소리가 나자 그쪽으로 몸을 돌린 부장이 경수가 보고를 하기전에 다우쳐 물었다.

《그래, 다친 사람은 녕월로친 하나뿐이요?》

《그렇습니다. 중상입니다.》

《병원에 실어보냈다지?》

《예.》

《생명은 위급한것 같지 않소?》

《병원에 가봐야 알것 같습니다.》

《정말 뜻밖이요.》

부장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면서 목안으로 잦아들었다.

방안분위기는 어수선하였다.

깊은 상념에 잠겨 서있는 부장의 뒤모습을 지켜보는 리철이와 경수의 생각은 여느때없이 무거웠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락심천만한 기색이 어린 경수가 마치 사고를 제가 치르기나 한것처럼 방안의 무거운 공기를 흐트러놓았다.

《녕월로친네 집 파고철이래야 작은 쇠덩이가 아니면

선반기에서 나온 쇠밥들인데…》

창문가에서 조용히 돌아선 부장이 경수의 말을 중동무이하고 결연한 어조로 말했다.

《이제는 그런걸 따질 때가 못되오. 이건 〈부나비〉의 작간이요. 〈까나리〉가 체포되였다는것을 알고있는 놈들은 그가 만약 죽지 않고 살았다면 가장 위험한 인물이 녕월로친이라고 보고 그를 없애버리려고 했던것이요. 칠녀가 하필 수매할 곳이 없어서 그 먼 연평식료공장에서 실은 파고철을 룡수동에 와서 수매하였겠소? 놈들은 그 파철속에 폭발물을 장약했던거요. 우리는 눈을 편히 뜨고도 사고를 막지 못했소.》

피로움에 모대기는 부장의 그 모양을 지켜보는 리철의 가슴도 쓰리고 알알해왔다.

(짐이 되는것보다 짐을 덜어주는 사람이 더 나은것이라고 생각한 내가 아니였던가. 그런데 나는 지금 부장의 등에 한근 두근 무거운 짐을 덧싣기만 하고있으니…)

리철은 부장의 그 시름을 덜어주지 못하는것이 못내 안타까왔다.

리철은 수심에 잠긴 경수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상위동지ㅡ》

조용히 속삭이는 리철의 손을 경수가 꽉 잡으며 말했다.

《녕월로친을 살필 임무를 받고있는 내가 미처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댔소. 책임은…》

리철은 전번모임때 있은 사실을 놓고 경수에게 사과한 다음부터 그를 선배로 존경하고 그에게서 많은것을 배울 결심을 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경수는 또 이번 사고의 책임을 제가 져야 한다면서 얼마나 겸손한 태도로 나오는

것인가. 그러는 경수를 대하는 리철은 머리가 수그러졌다.
경수와 리철이를 향해 부장은 돌아서면서 석쉼한 목소리로 말했다.
《녕월로친이 숨지면 다요. 어떤 일이 있어도 녕월로친을 살려내여 그년에게서 마지막 비밀까지 뽑아내야 하오.》

고 백

녕월은 다리와 얼굴을 심하게 다쳤을뿐아니라 복부에 박힌 파편이 생명을 위협하고있었다.
부장이 병원에 갔을 때 녕월에 대한 수술이 거의 끝나가고있었다.
위생복을 어깨에 걸치고 수술장에 들어선 부장은 수술도구를 날렵하게 움직이고있는 준박사인 기술부원장의 손을 주의깊이 들여다보았다.
생명이 경각에 다달은 녕월에 대한 수술이 중요하다는것을 통보받은 기술부원장은 한명의 녀준의를 데리고 직접 수술칼을 들었던것이다.
수술장면을 지켜보는 부장의 생각은 복잡하였다.
만약 녕월이 살아서 다시 나간다면 《부나비》가 살려두겠는가?
부장은 수술도구를 섬기는 녀준의의 날랜 손동작에 눈을 팔면서도 여러가지 생각을 이어나갔다.
드디여 수술이 끝났다.

녕월은 입원실로 밀차에 실리여갔다.

고무장갑을 벗고 소독수에 손을 씻은 기술부원장은 부장 앞에 천천히 다가섰다.

부장은 석쉼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미안합니다.》

《별말씀을… 결과가 좋아야 하겠는데요. …》

《그래, 어떻습니까? 지금상태에서는…》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놔서… 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수혈을 했으니 위태로운 형편은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며칠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부장은 기술부원장과 인사를 나누고 병원을 나섰다.

1주일 지난 후부터 녕월은 죽도 먹고 원기도 좀 회복하였다.

부장은 7일만에 다시 녕월을 찾아갔다.

부장이 방에 들어섰을 때 녕월은 창백하던 얼굴이 삶은 수수떡같이 벌개서 일어나앉으려고 안깐힘을 썼다.

그러던 녕월은 베개를 등에 고이고 비스듬히 누웠다.

그리고 모주먹은 돼지눈깔을 해가지고 부장을 쳐다보았다.

꽃병이 놓여있는 원탁을 마주하여 의자에 앉은 부장이 석쉼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이 당신의 물건이요?》

부장은 녕월의 집에서 다시 가지고온 《은가락지》를 원탁우에 내놓았다.

이것을 지켜보는 녕월의 눈은 쥐를 노리는 고양이처럼 달아올랐다. 조금만 더 격해지면 아픔도 무엇도 다 잊고 침대에서 뛰여내려 와락 덮칠 기세였다.

그러나 인차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초췌한 눈을 내리

깔고 나른하게 몸의 긴장을 풀었다.
《왜 대답이 없소?》
부장은 단호하게 말했다.
순간 녕월은 숨이 꺽 멎는감을 느꼈다. 애비가 경영하던 광산과 기름진 벌 그리고 호화별장이 눈앞에 언뜻 안겨왔다 사라졌다. 이어 가리도시가 가슴사무치게 그리워졌다. 가리도시의 품에 저것이 없이는 나타날수도 없거니와 순간도 생명을 유지할수 없었다. 숨이 붙어있는 이상 《가락지》를 내놓으면 안된다. 《가락지》안에 들어있는 비밀을 알아내지 못한 이들에게 순종할수 없다.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다면 저 《가락지》를 순수 귀중품으로 알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도로 내것이 될수 있지 않는가. 상처가 다 아문 다음 퇴원하여 무역항에 들어온 상선에 몸을 실을수도 있고…
엉뚱한 생각을 요리조리 굴려보던 녕월이 볼멘 소리로 말했다.
《내것이 맞아요.》
녕월은 앙상한 손을 내뻗쳐 원탁우의 《가락지》를 그러쥐였다. 그리고 활랑거리는 가슴에 그러안았다.
부장은 격해지는 마음을 눅잦히며 엄하게 말했다.
《잔꾀를 부리지 마시오. 〈범나비〉!》
《〈범나비〉!…》
《그렇소. 한월매!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조녕월로 가장한 〈범나비〉!》
조녕월의 본래이름은 한월매였으며 재령군에서 원포시로 거주지를 이동한 그는 폭격에 공민증을 잃었다는것을 구실로 공민증을 새로 낼 때 이름을 고치였던것이다. 그리고

남편을 놈들의 폭격에 잃은것으로 신분을 속였던것이다.

이 자료는 재령군안전부에 갔던 경수상위가 가져온것이였다.

녕월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부장을 쳐다보며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난… 난…》

《그러면 가리도시도 모르겠소?》

《몰라요, 몰라요, 가리도시… 가리도시… 난 몰라요.》

《가리도시가 당신을 죽이려한것도 모르겠구만…》

이건 녕월이를 타진하기 위해 부장이 꾸며낸 말이였다.

《가리도시가 나를 죽이려고 하다니요. … 아…》

녕월은 망연자실하여 부장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당신의 상전 가리도시는 이미 당신을 배반했소. 쓸모없게 된 망책 〈범나비〉를 파철더미와 함께 저승에 보내려한것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소. 그런데 당신은 그의 품에 기여들 허황한 꿈을 꾸고있소.》

《아니예요. 아니예요. 그럴수 없어요.》

《정말 어리석소. 가리도시는 바로 당신이 〈무궁화〉망의 명단을 넘겨준 딸 〈부나비〉를 시켜서 당신을 죽이려고 했소.》

녕월은 이 말을 믿었으며 모든것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했다.

(아, 그렇다면, 그렇다면…)

녕월의 머리속에서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부장은 녕월의 마음속을 틀어쥔 이상 고삐를 바싹 잡아당기였다.

《녕월이! 너는 경숙이를 독살한 극악한 살인귀다! 너는 경숙이한테 독약을 조금씩 섞여먹였기때문에 누구도 모르리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큰 오산이다!》

부장의 추상같은 목소리에 넋이 나간 녕월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몸을 부들부들 떨더니 한순간이 지나자 제법 침착한 목소리로 마주 대들었다.

《흥, 그것은 모해예요. 병원에서는 경숙이가 만성간염에 걸려 앓았다는것을 과학적으로 진단했어요.》

《그렇다. 간염으로 앓게 된것은 그 독약때문이였다.》

《혼자 산다고 업수이 보고 안전기관의 권위를 가지고 마구 죄를 들씌우려 하는데 나는 정말 참을수 없어요. 으흑, 으흐흑…》

녕월은 침대우에 엎디여 몸부림까지 쳐가며 슬피 우는체하였다.

부장은 그 꼴이 보기 역겨웠던지 주머니에서 웬 종이장을 꺼내들며 호령하듯 말하였다.

《서툰 연극은 싹 걷어치워! 이 종이가 뭔지 아는가. 경숙이에 대한 감정조서요.

당신은 〈무궁화〉망 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가 경숙의 눈에 띄게 되자 그를 죽이면 만사가 태평하리라 생각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 당신은 〈금가락지〉를 정확히 넘겨주었다는것을 확인하는 부적 〈은가락지〉를 가지고 상전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였지만 오히려 경숙이신세가 될번하지 않았는가…》

《열백번 죽어도 나는 청백해요. …》

녕월은 입귀를 실룩거리였다.

《망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넘겨준 당신의 딸

칠녀가 〈부나비〉겠소?》
녕월은 으드득 이를 갈며 악의에 가득차 몸부림쳤다.
《몰라요. 망명단이구, 〈금가락지〉구, 칠녀구 난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당신은 해수욕장 소나무숲속에서 만났던 〈까나리〉도 모르겠구만…》
부장이 오른손을 어깨우로 올렸다.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까나리》를 앞세운 경수가 호실에 들어왔다.
《저자를 모르는가?》
부장이 녕월의 얼굴을 뚫어지듯 쏘아보았다.
녕월은 상판을 찌그리고 《까나리》를 쳐다보았다.
《몰라요.》
《〈까나리〉, 넌 이 〈범나비〉를 모르는가?》
《까나리》는 엉거주춤해서 피기없는 얼굴을 들고 녕월이를 한참 지켜보았다. 그러더니 시들은 입술에 소심한 웃음을 띠였다.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난 〈범나비〉는… 젊었습지요.》
《까나리》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녕월이 경망스럽게 웃었다.
이때 경수가 부장의 앞에 리철이 《40대녀인》으로 변장한 녕월로친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찍은 사진과 함께 가발을 내놓았다.
부장은 사진과 가발을 녕월의 앞에 내밀었다.
사진을 들여다보던 녕월이 퉁방울눈을 해가지고 가발을 넘겨다보았다.
부장이 사진과 가발을 경수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을 경수가 《까나리》앞에 가져다보였다.

《맞습니다.》

《그럼 이 〈특수기재〉는?》

《예, 내가 저 로친에게 주었습지요.》

부장이 오른손을 약간 들었다놓았다.

경수가 《까나리》를 데리고 호실에서 나갔다.

솟아날 구멍을 찾는지 아니면 괴로운 마음을 달래이는지 머리를 푹 수그린 녕월이 죽은듯이 앉아있었다.

부장도 잠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방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절망상태에 빠진 녕월은 원성을 터뜨리고싶었다.

(모든걸 다 알고있구나. 칠녀가 내 딸이란 말을 저 《까나리》란 놈이 한 모양이구나. …)

녕월이 힐끔 부장을 쳐다보았다.

순간 부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진 한장을 내밀며 물었다.

《이게 당신의 딸 칠녀가 맞는가?》

사진을 들여다보던 녕월의 눈이 사발통만 해졌다.

(아, 이놈들이 사진까지? 벌써 잡혔는가?)

《왜 대답이 없는가?》

부장의 싸늘한 눈길에서 빠지려고 모지름을 쓰던 녕월이 이죽거렸다.

《내 딸은…》

녕월은 긴 한숨을 내쉬며 안절부절 못하였다. 그러다가 이지러진 흉측한 얼굴을 해가지고 부장을 쳐다보았다.

《쳐다만 보지 말고 어서 말하시오. 칠녀는 어덴가 가리도시와 비슷한데가 있는데…》

부장은 오른손가락으로 원탁을 다독이며 야유조로 말했다.

녕월은 올가미에 목을 조이는듯 했다. 숨이 컥컥 막혔다.

(아, 모든걸 죄다 알고있구나. …)

수수떡같이 얼굴이 벌개진 녕월이 얼이 나가서 한참 부장을 쳐다보다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일본이 망할 때 가리도시가 그애를 데리고 건너갔댔지요. 그런데 몇달전에 그가 불의에 나타났어요. 자기 이름은 칠녀인데 옛날 〈도미꼬〉라고 하면서 이 〈가락지〉를 나에게 주었지요. 이 〈가락지〉를 가지고오는 사람은 가리도시가 보내는 사람으로 인정하게 되여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리도시의 말을 전하면서 내가 가지고있던 〈금가락지〉를 인계하고 어서 떠나라고 하였지요.》

정신없이 주어대던 녕월은 갑자기 눈알을 꼿꼿이 세운채 부장을 쳐다보더니 맥빠진 어조로 다시 중얼거렸다.

《창문을 좀 열어주겠습니까?》

녕월이 창문쪽에 눈길을 던졌다.

창문을 열고 돌아선 부장은 녕월이가 허탈상태에 빠졌다는것을 직감하고 천천히 방안을 거닐었다.

녕월은 베개에 머리를 틀어박고 한참 죽은듯이 까딱 않고있었다. 그러던 녕월이 벌떡 일어나앉으며 항거하듯 줴쳤다.

《나를 죽여주시오. …》

《천만에! 아직은 죽을 몸이 아니요. 대답해야 할 말이 많소!》

《아무것도 말할수 없어요. 아무렇게나 처리하세요. …》

녕월은 침대에다 헝클어진 머리를 쿡 박았다.

부장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장 녕월의 입

에서 비밀을 뽑아내고싶었지만 아직은 그에게 시간적여유를 주는것이 필요했다.

그는 입원실에서 나왔다.

녕월에 대한 심문은 이틀이 지나서 다시 있었다.

해도 설핏해진 석양녘이였다.

그새 녕월의 얼굴은 한층 축가서 십여년이나 더 늙어진듯 싶었다.

부장은 어성도 높이지 않고 녕월의 속심을 뽑아내는데로 말머리를 떼놓군 하였다.

그는 몇마디의 심문을 통해서 많은것을 알아내였다.

《금가락지》는 분명 칠녀에게 넘겨주었으며 경숙이를 벼랑바위에서 떨어뜨려 죽인것은 칠녀라는것 그리고 가리도시뿐아니라 패스맨도 녕월의 상전이라는것 등 이날 부장이 알아낸것은 실로 많은 문제들이였다.

심문을 끝낸 부장은 자기 방에 와서 담배를 연거퍼 두대씩이나 피웠다. 마음이 후련했다. 풀어야 할 문제점이 뚜렷해졌다. 그런데 녕월이 자기 딸이라는 칠녀가 어데서 사는지 진정 모를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무슨 수수께끼가 있는것이 아닌가?

부장은 창가림보를 제끼고 창문을 활 열었다.

바깥은 먹물을 풀어놓은듯 캄캄하였다.

부장은 목단추를 풀어놓으며 바람에 펄럭이는 창가림보를 슬그머니 잡았다.

(그래그래, 교활한 놈들이지…)

그는 중얼거리고나서 주머니에서 담배곽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담배곽은 텅 비여있었다. 그만큼 사색을 짜냈던것이다.

전투는 계속된다

부장은 자기 방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여기에는 리철소위와 두성대위, 경수상위와 인하중위가 참가하였다.

부장은 녕월을 여러차례 심문하는 과정에 확증한 자료들에 대하여 아래성원들에게 알려주고 새로운 대책을 토의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하였던것이다.

《간단히 이야기합시다.

녕월은 대광산주의 딸로서 해방전에 〈황군〉첩보기관 고베지부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은 다음 1941년에 조선에 건너와 조선주둔 일본경무총감앞에서 충성을 맹세하였소. 그후 심양에 간 이년은 지금 자기의 상전인 가리도시의 졸개로 되였소. 가리도시는 녕월의 남편이라고 말할수 있으며 일명 녕월을 가리도시의 노리개라고도 말할수 있소.

가리도시의 수하에서 말하자면 〈황군〉첩보계의 자체방위부에서 접대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밀정노릇을 하였소. 그러다가 일본이 망하기전에 가리도시가 녕월에게서 도미꼬라는 계집애 하나를 보게 되였소.

일본이 망한 다음 가리도시는 3살난 도미꼬라는 계집애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소. 그리고 〈무궁화〉망의 명단이 든 〈금가락지〉를 녕월에게 주었소. 그러면서 녕월을 이 망의 망책으로 임명하였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문

제로 되는것은 그 〈금가락지〉가 〈범나비〉 녕월한테서 〈부나비〉에게로 넘어간것이요.

칠녀, 아직 결론내리기는 이르지만 이년이 도미꼬인지? 도미꼬라면 이년이 〈부나비〉가 아닌가 싶소.》

그러면서 부장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950년 일시적, 전략적후퇴시기였다. 재령군에 기여든 미제침략자들은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마구 잡아들이여 고문, 학살하였다.

이것을 보고 그 누구보다도 깨고소하게 생각하고있은것은 녕월이였다. 이년은 자기 집 웃방에 들이박히여 상전을 바꿀것인가 아니면 가리도시의 지령이 있기전까지 죽은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하는 복잡한 생각에 머리를 앓고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녕월은 뜻밖에도 가리도시를 만났다.

녕월은 두 첩보괴수인 패스맨과 가리도시가 마련한 연회에 초청되였다.

화려한 옷차림에 향수까지 진하게 친 녕월은 패스맨과 가리도시가 도사리고있는 뒤골방에 나타났다.

《오셨군요.》

녕월은 몸을 비틀면서 일본말로 종알댔다.

《월매, 보고싶었소.》

녕월의 손을 덥석 잡은 가리도시는 굶주린 승냥이마냥 헉헉 하면서 진한 화장을 한 년의 상판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그러면서 지껄였다.

《인사하시오. 나의 친구요. 패스맨이라고 부르오.》

《기다렸습니다.》

녕월은 머리를 갑삭거렸다.

《오우, 나 가리도시와 월매씨의 상봉을 축하합니다.》

녕월의 손등에 입을 맞춘 패스맨은 년의 손을 잡아끌며 연회상앞에 데려다 세웠다.

《상봉을 축하해서 자, 듭시다.》

패스맨이 술잔을 쳐들었다. 이어 가리도시와 녕월이 애절한 눈길로 마주보며 잔을 들었다.

《4년만이예요. 이젠 우리 세상이…》

녕월이 실눈을 지으며 예전과 다름없이 가리도시를 유혹하였다.

《아직 그렇게는… 월매, 나의 출현은 비밀에 붙여야 하오. 우리 일본인이 조선전쟁에 개입한것은 비밀이요.》

가리도시가 패스맨을 힐끔 곁눈질했다.

《월매씨, 이 땅의 주인은 우리 미군이요. 그러나 우리는 미스터 가리도시와 월매씨를 도와줄것이요.》

녕월은 미군이 쏘련과 같이 제2차세계대전의 《승전》국이며 그 힘은 《강대》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녕월은 여생을 호화롭게 보내기 위해 이 기회에 패스맨을 유혹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두눈가녁이 발그레해진 녕월은 패스맨의 우멍눈을 지켜보며 그의 손등에 자기의 손을 조용히 얹어놓았다.

녕월의 따스한 온기를 느낀 패스맨은 그를 넌지시 넘겨다보며 말했다.

《월매씨, 상해의 고급료정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생각나구말구요. 나는 상해에서 살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녕월은 간사하게 웃으며 패스맨의 손을 꼭 잡았다.

《춤출 의향은 없습니까?》

패스맨은 일어나서 레코트판의 스위치를 돌렸다. 음침한 방안에 동물적인 흥분을 자아내는 괴상망측한 음악선률이 어지럽게 흘러나왔다. 이어 천정의 불이 하나, 둘 꺼지고 촉수낮은 뻘건 불이 방안의 네귀에서 켜졌다.

《미스터 가리도시, 실례하겠습니다.》

패스맨이 가리도시에게 고개를 접석이면서 량해를 구하고 녕월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녕월은 반라체의 몸뚱아리로 패스맨의 코앞에 다가섰다. 그리고 왼쪽손을 놈의 어깨에 실었다.

패스맨은 털이 부르르한 오른팔을 내밀어 녕월의 벌건 허리를 꽉 그러안았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경망스런 쟈즈곡의 음절에 발장단을 맞추어 정신없이 돌아가는 녕월의 하반신은 뻐근해왔다. 지쳤다.

연회가 끝난 후 가리도시의 품에 안긴 녕월은 온밤 그의 침대우에서 시달림을 받으며 뜬눈으로 새날을 맞았다.

그러던 어느날 놈들은 눈앞이 뒤집힐듯 놀랐다.

우리 인민군대의 재진격이 개시되였던것이다.

장산군의 《흰》망이 있는 곳에 갔던 패스맨이 가리도시의 요청을 받고 부랴부랴 돌아왔다.

가리도시는 자기의 《무궁화》망의 장래를 위해 패스맨의 방조를 요구했다.

그리하여 패스맨과 가리도시는 녕월의 신분을 가장하여 그를 북조선에 남겨두기 위한 공작에 착수했다.

패스맨과 가리도시는 어느날 왜정때 영천군에 살고있던 황지주의 손녀들인 3살난 경옥이와 5살난 경숙이를 녕월에게 안겨주면서 이애들의 애비, 에미는 며칠전 폭격

에 죽었다고 하였다.

녕월은 의아한 눈길로 가리도시를 쳐다보았다.

《월매, 이제부터 이애들은 당신의 딸들이요. 이애들을 데리고 원포시로 자리를 옮기시오. 이제 당장 떠나시오. 거기 가서 폭격에 모든것을 다 잃었다고 하면서 공민증을 새로 내시오. 그때 남편도 폭격에 잃었다고 하면서 이름을 적당히 대시오. …》…

《이렇게 되여 재령읍을 떠난 조녕월년은 송월리 어느 마을에서 두 딸을 남기고 놈들의 폭격에 죽은 최칠보와 조녕월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을 알아내가지고 그들의 신분으로 지금까지 자기를 속여왔소. 녕월년은 그때부터 두 상전을 섬기게 되였소.》

잠시 좌중을 둘러보던 부장이 말을 이었다.

《여기에 우리의 주목을 끄는 한가지 문제가 있소. 그것은 패스맨에 대한 문제요. 장산군안전부에 알아본데 의하면 이놈은 해방전에 조선침략의 척후병으로 원포시의 재등에 교회당을 지어놓고 〈자선〉과 〈박애〉를 부르짖으며 정탐활동을 벌린 악질선교사였소. 이놈은 한때 장산군에 〈흰〉망을 꾸려놓고 조종하드랬는데 망했소. 그곳 반탐일군들이 그 〈흰〉망의 망원들을 전후에 모두 들어냈소. 그리하여 미첩보계에서 명성을 떨치려고 하던 패스맨의 신세는 개밥에 도토리격이 되였소. 악에 받친 패스맨은 가리도시의 〈무궁화〉망을 넘겨다보기 시작했소. 장산군안전부에서 혹시 다른 놈들이 또 있지 않겠는가, 있다면 련계를 가지지 않겠는가 하여 〈도마뱀〉이라는 별호를 가진 한놈을 살려두었는데 패스맨은 이놈을 움직여 가리도시의 〈무궁화〉망과 〈흰〉망을 합치려고 시도했소.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았던것 같소. 그것은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실현해보려는 가리도시가 자기 망을 호락호락 넘겨주려고 하지 않았던 사정과 관련된것 같소. 그러나 가리도시도 지금에 와서는 마음을 달리 먹은것 같소. 녕월의 말에 의하면 어느때건 지령이 있기전엔 움직이지 말고 깊숙이 잠복하고있으라고 하던 가리도시가 〈까나리〉를 들여보내고 그에게 〈특수기재〉를 들여보낸것을 봐서는 패스맨의 요구에 응한것 같다고 하였소. 뿐만아니라 녕월은 자기도 그렇거니와 〈부나비〉도 이젠 가리도시보다 남조선에서 주인행세를 하는 패스맨쪽에 더 기울어진다는것이였소. 하지만 녕월은 가리도시를 남편처럼 숭배해왔고 또 〈부나비〉는 가리도시의 피줄을 타고났기때문에 패스맨을 상전으로 섬긴다 해도 가리도시를 버리지 않을것이며 그를 구세주처럼 믿고있을것이요.

우리는 놈들의 이런 약점을 리용해보자는것이요.

이번에 패스맨이 〈흰〉망의 〈도마뱀〉을 망책으로 임명하면서 그에게 〈무궁화〉망과 〈흰〉망을 합동할데 대해 또 건의하도록 지령을 내렸소.

나는 패스맨이 〈도마뱀〉에게 내린 지령을 읽었을 때 〈흰〉망이 건재해있는줄 알고 우리 사람이 〈도마뱀〉과 접선한 다음 그 망도 일망타진할 생각을 하였드랬소. 그리고 우리 사람이 〈도마뱀〉으로 가장하여 〈부나비〉에게 접근하여 〈무궁화〉망도 들어내려고 했소. 그런데 〈흰〉망엔 〈도마뱀〉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으니 그놈과 접선하는 놀음은 큰 의의가 없을것 같소. …

나는 이렇게 결심하였소. 장산군안전부에서 살려두었다는 〈도마뱀〉이 작년에 죽고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별

호를 넘겨받았다고 하오. 그래서 리철동무를 〈도마뱀〉의 아들로 가장시켜 〈부나비〉에게 접근시키려고 하오.》

부장은 모두를 둘러보더니 책상빼람에서 한장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도마뱀》의 아들사진이였다.

모두가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한마디씩 했다.

《거 비슷한데…》

《너부죽한 얼굴이며 코와 입이 신통히도 같습니다.》

부장은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그래서 리철동무를 선정했소. 물론 〈부나비〉와의 싸움이 간고하고 치렬할것으로 예견되지만 능히 해내리라고 믿소.

리철동무, 반탐사업은 창조성을 요구하는 어려운 사업이요. 그러나 계급적원쑤가 어떤 놈들인지 잘 아는 리철동무는 이 사업을 주도면밀하게 처리해나갈수 있다고 보오. 어떻소? 자신심이 있소?》

《부장동지, 꼭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리철의 눈에서는 강철빛같은것이 번쩍거리였다.

《임무는 〈무궁화〉망의 망원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를 탈취하는것이요. 명심할것은 꼬리를 드러낸 간첩은 벌써 〈적〉이 아니라는 말이 있소. 칠녀가 망책 〈부나비〉인가 하는것을 확인한 다음에는 서둘러 그를 사로잡을 생각을 할것이 아니라 〈금가락지〉를 뽑아내기 위한 작전에로 넘어가야 하오. 그래야 우리는 〈무궁화〉망을 일망타진할수 있소. 말뜻을 알만하오?》

《알겠습니다.》

리철의 목소리는 야무지게 울리였다.

《좋소, 그러면 리철동무는 장산군에 가서 〈도마뱀〉에 대한 리력을 연구하고 오시오. 마지막으로 모든 동무들에게 상기시키겠소. 〈까나리〉와 녕월의 말에 의하면 무역항에 ××상선이 도착하게 되여있소. 녕월은 자기의 진술에서 상선으로 도주하게 되여있다고 했소. 그런데 벌써 열흘이 흘러갔소. 두성동무는 항에서 어떤 일이 있게 되겠는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겠소. 경수동무는 우선 장산군에 가서 〈도마뱀〉을 체포해와야 하겠소. 그런 다음 인하동무와 같이 〈도마뱀〉으로 가장하게 되는 리철동무의 사업을 방조해야 하겠소.》

리철이와 두성이 그리고 경수와 인하는 일어서면서 힘있게 대답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이것을 알아두오. 녕월로친이 죽었다고 소문을 냈는데 오늘 그의 가짜 장례식을 병원에서 하오. 그의 가짜묘는 신대읍을 질러가는 반죽고개의 공동묘지에 쓰기로 했소. 앞으로 녕월로친이 진짜 죽었는가를 확인해보기 위해 놈들이 묘를 파볼수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반죽고개중턱 길녘에 쓰기로 했소.

자, 그럼 모두들 돌아가시오.》

리철은 부장방에서 나오며 생각했다.

(이 리철이 《도마뱀》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경숙이 실종문제가 나섰을 때 벌써 앞일을 내다보고 얼굴을 함부로 로출시키지 말라고 했구나. 흥미있는데…)

쌍둥이인가?

달밝은 밤이였다.

은모래를 뿌려놓은듯한 별들이 숨박곡질하는 푸른 하늘가에서 쟁반같이 둥근 달이 열려진 창문으로 푸릿한 빛을 던지였다.

리철은 그 달빛어린 방안을 느닷없이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도마뱀》에 대한 자료를 연구하고 칠녀를 추적하기 시작한지 벌써 엿새가 지나갔다.

그는 지금 칠녀를 추적하고있었지만 필요한 경우 《우발》적인 사건을 만들어내여 그와 조우한 다음 점차 가까운 사이가 되여 나중엔 서로 흉금을 터놓는 정도로 《동지》가 될것이며 《도마뱀》의 별호로 그의 면전에 나타나 목적을 달성할것이라고 생각하고있었다.

그사이 칠녀를 미행하여 료해한 결론은 이러했다.

그는 여러 공장과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자재와 원료를 날라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모두 흠잡을데가 없이 자연스럽게 만났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을 다 료해하여보았지만 제기되는것이 없었다.

그는 일에서 열성이 높은데다가 머리가 픽픽 도는 수단가였으므로 물자를 날라들이는 인수원으로는 나무랄데없는 재목감이라고 사람들속에서 평판도 좋았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에서 몸을 아끼지 않았으며 원칙성도 강했다.

어느날 밤 역에서 물자를 실어들이는 일이 갑자기 제기되였을 때였다.

공장에서는 한 남자인수원에게 이 임무를 주었는데 그는 밤중에 일을 시킨다고 불평을 부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칠녀는 《동무같은 사람이 있으니 우리 공장이 천리마공장이 못돼요.》하고 짭짤하게 내쏘고는 자기가 대신 역에 가서 물자를 인수해왔다.

이런 칠녀를 잘 알고있는 사람들은 좀 거슬리는 일이 있어도 그와 맞서려고 하지 않았으며 코떼울 말은 물론 롱담도 함부로 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의 경제도덕생활은 검박하며 남녀관계에서 특징적인것은 《눈이 높은것》이라고 말했다.

칠녀에게 청혼한 총각들은 모두 다섯이였다. 같은 공장에 있는 기계수리공을 내놓고는 대학생 2명, 시급지도원 2명이였는데 그들의 요구를 모두 쌀쌀하게 거절해버렸다고 한다.

이것이 그의 흠이라면 흠일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게 볼수도 없었다. 사람마다 자기의 꿈이 있고 리상이 있는것만큼 그들모두가 자기의 인생행로에 길동무가 될 적임자가 되지 못할 때엔 거절해버릴수도 있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칠녀에겐 흠이라는게 별로 없는것 같았다.

그러나 이것은 외적현상이였으며 그에게 전혀 결함이 없는것은 아니였다.

리철이가 칠녀와 친근한 몇명의 사람들을 만나 료해한데

의하면 그는 신경질이 많고 하찮은 문제를 가지고 종종 싸움을 한다는것이였다.

이런 칠녀를 놓고 여러모로 생각하던 리철은 침대에 가서 벌렁 누웠다.

그는 지금까지 칠녀에 대하여 료해장악한 자료를 저녁에 부장에게 다 보고하였었다.

그때 부장은 칭찬도 하지 않았으며 그렇다고 책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다가 오늘 밤은 푹 쉬라고 했다.

리철은 눈을 감았다.

순간 고막을 쨍 하고 때리는 칠녀의 애된 목소리가 울렸다.

《눈은 어디다 건사하고 다녀요?…》

리철은 찬물을 뒤집어쓴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앉았다.

《사람 좀 보면서 다니라요. ―》

귀가엔 여전히 그의 목소리가 울리였으며 눈앞엔 낮에 칠녀가 청류장공장에 물자접수를 갔을 때 웬 낯모를 사나이에게 면박을 주던 그 푸르딩딩한 얼굴이 영화화면처럼 안겨왔다.

리철은 그 장면을 똑똑히 보았다.

물자접수를 끝낸 칠녀가 너덧장되는 인수증용지를 들고 부기원실 출입문가에 이르렀을 때였다. 인수증같은 몇장의 종이를 든 보통키에 가무잡잡하게 생긴 조개턱사나이가 헤덤비며 나오다가 칠녀와 마주쳤다.

《어마나―》

인수증용지를 땅에 떨군 칠녀는 눈이 올롱해서 조개턱사

나이를 쏘아보았다.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

가무잡잡한 얼굴에 쑥스러운 표정을 지은 사나이는 땅에 떨군 칠녀의 인수증용지를 줏기 시작했다.

하지만 칠녀는 맵짜게 내쏘았다.

《눈은 어디다 건사하고 다녀요? 사람 좀 보면서 다니라요.》

《이거 미안하다고 하지 않소? 허, 동무 정말 보통이 아니구만.》

인수증용지를 주어들고 허리를 편 사나이가 몇마디 하더니 칠녀의 눈길을 피하면서 말끄리를 흐리였다.

《동문 뭘 잘했다구 변명…》

《됐수다. 자—》

사나이는 칠녀의 말을 밀막으며 인수증을 내밀었다.

그걸 받아들고 헤여보던 칠녀가 한장 도루 내밀면서 말했다.

《이건 동무거 아니예요?》

《맞소. 내거요. 허, 오늘 밑진 장사를 할번 했는데…》

그 사나이는 입귀를 씰룩거리며 자리를 떴다.

생각에서 깨여난 리철은 무엇인가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정신이 들게 하는것 같았다.

(그런 접선도 있을수 있어. 인수증용지를 주어주는체 하면서 사나이가 칠녀에게 자기 손에 쥐고있던 련락쪽지를 넘겨줄수 있고 또 칠녀가…)

리철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섰다.

(식료공장에서 오늘밤 영화관람을 조직한다고 했지. 이틈을 타서 칠녀가 무슨 행동을 할수도 있지 않을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리철은 조용히 방을 나섰다. 그리고 직일관에게 알린 다음 식료공장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리철의 생각은 틀리지 않았다.

칠녀는 낮에 청류장공장에서 조개턱인 그 사나이에게서 련락쪽지를 받았던것이다.

이튿날은 일요일이였다.

리철은 칠녀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리철은 지금 놈들이 녕월로친의 생사여부를 놓고 무척 신경을 쓰고있으며 만약 안전부에 체포되였다면 자기들의 정체가 드러날것이므로 무슨 우발적인 사건을 일으키려고 하는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칠녀를 미행하는것이 매우 책임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민한 눈초리로 살폈다.

공업품상점에 들어간 칠녀는 판매원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크림 한개와 빈침 몇개를 받아든 다음 이 매대 저 매대를 빈둥거리며 돌아다니다가 문밖에 나섰다. 모든 행동이 자연스러웠으며 수상한것이란 하나도 없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리철이도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5분전 10시였다.

상점간판을 힐끔 쳐다보던 칠녀가 이번에는 책방으로 들어갔다.

고서적이 진렬되여있는 쪽으로 다가간 칠녀는 가방안에서 한시선집을 꺼내였다.

그때 한 학생이 수매할 책인가고 하면서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그는 책을 손에 쥐지 못했다.

그가 손을 내밀기 바쁘게 학생의 옆에 서있던 한 사나

이가 책을 덥석 잡더니 《이거 한시선집이 아닙니까?》 하면서 자기에게 달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세요. 아무에게 파나 같은걸요.》

칠녀는 사나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얼마 내랍니까?》

그러면서 사나이는 판권에 있는 값을 들여다보았다.

《2원을 내세요.》

《2원말입니까? 본래값이 2원 20전인데 수매하는 책값을 그렇게 받는 법이 어데 있습니까?》

《그럼 그만두세요.》

칠녀가 책을 내라고 손을 내밀었다.

《에라 모르겠다. 지식을 돈으로 흥정할수야 없지요.》

사나이는 돈 2원을 꺼내여 칠녀에게 내밀었다.

돈을 받아든 칠녀는 사람들을 살펴보다가 스적스적 책방을 나섰다.

사나이도 잠시 지체하다가 책방에서 나갔다.

리철은 그 사나이의 얼굴을 똑똑히 보았다.

보통키에 가무잡잡한 조개턱인 그 사나이, 그는 청류장공장 부기원실문앞에서 칠녀와 마주쳐 핀잔을 당하던 그 사람이였다.

(바로 그랬댔구나. 그러니 칠녀가 수매한 저 책에…)

리철은 느닷없이 가슴이 울렁거리고 피가 솟구쳐올랐다.

책방을 나선 조개턱인 그 사나이는 한시선집을 뒤적거리다가 거기서 한장 찢어내여 그것을 두번 접었다. 그리고 책갈피에 끼워넣은 다음 체신소로 들어갔다.

유리막 안쪽에 앉아있는 아주머니에게 편지봉투와 우

표 한장을 달라고 말한 사나이는 반달형출납구에 돈을 밀어넣었다.

아주머니가 편지봉투와 우표를 내밀자 그것을 받아든 사나이는 선집갈피에 접어넣었던 종이장을 찾아내여 봉투속에 넣고 봉한 다음 우표를 붙이고 원주필로 받을 사람 주소를 썼다.

사나이의 일거일동을 놓치지 않고 살피던 리철은 체신소에 들어와 그가 《옥천기계공장 박세술 앞》이라고 편지받을 사람주소를 쓰는것을 훔쳐본 다음 《원포시에서 친구로부터》라는 이름이 없는 발신인주소를 쓸 때 바람처럼 밖으로 사라졌다.

사나이는 책상에 엎디여 주소를 쓰느라 리철이가 체신소에 들어왔다가 나가는것을 보지 못했다.

리철은 박세술이라는자는 물론 그와 칠녀사이에 다리를 놓는 중간련락원 조개턱인 그 사나이가 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이 무척 기뻤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슨 문제를 놓고 고심하는 사람들의 모습그대로 좁혀진 리철의 눈가에는 착잡한 생각들이 어려있었다.

거리에 나선 그는 여전히 깊은 생각에 잠겨 행방없이 걸었다.

이윽고 시계를 들여다보던 그는 발길을 안전부쪽으로 돌렸다. …

이튿날 기차로 옥천군에 도착한 리철은 그곳 안전부의 방조를 받으며 박세술이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박세술은 옥천기계공장 운전수였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길녘에 차를 멈춘 세술은 식료

상점안으로 들어갔다.

이때였다.

웬 처녀가 박세술이 몰고온 차안에 들어가 잠시 어물거리다가 무엇인가를 들고나왔다.

(저건 또 뭐야?!…)

리철은 생각을 더 이을 사이가 없었다.

한쪽에 간 처녀는 차안에서 들고나온것을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그것을 얼른 손가방에 집어넣고 리철이가 앉아있는 승용차쪽으로 걸어왔다. 태연한 자세였다.

처녀와의 거리가 가까와졌다.

순간 리철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칠녀! 칠녀가 왜 여기로 왔을가? 자기가 보낸 편지를 옥천군에 와서 제가 받아보다니?… 이건 도대체 무슨 연극인가? 칠녀, 분명 칠녀다. 내 눈이 착각하는게 아닌가?…)

리철은 마치 눈을 뜨고 꿈꾸는 기분이였다.

이때 처녀가 승용차옆을 지나 잰걸음으로 지나갔다.

리철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멀리 사라진 처녀를 다시 바라보았다.

분명 칠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처녀였다.

리철은 아무것도 짐작할수가 없어 속이 답답해났다.

그러면 칠녀는 쌍둥이가 아닐가. …

차창에 비낀 처녀의 얼굴

미술대학모표가 달린 모자를 비스듬히 눌러쓴 한 청년이 방금 렬차에 올랐다.

그는 장산군에 갔다가 오는 그 칠녀와 같은 처녀를 미행하고있는 리철이였다.

알아본데 의하면 그 처녀는 옥천기계공장 제도사이며 이름은 옥녀라 했다. 칠녀는 아니였다. 그리고 그들은 쌍둥이도 아니였다. 세상에는 그렇게도 찍어놓은듯 같은 사람이 있는가.

《손님이 있습니까?》

렬차칸 중심통로를 스적스적 걸어나가던 리철이가 의자에 누워있는 한 뚱뚱한 사나이에게 물었다.

《어, 없습니다. 앉으시오.》

달갑지 않은듯 리철이를 빤히 올려다보던 사나이가 일어나앉으며 말했다.

사나이가 자리를 내주자 리철은 그림판을 무릎우에 올려놓으며 의자에 앉았다.

맞은켠 의자에는 중년부인과 줄곧 차창밖만 내다보고있는 처녀가 앉아있었다.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것 같았다.

처녀와 중년부인 그리고 뚱뚱한 사나이와의 사이에서는 시간이 흘러도 서로 주고받는 말이 없었다. 어쩐지 서

먹서먹한 분위기가 떠도는 좌석이였다.

특히 처녀는 차창밖만 내다보면서 얼굴조차 돌려대지 않아 그의 뒤모습밖에 볼수 없었다.

사나이와 처녀, 중년부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것 같았다.

리철은 옆에 앉은 뚱뚱한 사나이가 그 무엇을 경시하는듯한 예리한 눈초리로 자기를 지켜보고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옥천기계공장 운전수 박세술이였다.

하지만 리철은 그런 기미를 조금도 채지 못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였다. 리철은 무릎우에 올려놓은 그림판에 종이장을 펴놓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였다.

대상은 왼쪽어깨와 뒤모습만을 리철에게 향하고 차창밖을 줄곧 내다보고있는 맞은켠의자에 앉은 처녀였다.

잠간사이에 속사한 종이장에서는 두드러진 처녀의 옆모습이 완연하게 안겨왔다.

《학생동무, 재간이 여간 아닙니다.》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던 중년부인이 탄성을 올렸다.

그러자 리철의 옆에 앉아 파자부스레기를 집어먹으며 곁눈질하던 뚱뚱한 사나이도 그림우에 눈을 팔았다.

그러나 처녀만은 여전히 무감각상태였다. 처녀는 졸고있었던것이다.

《화가들의 손은 정말 보배손이군요. 어쩌문 그렇게도 신통하게 그려요?》

처녀의 옆에 앉은 중년부인이 홀린듯 눈을 치뜨며 리철이를 쳐다보았다.

《뭐, 난 아직 그림그리는데서는 초학도에 불과하지요.》
리철은 씩 웃으며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타고난 재간이 없다구 해두 다 그런건 아닌것 같애요.》
리철은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이다가 점직해서 말했다.
《아주머니를 그려드릴가요? 우리 대학에는 모델을 서주는 아주머니들과 처녀들이 있는데 참 성실한 사람들이지요. 한 처녀는 졸업실습때 저의 그림이 잘되기를 바란다면서 한시간동안이나 까딱하지 않고 앉아있었지요. 정말 마음씨 고운 처녀였지요.》
《그래 그 그림이 통과됐는가요?》
《예, 〈천리마를 탄 처녀기중기운전공〉이라는 그림이였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좀 칭찬까지 받았지요.》
리철은 어색하게 웃었다.
《그 그림을 나중에 어떻게 했는가요?》
《그 처녀에게 주었지요. 아주머니도 한장 그려드리지요. 자, 손을 무릎우에 얹어놓구 저 차창밖을 약간 내다보십시오.》
《아이, 망측해라.》
아주머니는 얼굴을 오미자열매처럼 붉히며 계면쩍게 웃었다.
그러면서 얼마 안가서 내리겠는데 리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거듭 말했다.
리철과 중년부인사이의 대화는 랭랭하던 좌석에 자못 온기가 넘치게 하였다.
중년부인은 들가방에서 사이다 한병과 과자 두봉지를

꺼내놓으며 들라고 하였다.

리철이를 경계하던 사나이까지 말참네를 했다.

《학생동무, 그래 대학을 졸업했소?》

그러면서 가방에서 병따개를 꺼내여 사이다병마개를 땄다.

《예, 졸업했습니다.》

《음, 그래 어데 배치받았소?》

《아직 배치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원포시로 가는 길인데 도에서 어디에 배치해주겠는지 정말 생각이 깊어집니다. 도에 떨어지라고 하겠는지, 어느 군으로 가라고 하겠는지 아니면 어느 공장으로 가라고 하겠는지…》

《그래 학생동무는 어떤 곳에서 일하고싶소?》

《미술가의 직업이란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매한가지지요. 그러나 생활속으로 깊이 들어가는것이 어떨가 생각합니다.》

리철은 사나이를 힐끔 쳐다보았다.

《같은 값이면 도시에서 사는것이 낫지. 도시가 도시고 시골이 시골이지.》

사나이는 뚱뚱한 몸집을 들었다놓으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그러면서 사나이는 보는 사람의 낯이 간지러울 정도로 유식한 티를 내였다.

사나이는 턱을 쳐들고 차창밖을 힐끔 내다보다가 리철이와 맞은켠 중년부인을 매몰스런 눈길로 쭉 훑어보았다.

리철에게는 어쩐지 이 사나이가 설익은 사과처럼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사나이가 또 입을 열었다.

《어쨌든 학생의 직업은 괜찮소.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하거던… 그 이름을 남기는 좋은 수단의 하나가 책을 쓴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하는것인데 동무가 바로 그림을 그리는 좋은 재간을 가지고있단 말이요.》

이때 졸고있던 처녀가 깼다. 그러나 그는 점직해서인지 턱을 고인채 여전히 밖을 내다보고있었다.

처녀를 지켜보는 순간 리철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중년부인이 리철이를 슬며시 쳐다보았다.

리철은 갑자기 점직한 생각이 들어 슬며시 눈을 차창밖으로 가져가며 한마디 했다.

《처녀동무, 이발이 쏴서 그러는게 아닙니까?》

처녀가 리철의 동정어린 목소리에 머리를 돌려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괜찮아요.》

리철은 그러는 처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가슴속에서는 이름할수 없는 그 무엇이 쿵쿵 방아를 찧으며 소용돌이쳤다. 하지만 가까스로 마음을 진정한 리철은 점직한듯 머리를 돌려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처녀도 머리를 돌려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이때 기차가 굴속으로 들어가면서 거울처럼 보이는 차창에 리철의 얼굴과 처녀의 얼굴이 나란히 비치였다.

처녀는 리철이를 힐끔 쳐다보면서 얼굴을 살짝 붉혔다.

《이 화가총각님이 체네한테 반한것 같군. 연분이란 별

거 아니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가다가 맺어질수도 있는 건데 길손이지만 중매 서주구 국수나 얻어먹어볼가.》

중년부인은 제법 너스레를 피우며 리철이와 처녀를 번갈아보았다.

《중매까지야 뭐, 처녀동무, 오늘 이렇게 만났던김에 내 기념품을 하나 드리지요.》

리철은 아까 처녀의 옆모습을 옮긴 그림을 내주며 흔연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받아주십시오. 처녀동무의 그 아릿다운 용모를 보았더라면 그것이 여기에 옮겨질것인데 이렇게 옆모습밖에 그리지 못했습니다. 잘 그리지는 못했지만 그런대로…》

《감사해요.》

《안됐습니다. 어데 계십니까? 내가 어데 배치받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때건 동무를 찾아가 큼직하게 그려드리지요. 이것은 진심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말입니다. 희떠운 소리한다고 생각마시오. 약속합시다. 어디에 계십니까? 우연적인 우리의 상봉이 저 아주머니 말마따나 연분이 될지 압니까? 하하…》

두 시선이 한점에서 부딪쳤다.

처녀의 얼굴은 신통히도 칠녀의 얼굴과 같았다.

포동포동한 뺨, 꼭 다문 입술, 오뚝한 코, 실오리같이 그린 눈섭, 흘기는듯한 눈, 매혹적인 그 모습은 칠녀와 꼭 같았다.

리철은 처녀의 시선에 쫓기여 머리를 돌리며 그의 해말쑥한 오른쪽 얼굴을 뜯어보았다.

(기미!)

처녀의 오른쪽 눈섭우에는 기미가 있었다. 리철은 언

젠가 부장이 조녕월의 진술에서 알아냈다고 하면서 그의 딸 도미끄한테는 전형적인 외적표식과도 같다고 할수 있는 《기미》가 있다고 한 말이 뇌리를 지나갔다. 심장이 튀여나올듯 쿵쿵 뛰였다. (옥녀!)

기차는 굴속에서 나오자 차창은 더는 거울처럼 보이지 않고 수려한 산발이 한눈에 안겨왔다.

리철은 자리를 바로하고 앉으며 무슨 말을 할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처녀도 이제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리철이를 마주하고 앉으며 점직해하였다.

이때 리철이와 처녀의 얼굴을 지켜보던 중년부인이 새물새물 웃으며 말했다.

《차창에 나란히 나타난 화가동무와 처녀동무의 얼굴을 한카트 찍었으면 좋겠더군요.》

《하하… 아주머니두…》

리철은 사람좋게 웃으며 처녀의 얼굴을 슬쩍 훔쳐보았다.

《아이…》

처녀는 얼굴을 살짝 붉히며 다시 차창밖에 시선을 던졌다.

《화가동무, 좋으면 그저 좋다구 하라요.》

중년부인은 시치미를 뻭 따고 말했다.

리철은 그냥 웃기만 하였다. 그러면서 처녀를 다시 넌지시 쳐다보았다.

어느덧 옥천역으로 렬차가 들어서고있었다.

자리에서 일어난 처녀는 선반에서 가방을 내려들었다.

《여기서 내립니까?》

리철이 물었다.

《그래요.》

《여기에 계십니까?》

《예, 여기서 살아요.》

리철은 시간을 끌 생각으로 그림을 집어들었다.

《그럼 이 그림을 받아주십시오. 기념이 되겠는지…》

《아이, 고마와요.》

처녀는 가방의 쟈크를 드르륵 열었다.

《이거 통성도 변변히 못한채 헤여지는군요. 섭섭한데요? 참 동무의 이름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찾아간다?》

리철은 우정 손을 내밀면서 머루알같은 처녀의 까만 눈을 지켜보았다.

《김옥녀예요.》

《김옥녀! 알았습니다. 잘 다녀가십시오. 꼭 찾아가겠습니다.》

《안녕이 가세요.》

처녀의 모습은 렬차칸에서 사라졌다.

차창으로 홈을 걸어가는 처녀를 지켜보던 리철은 뚱뚱한 사나이가 그의 뒤에 좀 떨어져서 따라가는것을 보았다.

옥천군은 원포시의 린접군이였다. 한 정거장사이인 이 구간을 기차는 하품을 한두번하는 사이에 달리는듯 하였다.

원포시에 도착한 리철은 시내뻐스를 탔다.

가짜와 진짜

리철은 휘파람을 불며 느닷없이 방안을 거닐었다.

두성대위가 어떤 소식을 안고 오겠는지.

오늘은 여느때없이 그가 기다려졌다.

리철은 설레이는 가슴을 안고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2시 38분이였다.

두성대위가 도착하겠다는 시간까지는 서너시간이 더 있었다.

뚜벅, 뚜벅… 군화자국소리가 방안에 조용히 울렸다.

리철은 자기가 지금 깊은 생각에 잠겨 이렇게 방안을 거닐고있다는것조차 감각못하고 쉬임없이 방안을 오갔다.

이때 부장이 조용히 방안에 들어섰다.

그러나 리철은 문소리도 부장이 들어선것도 몰랐다.

리철은 《전호속의 나의 노래 고향으로 울려가라》하는 노래의 대목을 휘파람으로 살살 불었다.

그다음 대목은 부장이 휘파람으로 이어 불었다.

그제야 리철은 정신을 번쩍 차리고 출입문쪽으로 몸을 홱 돌리였다.

《명상에 잠겼군. 리철동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맞춰볼가?》

《예, 맞춰보십시오. 맞으면 내가 톡톡히 내겠습니다.》

《톡톡히 내겠다, 허허, … 그래 뭘 내겠소?》

《글쎄 내겠습니다.》
《틀리면 내가 내라는 소리가 아닌가?》
《뭘 그렇게… 아니… 부장동지두 내야 합니다.》
《좋아, 그럼 알아맞추지. 불비가 쏟아지는 전호속에서 고향을 생각했지?》
《3점, 3점입니다.》
《3점?》
《예, 저는 평화로운 건설장이 아니라 검은 연기 타래치는 전호속에서 원쑤놈들과 치렬한 격전을 벌리고있는 장면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러니 고향이 아니라 격전장을 그려보았단 말이지? 좋아, 그럼 내가 내지. 가자구.》
《예?! 진짭니까?》
리철은 어쩔바를 모르고 주춤거렸다.
《그래 부장이 언제는 진짜루 얘기하지 않구 대포만 쏘던가? 응? 자, 모자를 쓰오. 가기요.》
부장은 석쉼한 목소리로 리철이를 꽉 위압해놓고 먼저 방을 나섰다.
《차, 내가 오늘 실수를 하는게 아닌가…》
리철은 할수없이 모자를 쓰고 부장을 따라나섰다.
부장네 집에 들어선 리철은 눈이 둥그래졌다.
방 한복판에 놓인 두리반에는 그야말로 특식이 차려져있었다. 지어 맥주병까지 놓여있었다.
《부장동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철은 의아한 눈길로 시물시물 웃는 부장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부장은 리철의 손을 끌어 상앞에 앉히였다.
《내가 톡톡히 내기로 되여있지 않소?》

《그런데 어느새…》

《아, 부장은 대포만 쏘는줄 아나?》

부장은 여전히 롱조로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병마개를 따고 맥주를 잔에 부었다. 잔에는 부걱부걱 거품이 괴여올랐다.

이때 아주머니가 행주치마에 손을 씻으며 들어왔다. 아주머니는 리철이 옆에 앉으며 잘 차리지 못했는데 많이 들라고 권하였다.

《아주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철은 아주머니한테 다시 물었다.

《아, 나두 미처 몰랐는데 오늘이 아저씨 생일이라면서 한상 잘 차리라구 하지 않겠나. 그래서…》

《자, 어서 들기요.》

부장은 안해의 말을 중동무이하고 맥주잔을 리철의 손에 들려주었다.

리철은 목이 꺽 메여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맥주거품처럼 부풀어오르고 코마루가 찡해졌다.

자기자신도 까마득히 잊고있는 생일날을 부장이 잊지 않고 이렇게 기억해주다니… 리철은 눈물부터 앞서 고개를 외로 돌리였다.

부장집에서 나와 합숙에 돌아온 리철은 다시 옥녀에 대한 생각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럴즈음 리철의 생각을 깨뜨리는 문기척소리가 울렸다.

리철이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을 때 방안에는 벌써 두 성대위가 들어와있었다.

《리철동무, 부장동지가 찾소. 젠장, 빨리 가기요.》

리철은 두성대위와 같이 부장이 기다린다는 소영화관으로 갔다. 거기에는 경수와 인하가 먼저 와있었다.

리철이와 두성이가 나타나자 부장은 의자를 권하고나서 불을 끄라고 신호했다.

불이 꺼지자 어둠속에서 부장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리였다.

《이제부터 잘 봐두시오. 자, 1번을 비치시오.》

영사막에는 칠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이것은 칠녀가 분장했을 때요. 2번을 비치시오.》

영사막에는 옥녀의 얼굴이 나타났다.

《방금 비친 그 녀인의 얼굴이 아닙니까?》

인하중위가 잘못 비친줄 알고 이렇게 말했다.

《이건 잘못 비친게 아니요. 방금 옥천군안전부에서 보내온 사진인데 이 처녀는 옥천기계공장 기술부에서 일하고있소. 이름은 김옥녀요. 이 처녀를 리철동무가 찾아냈으며 어제는 렬차칸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상봉하였소.

아주 흥미있는 일이요. 보시오. 이 처녀의 오른쪽눈섭우에 있는 기미를 자, 그럼 1번을 다시 비치시오.

영사막에 젊은 녀인으로 가장한 칠녀의 얼굴이 다시 나타났다.

《기미를 떼시오.》

칠녀의 얼굴에서 기미가 없어졌다.

《이처럼 칠녀의 얼굴에는 천성적인 기미가 없소. 기미를 만들어 붙인것이요. 자, 3번을 비치시오.》

영사막에 칠녀의 얼굴과 비슷한 얼굴이 나타났다.

《이것이 분장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얼굴이요. 그러니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칠녀는 옥천기계공장에 있는 제

도사 옥녀의 용모를 따기 위해 얼마나 세련된 분장을 하였는가를 잘 보여주오.

옥녀역을 담당해야 할 때에는 분장을 옥녀처럼 할뿐만아니라 기미도 만들어붙이오. 그러니 진짜 도미꼬가 칠녀이겠는가 옥녀겠는가? 결론은 명백하오. 옥녀요!

그러니 우리의 추적대상은 옥녀—도미꼬요! 칠녀는 감시대상이요.

우리는 앞으로 칠녀를 필요한 경우 〈제2도미꼬〉라고도 부릅시다.

불을 켜시오.》

소영화관안이 환해졌다.

부장은 좌중을 한번 둘러보고나서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옥녀의 문건은 다음과 같이 되여있습니다. 옥녀의 아버지 김순달은 천남리에서 사회보장을 받고있다가 3년전에 죽었소. 옥녀는 현재 옥천기계공장 합숙 1층 5호실에 거처하고있는데 맡겨진 임무를 아주 잘 수행하고있는 등록된 혁신자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김순달은 1941년도에 왜놈들의 보국대에 끌려갔다가 1945년 2월에 도망쳐 해방될 때까지 숨어다녔다고 하오. 해방이 되자 그는 자기 고향인 함경남도 락원군에 가보았으나 부모들이 없었으므로 부모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황해북도 은파군에 정착하여 토지개혁에 참가하였소. 그때 그는 열성분자로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미국놈들이 전쟁을 일으키자 그는 마을사람들과 함께 식량을 은폐시키는 사업을 하다가 《치안대》놈들한테 붙들리여 사형장으로 끌려나갔댔다고 하오. 그런데 사형이

집행되려는 그 순간에 인민유격대가 나타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것이요.》

《그때까지 처는 없었다고 합니까?》

리철이가 다우쳐 물었다.

《그에게는 이미 처가 있었소. 그가 보국대에서 도망쳐 숨어다닐 때 한 녀자를 만나 살았다고 하는데 옥녀가 그때에 태여난것으로 되여있소.

그러면 그후 사연은 어떻게 되였는가? 복잡하지만 들어봅시다.

일시적인 전략적후퇴가 시작되자 김순달은 처와 딸을 먼저 후방으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는 폭격에 죽고 딸은 행방불명이 되였다는것이요. 그 딸을 전후 3년만에 찾았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옥녀요. 옥녀는 그동안 황해북도의 심심산골에서 사는 늙은 내외의 슬하에 있었는데 김순달이가 그걸 알게 되자 딸을 데려왔다는것이요.

김순달이가 옥녀를 데려오자 두 늙은이는 심화병에 걸려 열흘 사이를 두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후 옥녀는 김순달의 품에서 살면서 기술학교까지 나왔소. 김순달은 폭격에 옥녀의 어머니를 잃은 다음 전후에 또 한 녀자를 데리고 살았는데 그 녀자는 시름시름 앓다가 병으로 돌아갔다고 하오.

앞으로 어떻게 까밝혀지겠는지는 몰라도 지금까지의 김순달의 경력은 이렇소. 옥녀의 경력도 우리는 이렇게밖에 모르오. 물어볼것이 있으면 물어보시오.》

김순달의 경력은 깨끗하였다.

그러나 리철은 옥녀가 도미끄라고 생각할 때 김순달의

경력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리철은 알고싶은것을 꺼리지 않고 물었다.

《김순달이가 보국대에 끌려가서 어떻게 살았으며 거기서 도망쳤다는것을 보증할만한 사람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보국대에 같이 있었다는 사람도 있소. 그는 김순달이가 도망친 다음 왜놈들이 수사망을 펴고 법석 고아대던 때를 회상하였소.》

《부장동지, 한가지 더 물어도 좋습니까?》

리철은 부장이 나무람하지 않겠는가 하여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피면서 또 물었다.

《좋소. 얼마든지 묻소.》

《옥녀가 전쟁시기부터 전후 3년간 두 늙은 내외와 함께 심심산골에서 살았다는데 공부는 어떻게 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김순달이가 옥녀를 11살때 데려왔는데 황해북도의 그 심심산골에는 인민학교가 없었소. 그런데 김순달은 옥녀를 데려다 인민학교 4학년에 편입시켰소. 그러나 옥녀는 성적이 뒤떨어지지 않았소. 말에 의하면 두 늙은이가 옛날 서당에서처럼 그를 공부시켰다는것이요. 여기에는 믿기 어려운 미묘한것이 있는데 앞으로 해명되리라고 봅니다. 또 물을것이 있으면 물으시오.》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모두의 얼굴에는 심중한 빛이 어리였다.

부장은 전투임무를 주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리철이와 두성이, 경수와 인하도 따라 일어섰다.

상 봉

깊은 생각에 잠겨 식당앞마당으로 걸어가는 옥녀를 은혜가 불러세웠다.

옥녀는 주춤하고 자기를 부르는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열어젖힌 식당창문으로 머리를 내민 은혜가 방싯 웃고있었다.

《언니,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요?》

《응, 아무것도 아니야.》

옥녀는 눈을 아래로 내리깔며 돌아서려고 했다. 그러나 옥녀는 은혜의 다음말에 저도모르게 끌리였다.

《아무것도 아니긴 뭐가 아니예요? 얼굴에 다 나타나는데두…》

옥녀는 은혜가 자기의 속생각을 다 아는듯싶었다. 그래서 머리를 갸웃거리였다.

《뭐, 신중하게 생각할 일이라두 생긴게 아니예요?》

《그런게 아니구…》

《그럼?》

은혜는 쌍까풀진 눈을 귀엽게 굴리며 옥녀를 흘깃 바라보았다.

옥녀는 그러는 은혜를 재빠른 눈길로 바라보며 딴전을 피웠다.

《아무것도 아니야…》

《호호호… 언니두, 내 알아맞히라요? 우리 공장에 새로 배치되여온 미술가를 보구 그러지요?》

《넌 그걸 어떻게 아니?》

옥녀는 의혹에 찬 눈길로 은혜를 쳐다보았다.

《내가 왜 그런걸 몰라요? 지배인동지한테서 련락이 왔는데 저녁부터 한명분의 식사를 더 준비해야겠다고 하였거든요. 그래서 누가 왔는가고 물으니 글쎄 미술가가 없어서 언제부터 상부에 제기했드랬는데 이번에 드디여 한명 왔다지 않아요. 모두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름은 주길태라고 하는데 남자답게 둥글넙적하니 잘 생긴데다가 서글서글한게… 정말… 호호호.》

은혜는 호들갑스럽게 웃어댔다. 그러다가 옥녀를 살짝 쳐다보며 말을 계속했다.

《게다가 인정도 있대요.》

《넌 정말 모르는게 없구나.》

옥녀는 은혜를 그저 천진란만한 소녀애처럼 여기고있었다.

《처녀들이야 남자들의 성격, 취미 그리구 발전전망이 어떠한지 그런걸 알려고 이러저러한 방법으로 내탐하는게 특징이 아니예요. 언니는 뭐 그렇지 않아요?…》

《넌 정말 엉뚱하구나.》

옥녀는 이렇게 말하고나서 기술부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언니, 방조받을 일이 있으면 나한테 서슴없이 찾아오라요.》

은혜는 옥녀의 등뒤에 대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옥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종종걸음으로 내처 걸었다.

옥녀는 렬차칸에서 자기에게 그림을 그려준 화가를 다시 보자 설레는 마음을 어쩔수 없었다.

옥녀는 리철이를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줄은 몰랐다.

그는 이것이 과연 우연하게 이루어진 상봉이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아무리 따져봐도 다르게 보아야 할 자그마한 단서도 찾을수 없었다. 하여튼 가까이 사귀면서 더 알아보자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는 왜 나를 보고도 못본체 하면서 지나갔을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만나려고 그랬을테지.)

이런 착잡한 생각을 하며 기술부 사무실출입문앞에까지 온 옥녀는 그 자리에 서서 사색이 깨뜨려지지 않기를 바라듯 출입문손잡이를 빤히 내려다보았다.

한편 리철은 지배인으로부터 공장의 래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사감의 안내를 받으며 합숙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공장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나라의 한다하는 기술자들이 모여 새로운 기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보배공장이다.

여기서는 나라의 공업발전에 필요한 기계의 금속재료도 연구하고있었다.

적들이 바로 이것을 탐지하기 위해 옥녀를 여기에 침투시킨것이 아니겠는가. 아니면 우연히 침투한것이 이처럼 중요한 공장에 발을 붙이게 되였을가?

이런 생각을 하니 어깨가 더 무거워지는것 같았다.
리철은 단단히 차비하고 달라붙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합숙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합숙은 2층으로 된 토피블로크집이였는데 중앙현관을 계선으로 들어가면서 우측엔 녀성호실이 있었고 좌측엔 남자호실이 있었다.
리철의 방은 1층 13호였다.
방은 아담하였다.
눈에 띄는것은 원탁우에 놓여있는 소나무화분이였다.
창문벽쪽에는 침대가 놓여있고 한쪽구석에는 책상과 책꽂이가 있었으며 옷장이 있었다.
책상우에 트렁크와 그림도구들을 올려놓고 침대에 걸터앉은 리철은 방안을 살피다가 짐을 풀었다.
책들을 책꽂이에 차근차근 정돈해놓은 리철은 트렁크는 침대밑에 밀어넣고 그림판은 옷장뒤벽에 세워놓았다.
별로 손질할것없이 다 갖추어진 방이였으므로 리철은 짐을 풀어 정돈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리철은 스스로 일감을 만들었다. 화필과 물단지, 수채화구들을 책상우에 꺼내 정돈해놓았다.
그리고 그림받치개틀과 휴지통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회관에 가서 각재와 못, 몇장의 널판자를 가져다 톱으로 쓸고 대패질하였다.
배치되여온 첫날 오후는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 황혼이 깃들무렵 직맹지도원이 찾아왔다.
식사하러 가자면서 출입문밖에서 기다리던 직맹지도원이 방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거 어느새 이렇게… 일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만. 보

아하니 그림그리는 솜씨도 여간 아니겠는데?》

방안을 어찌도 살뜰하게 정돈해놓았는지 직맹지도원은 감동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지나친 칭찬이 아닐가요?》

《아니요. 난 진짜 감동됐소.》

직맹지도원은 다시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그림받치개틀이며 휴지통을 만져보았다.

《손에 익은 일이니 그저…》

리철은 뒤더수기를 슬슬 쓸며 말했다.

《갑시다.》

직맹지도원은 일솜씨있는 친구를 만난것이 기쁜듯이 히죽이 웃으며 문을 열었다.

《갑시다. 그러찮아도 출출합니다.》

리철은 직맹지도원의 뒤를 따라나섰다.

식당에는 세명의 독신들이 먼저 와서 식사를 하고있었다.

《안녕하세요?》

식탁에 마주앉은 리철이와 직맹지도원에게 다가온 은혜가 리철이를 보고 깍듯이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예, 안녕…》

얼결에 일어선 리철은 꺼꺼부정하고 서서 은혜의 정중한 인사에 반신반의하였다.

리철의 동작이 어찌도 어색하였던지 은혜가 입에 한손을 가져다대면서 약간 새는듯한 소리를 내여 웃었다.

그것을 지켜보던 직맹지도원이 《아니, 무슨 초면인사들이 그렇소? 마치 객석에 앉아 토막극을 보는것 같구만. 하하하…》하면서 폭소를 터뜨렸다.

그바람에 리철은 더욱 난처하여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꺼꺼부정한 상태에서 은혜를 쳐다보았다.

순간 리철의 눈은 자기를 약간 치떠보는 은혜의 눈과 마주쳤다.

(어데서 봤더라?…)

리철은 눈을 꺼벅거리면서 생각을 굴리였다.

(그렇지!)

리철의 눈앞에 언젠가 소나기 퍼붓던 날 원포역앞에서 뻐스를 타려고 올리밀다가 그림판으로 이쁘게 생긴 처녀의 손을 짓이겨놔 무슨 단지가 든 가방을 떨어뜨리게 하고는 사과하려고 물참봉이 되면서 따라갔지만 종내 사과하지 못한 그 처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제라두 사과해?…)

자리에 앉은 리철은 변명하듯 《난 처녀들앞에서 몸이 굳어지는게 탈이지요.》했다.

직맹지도원이 껄껄 웃었다.

《저 처녀이름을 어떻게 부릅니까?》

《은혜라고 하지요.》

《은혜, 은혜… 거 이름이 아주 좋군요.》

리철이가 이렇게 중얼거릴 때 다시 식당에 나온 은혜가 식탁에 음식그릇들을 챙겨놓았다.

그의 발그레한 얼굴엔 여전히 가벼운 웃음이 실려있었다.

리철이와 직맹지도원은 은혜가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식당을 나섰다.

《자, 오늘은 일찌감치 푹 쉬라구—》

《예.》

직맹지도원과 헤여진 리철은 자기 침실에 돌아와 담배를 꺼내물었다.

서늘한 바람에 창문보가 하르르 물결치는데 저녁노을이 창문을 붉게 물들였다.

담배를 힘껏 들이빤 리철은 저물어가는 창문밖에 시선을 던지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리철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마음을 종잡을수 없었다.

담배를 뻑뻑 빨아 흰연기를 내뿜는 리철의 눈앞에는 부장과 동지들의 정다운 얼굴이 언뜻언뜻 안겨왔다.

…두성대위, 경수상위, 인하중위… 부장동지의 얼굴도… 모두가 못견디게 그리웠다.

정적이 깃드는 저녁처럼 고요하던 리철의 가슴속에 격정의 파도가 세차게 휘몰아쳤다.

리철은 침대에 누웠다.

문득 부장의 말이 귀가에서 울리였다.

《이제부터 동무는 〈도마뱀〉의 이름 그대로 주길태요.》

리철이 저도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잠이 들고말았다.

리철이가 눈을 떴을 때는 창문가에 푸름푸름 새날이 밝아올무렵이였다.

옷도 벗지 않고 누웠다가 새날을 맞이한 리철은 벌떡 일어나 웃옷을 벗었다. 오늘부터 대학생복을 벗어놓고 양복을 입자고 생각한 리철은 트렁크를 열고 옷가지를 뒤적이며 양복을 찾았다. 그런데 국방색옷이 눈에 띄였다.

(어찌된 일인가?)

새로 지은 고급양복은 트렁크의 제일 밑창에 포개여있었

다. 그제야 리철은 부장의 안해가 국방색옷은 작업복으로 입으라고 새로 지어 넣어준것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것을 꺼내여 펼쳐보았다.
그속에서 종이말이가 떨어졌다. 종이장에는 《아저씨, 이 옷은 그림을 그리거나 작업을 할 때 입고 양복은 아껴입어요.》라는 글씨가 적혀있었다.
리철은 아주머니의 다심한 정이 혈맥을 따라 심장으로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아주머니－》
리철은 아주머니라는 네글자를 몇번이나 불렀는지 모른다. 정말 행복한 순간이였다.
리철은 작업복바지를 갈아입고 세면장으로 가서 랭수마찰을 하였다.
세면장은 중앙현관에서 직선으로 뻗은 합숙 뒤마당쪽에 있었는데 녀자세면장과 남자세면장이 문을 마주하고 좌우켠에 따로 있었다.
랭수마찰을 끝낸 리철은 세면도구를 들고 출입문을 열고 복도에 나섰다.
그 순간 복도 맞은켠 녀자세면장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였다.
리철이가 한발자국 내디디는 순간 맞은켠 출입문에서 나온 사람도 한발자국 내디디였는데 두사람은 마주칠 정도로 섰다.
《어마나?!》
두사람의 눈길은 한점에서 부딪쳐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인상적인 상봉인데요? 옥녀동무.》
리철이가 넌지시 웃음을 던지며 먼저 입을 열었다.

순간 옥녀의 얼굴이 빨갛게 물들었다.

《아이참, 정말 또 만났군요. …》

사실 옥녀는 기차칸에서부터 리철의 사내다운 풍모에 마음이 끌리였다.

그래서 그는 어제 리철이를 다시 보게 되였을 때 은근히 기뻐했던것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 또다시 이렇게 상봉하게 되였으니…

먼저 리철이가 옥녀에게 물었다.

《참, 옥녀동무도 이 공장에 있는가요?》

《예, 공장기술부에서 제도사로 일해요.》

《아, 그랬댔구만요. 나도 여기 합숙에 들었소.》

《호실은 받았어요?》

《1층 13호를 받았습니다. 빈방이 그것밖에 없다면서 … 그런데…》

리철은 허구프게 웃었다.

《왜 그러세요?》

《뭐 별거 아닙니다. 녀동무들의 호실이 가까이 있는데 난 생활이 텁텁해놔서 처녀들에게는 좀…》

《아이참, 별 걱정을 다 하누만요. 우리 처녀들은 오히려 그런걸 더 좋아한답니다. 호호호.》

《그래요. … 그럼 앞으로 놀러 오십시오. 렬차칸에서 내가 완성해주지 못한 그림도 있는데…》

《감사해요.》

리철은 호실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옥녀는 리철의 뒤모습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호실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이 짠 일과표

며칠사이에 리철이와 옥녀사이는 구면친구처럼 가까와졌다.

리철은 옥녀와 그렇듯 빨리 친숙해지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그는 옥녀에게 호감을 사려고 한적도 없었으며 그가 처녀인것만큼 색다른 눈길로 쳐다보는것조차 삼가했다. 그는 순박한 촌총각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리지적인 인간이라는 인상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였다.

이 모든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는지 옥녀는 리철이를 각별히 따르며 친숙해지기 위해 애썼다. 그렇다고 애교를 부리거나 요사스럽게 노는것은 없었다.

바로 이런 장점들이 둘의 사이가 빨리 친숙해지도록 촉매작용을 했는지도 모른다.

시간이 흐르면서 옥녀는 리철에게 쏠리는 마음을 더욱 걷잡지 못했다.

일요일이여서 거리에 나갔던 옥녀는 공장 속보판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리철이가 공장에 와서 처음 그린 그림속보가 나붙어있었던것이다.

그림을 지켜보는 옥녀는 감탄을 금할수 없었다.

품을 그닥 많이 들인것 같지 않지만 매 선과 선들은 힘을 자아내면서도 선명하고 어딘가 모르게 또 부드러웠다.

리철의 개성이라고 말할수 있는 그 선이 옥녀의 마음에 들었다.

실로 이채를 띠는 그림이였다.

속보판의 그림을 들여다보는 옥녀의 눈앞에는 리철의 너부죽한 얼굴이 정답게 안겨왔다.

순간 그의 가슴은 울렁이였다.

옥녀는 마음을 진정하려고 합숙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봉긋한 그의 가슴은 노상 널뛰듯 하였다.

이때 귀에 익은 목소리가 그가 걸어가는 앞쪽에서 들려왔다.

《언니, 어데 갔다 와요?》

은혜의 목소리였다.

그제야 옥녀는 합숙으로 간다는것이 리철에 대한 생각에 그만 정신이 팔려 식당쪽으로 왔다는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런 내색은 조금도 없이 흥분을 가무리며 은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느슨한 미소를 지어보이며 말하였다.

《거리에 좀 나갔다 오는 길이야.》

식당창문에 두팔굽을 고인 은혜가 명민해보이는 두눈을 깜박이며 말했다.

《그래 뭘 샀어요?》

《아무것두…》

옥녀는 들가방을 들어보이였다.

《언니, 오늘 점심엔 국수를 대접하겠어요. 미술가동무하구 같이 오세요.》

은혜까지 자기의 마음을 찌르는 바람에 옥녀는 한층 놀랐다.

《애두, 그 사람이 왜 나하구 같이 가겠니?》

《언닌 국수를 좋아하지 않지만 그 미술가동문 국수를 제일 좋아한대요.》

(조건 정말 눈치도 빠른 애로구나. 내가 너무 얼굴에 나타내는것은 아닐가?…)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참, 언니두, 그래서 같이 오문 언니몫을 그 미술가동무한테 줄수 있다는거지요 뭐…》

은혜는 제법 고개까지 갸웃거리며 말했다.

《내 몫을 왜 그 사람한테 주겠니?》

《그랬으면 좋겠다는거예요. 호호호》

《애두…》

옥녀는 은혜의 롱담이 싫지 않았지만 롱도 도수를 넘으면 불리할 때가 있다는것을 알고 돌아서서 합숙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언니, 꼭 같이 와요.》

은혜의 목소리가 등뒤에서 자기의 마음속 생각을 든장질해놓듯 한마디 더 울려왔다.

자기 방 출입문에 다가선 옥녀는 고개를 돌려 리철의 방 출입문에 시선을 던졌다. 인기척이라도 있겠는가 해서였다.

그러나 조용했다.

옥녀는 문을 열고 자기 방에 들어와 침대우에다 거리에서 사가지고온 물건들을 꺼내놓았다.

옥녀는 그것들을 흰종이에 곱게 싸들고 자기 방에서 나와 리철의 방 출입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리철의 목소리가 공명되여 문새로 새여나왔다.

하지만 옥녀는 다시 문을 두드리고 한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이때 리철이가 문을 열고 머리를 내밀었다.

《아, 어서 들어오십시오!》

옥녀는 리철이가 이끄는대로 방안에 들어섰다.

《오늘이야 일요일인데 좀 쉬세요.》

《나에겐 이것이 휴식이지요. 자, 이 침대에 걸터앉으시오.》

옥녀는 리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폭신한 침대우에 걸터앉았다.

리철은 다시 붓을 손에 들었다.

《길태동무가 공장에 온지 며칠이 안되는데 벌써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

《재간이 없어 고무하는 말이겠지요.》

《아니예요. 전 아까 속보판앞에서 또 한번 길태동무의 재간에 탄복했어요. 진심이예요.》

《진심이라니 고맙습니다.》

《언제부터 그림공부를 시작했어요?… 천성적인가요?》

옥녀의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하여 반짝이고있었다.

《그림을 언제부터 그렸는가고?… 하하…》

리철은 흘러간 시절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듯 머리를 창문밖으로 돌리며 한동안 말이 없었다.

창문가까이에 선 방울나무잎새들이 미풍에 하늘거리며 떨고있었다.

이윽해서 리철은 창밖에서 시선을 떼며 말했다.

《우리 마을에 나보다 한살우인 그림을 잘 그리는 용길이라는 동무가 있었지요.》

리철은 옥녀를 힐끔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옥녀의 눈과 마주치자 어색한듯 자리를 고쳐앉으며 말했다.

《재미없지요?》

《아니, 내용두 얘기하지 않았는데 재미있구 없구가 있나요. 어서 계속하세요.》

《어느날이였지요. 그와 함께 산에 개암따러 간적이 있었지요. 그때 우리는 개암나무를 따라 그 근방에서 제일 높은 산 정점에 오르게 되였는데 거기서 산아래를 굽어보니 높낮은 구릉들이 실안개속에서 우뚝우뚝 머리를 내민게 정말 신기로왔지요. 하나의 그림같은 그 화폭을 감수하는 나의 마음은 설레였습니다. 그때 시라는것이 어떤것인지 몰랐으니 말이지 정말 시적령감이 마구 떠오를만한 멋진 풍경이였지요.》

여기서 잠간 말을 끊은 리철은 옥녀의 마음을 한번 더 타진해볼 생각으로 이야기와는 다른 질문을 하였다.

《시시한 소린데 그만둘가요?》

《아이참, 길태동무 사람의 애간장을 태울줄 아는 남자이기도 해요. 어서 마저 하세요.》

《그럼 계속 해볼가요. …그림을 잘 그리는 그 동무의 감정이야 어떠하였겠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와 연필을 꺼내더니 그 화폭을 종이우에 옮겨놓았습니다. 잠간사이에 말입니다. 연필로 몇번 죽죽 올리긋고 내리긋고 하고는 쓱쓱 문대겼는데 멋진 풍경화가 되질 않았겠습니까.》

리철은 손짓을 해가며 마치 제가 그림을 그리듯 열을 올려 말했다.

《나는 그때 그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집에 돌아온 나

는 그 동무처럼 그림그리는 재간이라두 가져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림그리기련습에 달라붙었지요. 그게 바로 나를 미술가가 되게 한 계기점이지요.》

《호호호… 듣고보니 그저 그런거군요.》

그들은 같이 유쾌하게 웃었다. 리철은 거짓말을 한 자기가 우스워 웃었고 옥녀는 저도모르게 별치 않은 이야긴데도 마음끌렸던 자기가 우스워 웃어댔다.

《고향이 평북도였어요?》

웃음을 거둔 옥녀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물으며 리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옥녀의 머루알같은 까만 눈동자가 어찌도 생기있는지 거울같이 반짝이였다.

짙은 련민의 정이 어리여있는 눈길이였다.

《아니요. 황해북도지요.》

옥녀의 눈길을 피해 머리를 돌린 리철은 태연하게 대답하면서 붓끝에 빨간 색감을 듬뿍 찍었다.

《그런데 왜 고향엔 가지 않고 여길 왔어요?》

《중앙이나 도에 떨어지지 못할바엔 산좋고 공기 좋은 내 고향에 가자고 했지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화가를 달라구 어찌나 보챘는지… 그래서 결국은 고향에 가지 못하고 여기로 오게 되였지요. 그러나 여기에 오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옥녀동무두 있구…》

《아이참…》

옥녀는 눈을 빨며 얼굴을 살짝 붉히였다. 그리고 더 물을념을 하지 않고 생각없이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리철의 손에 쥔 붓끝을 주의깊게 지켜보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철은 무엇인가를 예민하게 느꼈다.
《옥녀동무는 부모님들이 다 계시는가요?》
《어머니는 내가 두살땐지 세살땐지 돌아가고 아버지는 3년전에 돌아갔어요.》
《거 안됐군요. 형제들은 많은가요?》
《없어요. 저 혼자예요.》
《아, 그렇습니까.》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리철은 그림그리는데 열중하였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옥녀가 무심결에 긴 한숨을 내쉬였다.
《아니 왜 한숨을 쉬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예요. …》
옥녀는 손에 쥐고 만지작거리던 종이꾸레미를 침대우에 밀어놓고 일어섰다.
《이건 뭡니까? 가지고온것이 아닙니까?》
리철은 의아한 눈길로 옥녀를 쳐다보았다.
《예, 내가 가지고온것이예요. 그런데 가지고 갈건 아니예요.》
《가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리철은 종이꾸레미를 들어 그의 앞에 내밀었다.
《글쎄 놔두세요. 그리구 내가 나간 다음에 풀어보세요.》
옥녀는 나가려고 발자국을 뗐다.
《가만, 옥녀동무－》
옥녀를 멈춰세운 리철은 종이꾸레미를 헤쳐보았다. 비누갑과 세수비누, 치솔과 치약이였다.

《아니, 옥녀동무, 이런 법도 있습니까?》

《값나는건 아니예요. …》

《아니, 그래서가 아닙니다. … 그럼 받아두지요. 기념으로 말입니다. …》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감사해요.》

《알만합니다. 옥녀동무, 자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내 그림첩을 보여드릴테니 일요일을 같이 즐겁게 보냅시다.》

리철은 진정에 넘친 어조로 말했다.

옥녀는 도로 자리에 와서 앉았다.

리철은 트렁크에서 지금까지 그려본 그림종이들을 몽땅 꺼내다 옥녀앞에 내놓았다.

그들은 한동안 그림들을 놓고 자기의 견해들을 말하며 시간을 보내였다.

그림에 대한 이야기도 다 동이 나자 먼저 리철이가 흔연한 목소리로 옥녀에게 말하였다.

《옥녀동무, 우리 이제부터 고정일과를 짜놓고 생활을 규칙적으로 해보지 않겠습니까?》

《고정일과라니요?》

옥녀는 약간 놀라는 기색으로 리철이를 빤히 쳐다보았다.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과외시간을 어떻게 리용하겠는가 하는것을…》

《예, 알만해요. 반대없어요.》

《자, 그럼 소뿔은 단김에 뽑으라구… 짜봅시다.》

리철은 책상우에 종이장과 연필을 꺼내놓았다. 그리고 옥녀의 오른쪽 눈섭우에 있는 팥알만한 기미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이 뭘 그렇게 쳐다봐요? 어서 요일부터 쭉 쓰자요.》

《그럽시다. 옥녀동무의 그 기미가 아주 매력적인데요. … 참, 눈아래에 있는 기미는 눈물기미구 눈우에 있는 기미는 복기미라는 말이 있던데 옥녀동무는 복기미가 있으니…》

《그건 다 미신이예요. 눈아래에 기미있는 사람두 잘만 살던데요. … 창피해요. 어서 일과표나 작성하자요.》

옥녀는 연필을 리철의 손에 쥐여주었다.

《자, 그럼 월요일 저녁은 어떻게 보내잡니까?》

리철은 옥녀의 눈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옥녀는 종이장만 빤히 지켜보면서 말없이 생각을 굴리였다.

《월요일이라… 월요일엔 이 방에서 그림합평회를 합시다.》

《그렇게 하자요.》

《그저 좋다구만 하지 말고 건설적인 의견을 내놓으시오.》

《한주간 일과를 쭉 세워놓고 정정하자요.》

《자, 그럼 화요일엔…》

《화요일엔 저의 방에서…》

《답례방문을 하라는건가요?… 그러지 말고 화요일엔 탁구를 칩시다. 그리고 수요일엔 옥녀동무의 방을 답례방문합시다.》

《좋아요. 저의 방에 와서는 수놓은것을 합평하자요.》

《좋습니다. 그러니 목요일을 영화관이나 극장에 가는 문화의 날로 정해야겠군요.》

《토요일엔…》

《토요일엔 뭘 한다? 참 한주간에 한번씩은 목욕을 해야

지요. 세탁도 하구…》

《그게 좋겠어요.》

《일요일엔 어떻게 할가요?》

《등산이나 산보같은것을 하는것이 어때요?》

《그거참, 옥녀동무두 아주 정서적인데요? 그러구보니 한주간 계획이 다 선것 같은데 정정할것이 있으면 정정합시다.》

옥녀는 계획이 세워진 종이장을 쭉 훑어보았다.

《나는 반대가 없어요. 이대루 하는것이 좋겠어요.》

옥녀는 생긋 웃어보이였다.

리철이도 조용히 소리내여 웃었다.

그들의 속마음은 어떤것인지… 하지만 그들은 더없이 가까와졌다.

《구리단추》

부장은 원포조선소와 통신기계공장을 비롯한 주요공장들에 놈들의 파괴음모책동이 있을걸 예견하여 미리 방비대책을 다 세워놓았지만 옥녀가 있는 기계공장이 은근히 걱정되였다. 그리하여 그는 리철에게 각성을 높이라는 내용과 함께 패스맨이 《부나비》의 《금가락지》를 뽑아내기 위해 우리 몰래 또 새로운 인물을 들여보낼수 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일이 맹랑하게 되지 않도록 작전을 다그쳐야겠다는 편지를 보냈다.

리철은 옥녀의 덜미를 잡아 늘어지게 태를 쳐놓고 네년이 진짜 《부나비》인가? 공장폭파음모를 꾸며놓지 않았는가? 《금가락지》는 어데다 두었는가? 다짜고짜로 들이대면 어떨가 하고 생각했다.

어느덧 한주일이 지나갔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만큼 빨리 지나간 한주일간이였다. 일요일이였다.

리철은 옥녀를 기다리며 합숙방에 초조히 앉아있었다.

짠 일파표대로 오늘 그들은 어떤 계획을 하고있었던 것이다.

약속된 시간인 정각 7시에 옥녀가 리철이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리철의 응답이 있기 바쁘게 옥녀가 문을 열고 들어서면서 《준비 다 되였어요?》하고 물었다.

《갈가요? 오늘은 좀 멀리 갔다옵시다. 원포시 해수욕장에 가서 내가 그리는 그림을 옥녀동무가 좀 도와주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자요. 그러나 다음부터는 일요일등산계획을 전날에 나와 꼭 토론해야겠어요. 오늘은 길태동무의 계획에 전적으로 복종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등산을 멋지게 해보자고 했는데 식당에 걸어놓을 풍경화를 하나 그려달라고 식당아주머니들이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밥을 하루 세끼씩 먹으면서 그 청을 들어주지 않을수도 없구. 그런데 식당에선 시원한 바다풍경을 꼭 그려달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나는 원포시 해수욕장을 택하였지요. 그랬더니 식당아주머니들은 모두 좋다구 하면서 점심까지 아주 멋지게 싸주겠

다고 하더군요.》

《그래요. 그러면 일찌기 서두는것이 좋겠어요.》

《옥녀동무, 감사하오. 그런데 좀 기다려야 할것 같소. 점심밥을 가져다주겠다고 했으니까…》

《가져오면 아마 은혜가 가지고 올거예요. 참, 은혜가 어때요?》

《그 처녀말입니까?…》

《예.》

《그 동문 나의 눈치만 살피는데 참 모를 일이군요. 그러다가 나의 눈과 마주치면 〈옥녀언닌 안와요?〉 하고 생글거리지 않겠소.》

《그래 길태동문 뭐라고 대답하는가요?》

《뭐라고 할것 같습니까?》

리철은 하찮은 일이라는듯 옥녀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그러나 옥녀는 심중한 문제인데 자기의 물음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오히려 되묻는 리철이를 할깃 쳐다보았다.

그들의 눈길은 서로 마주쳤다.

《하하하…》

리철은 어이없이 웃었다.

순간 옥녀는 점직한 생각이 들면서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것을 느꼈다. 자기의 심정을 몰라주는 리철이 야속해보였다. 한편 리철이가 은혜에게 자기와 다른 그 어떤 련민의 정을 쏟고있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은근히 은혜를 시기하기도 했다.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옥녀가 문을 살짝 열었다.

《아이, 어서 들어오세요. 언니!》

점심을 가지고온것은 은혜가 아니라 식모아주머니였다.

점심밥그릇을 옥녀의 들가방에 집어넣고 그들은 방을 나섰다.

역에 도착한 리철이와 옥녀는 아침 9시 기차를 타고 원포시로 갔다. 계획대로 해수욕장에 도착한 그들은 오후 6시까지 다박솔이 우거진 곳에서 해수욕장을 그리는데 전력하였다.

옥녀는 리철의 잔심부름을 정성껏 들어주었다.

그들은 저녁늦게야 돌아왔다.

열풍에 시든 햇배추처럼 노근해진 옥녀는 침실에 들어서기 바쁘게 침대우에 쓰러져 꿈나라로 가버렸다.

이튿날.

식당에 걸 그림을 완성하느라 리철은 점심식사를 하는것도 다 잊고있었다.

이것을 눈치챈 옥녀는 저녁식사를 일찌기 준비하여가지고 리철의 방에 나타났다.

《정말 미안하오. 옥녀동무.》

《아이, 미안하긴. 그런데 배고프지 않아요? 몸이랑 좀 돌보면서 일하세요.》

옥녀의 말은 진정에 넘친것 같았다.

하지만 리철은 딴전을 피웠다.

《벌써 점심식사시간이 됐는가?》

《호호호… 어쩌문…》

옥녀는 한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그제야 리철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어이쿠, 저녁식사시간이 다 됐구만.》

《식사를 하세요.》

《그럼 점심겸 저녁식사…》
리철은 밥그릇을 끄당겨놓고 수저를 들었다.
옥녀는 돌아가려고 했다.
《참, 옥녀동무, 다리미가 있습니까?》
문고리를 잡았던 옥녀가 돌아섰다.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리미는…》
《아, 래일 군에서 미술가들의 회의가 있다기에 옷을 좀 다리자구요.》
《예, 알겠어요. 그런데…》
잡았던 문손잡이를 놓고 돌아선 옥녀는 《길태동문 벌써 주간일파를 헌신짝처럼 집어던졌어요.》하고 심사가 꿰진듯 볼부은 소리를 하면서 눈을 내리깔았다.
《참, 오늘이 월요일이지. 내 방에서 그림합평회를 할 날이군요. 합시다. 우선 옷을 다려놓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리였다.
《예, 누구십니까?》
리철은 출입문을 비스듬히 열고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회관 관리원아주머니가 수인사를 건늬고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관장동지가 래일 군에서 있게 될 강습때문에 토론할 문제가 있다고 좀 왔다가랍니다.》
관리원아주머니의 목소리는 옥녀의 귀에도 선명하게 들려왔다.
《알았습니다. 곧 따라가겠습니다.》
머리만 내밀었던 리철이가 문을 닫고 돌아서면서 불평조로 말했다.
《이제는 밤에도 오라가라 하면서 젠장, 옥녀동무, 잠간

실례합니다.》

리철은 안되였다는듯 옥녀에게 눈인사를 하고 저고리를 주섬주섬 주어입었다.

《옷은 념려마세요. 내가 다려드릴테니 갔다오세요. 옷은 어데 있는가요?》

《트렁크안에 있습니다.》

리철은 침대밑에서 트렁크를 꺼내려고 하였다.

그러다가 어줍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놔두십시오. 갔다와서 내가 다리지요.》

《길태동무…》

문고리를 잡고 나가려는 리철이를 옥녀가 불러세웠다.

《그사이 그럼 난 뭘하면서 길태동무의 방에 있겠어요. 제가 옷을 다려드릴테니 트렁크를 채웠으면 열쇠를…》

《괜찮습니다. 그림첩이나 뒤지면서 기다리시오.》

리철은 문을 열었다.

《길태동무…》

옥녀는 리철이를 다시 불러세웠다.

《어쩌문… 사람을 그렇게 믿지 못하구서야…》

리철은 주머니에서 트렁크열쇠를 내주면서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자, 그럼…》

《념려말고 어서 갔다오세요.》

리철은 방을 나섰다. 그가 복도를 걸어가는 소리가 더걱더걱 울렸다.

옥녀는 그 소리를 귀에 새기며 침대밑에 있는 트렁크를 끄집어내려고 하였다.

이때 리철이가 다급하게 걸어오는 발자국소리가 복도

에서 들려왔다.

침대밑을 들여다보던 옥녀가 마치 무엇을 훔치다가 들킨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서 출입문쪽을 지켜보았다.

리철이가 들어서면서 태연하게 말했다.

《가만, 어느 옷인지 알아야 다리지요. 내가 꺼내주고 가야지.》

침대밑에서 트렁크를 끄집어낸 리철은 그속에서 밑창에 깔려있는 회색양복을 꺼내놓았다.

《색갈이 좋군요. 됐어요. 내가 다려드려요.》

《그럼 좀 수고해주십시오.》

리철은 자물쇠를 채운 트렁크를 침대밑에 밀어넣고 나갔다.

리철의 발자국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에 출입문쪽을 주시하던 옥녀는 침대밑 트렁크를 들여다보면서 생각했다.

(트렁크속에 무슨 비밀이 있기에 그렇게 나를 경계할가?)

호기심에 끌려 침대밑을 들여다보던 옥녀는 다른 생각없이 트렁크를 끌어냈다.

결쇠질을 하여 열어보니 트렁크속에는 까만 면직옷 한벌, 와이샤쯔, 넥타이 그리고 내의류들과 양말이 깨끗이 포개여져있었다.

(녀자들처럼 잡동사니들은 없구나. 남자들은 다 이런가?…)

이런 생각을 하던 옥녀는 트렁크 제일 밑창에 비닐로 정히 싼 딴딴한 물건이 손에 마치는것을 느끼고 무심결에 그것을 꺼내들었다.

(무엇일가? 길태동무가 알아도 나무람하지 않겠지… 우

리들사이가 이제는 얼마나 가까와졌다구. 아니, 비밀에 속하는것이라면 모르는체 해야지…)

옥녀는 비닐에 싸고 또 싼 물건을 펼쳐보려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나 문을 열고 리철이가 방금 뛰여드는것 같아 옥녀는 출입문쪽에 힐끔 시선을 던졌다.

옥녀는 여러겹 꽁꽁 포개여 싼 비닐을 풀어헤쳤다.

손등에 감촉되던 딴딴한 물건은 두툼한 뚜껑을 한 노트였다. 노트갈피에는 리철이가 미술대학 학생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몇장 있을뿐이였다.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던 옥녀는 리철이가 다급히 뛰여들것만 같이 생각되여 사진을 노트갈피에 끼워넣고 비닐보로 되는대로 싸서 트렁크속에 집어넣었다. 그러던 옥녀는 파란 비누갑을 들고 열어보았다. 그속엔 갖가지 단추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깐깐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옥녀는 유별나게 눈을 끄는 노란 단추를 집어들었다.

순간 옥녀는 《앗!》하고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옥녀는 눈앞이 흐려지는것 같은감을 느끼며 손등으로 눈두덩이를 비볐다.

(이건 《흰》망의 망책이 소지하게 된 부적이 아닌가.)

옥녀는 《무궁화》망 명단을 넘겨받을 때 언젠가 이런 부적을 가진 《흰》망의 망책이 망합동문제를 건의해온적이 있었다고 하면서 《흰》망의 래력과 그의 조종자이며 상전인 패스맨에 대하여 그리고 패스맨과 가리도시의 유착관계에 대하여 알려주었다는 《범나비》의 말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창과 칼로 공산《빨갱이》를 쳐부시고 이 세상을 깨

끗하게 평정한다면서 패스맨의 지령에 따라 날치다가 《도마뱀》만을 남겨놓고 모두 저세상에 간 《흰》망…)

옥녀는 비누갑을 탁— 소리가 나도록 닫아버렸다. 그리고 내동댕이치듯 트렁크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하지가 나른해졌다.

두근거리던 가슴이 서늘하게 식으면서 무서운 환각과 엉뚱한 착각이 꼬리를 물고 거듭되였다.

(패스맨… 패스맨… 가리도시의 친구, 전쟁시기 가리도시를 도와 나를 여기로 파견한 바로 그 패스맨!)

그처럼 홍조만 어리던 옥녀의 얼굴은 금시 이그러지고 눈에선 파란 불이 일었다.

트렁크를 침대밑에 집어넣은 옥녀는 자기 방에 가서 다리미를 들고 돌아와 리철의 회색양복을 다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생각은 방금 있은 충격으로 하여 좀체로 진정되지 않았다.

(빨갱이놈들은 속여두 난 못속여! 미술가로 가장한 《흰》망의 망책! 식사시간까지 잊어가면서 열성을 내는척 하지만 흥, 패스맨도 가련하지… 《흰》망엔 유일하게 《도마뱀》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주길태가 《도마뱀》이고 《흰》망의 망책이란 말인가? 패스맨이 《도마뱀》을 망책으로 임명하고 그후에 망원들을 흡수했단 말인가? 믿을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혹시 《도마뱀》으로 가장한 안전원이 아닐가? 확인해보자! 그러면 대번에 얼굴에 드러날것이다. 가만, 그런데 《도마뱀》이 어데서 사는지 나는 모르고있지 않는가. 아, 분하구나. 정말 분하구나. … 어쨌든 나는 모르는체 해야 한다. 길

태앞에서 나의 처녀다운 순진성, 친절성을 변함없이 보여주어야 한다. 은근히 처녀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사내다운 길태, 공화국정부에 충실한 그에게 몸을 맡기고 그의 충실성의 큰 그림자밑에서 《무궁화》망의 《안녕》을 담보받으려던 나의 기대는 꺾어진것이 아닌가.)

사실 옥녀는 사람좋은 리철이를 《무궁화》망의 《안녕》을 담보할만한 미끼로 나꿔채려고 하였던것이다.

산이 높아야 그림자가 큰것처럼 공화국정부에 대한 높은 충실성을 가진 리철의 품은 훌륭한 안식처가 될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옥녀였다.

더우기 풍채좋은 그의 인품에 끌리는것을 어찌할수 없었던 옥녀였다.

복도에서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옥녀는 다리미줄을 사리면서 발자국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리철의 발자국소리가 분명했다.

리철이가 헐떡거리며 방문을 열고 들어섰다.

옥녀는 흠칫 놀라는척 하면서 문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옥녀동무, 정말 미안하게 됐소. 뭐, 신통한 결론도 주지 않으면서 공연히 시간만 끌구… 며칠 지내보니 관장은 관료주의자야. … 에익—》

리철은 씨근덕거리며 격분에 넘쳐 말했다.

《흥분했군요.》

《오늘저녁 옥녀동무와 약속한 그림합평회를 못할것 같아서… 이제라도 합시다.》

《아니, 그만두자요. 오늘은 어쩐지 피곤해서…》

옥녀는 량미간을 찌프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때문에 기분이 상했군요. 참, 옷을 이렇게 잘 다려줘서…》

침대머리에 잘 포개여놓은 의복을 쓸어만지며 리철이 말했다.

일요일에 있은 일

화요일이다.

공장에서 사라졌던 리철은 저녁에 옥녀의 방을 찾아갔다.

옥녀는 무궁화를 수놓고있었다.

《재간이 보통이 아닌데요? 마치 향기를 풍기는 생화를 보는 기분입니다.》

《이젠 끝났어요.》

옥녀는 긴 속눈섭을 치뜨고 리철이를 쳐다보며 평가를 내리라는듯 한 표정을 지었다.

《끝나다니요? 내보기에는 아직…》

《의견이 있으면 어서 말해보세요.》

옥녀는 리철의 얼굴을 천연스럽게 쳐다보았다.

《아, 벌써 합평회가 시작된 셈이군요. 무궁화라… 무궁화도 꽃이지요. 그러니까… 이거 말하기 좀 거북스러운데요… 상징적인것이지만…》

리철은 약간 얼굴을 붉히는체 했다.

《어서 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합평회를 하는게 아니예요.》

리철은 그제야 시치미를 뻑 따고 말했다.

《꽃에는 무엇이 따르던가요?》

《꽃을 따르는거야… 호호호…》

옥녀는 입을 싸쥐고 수집은듯 웃어댔다.

그러나 그의 눈은 위구와 공포로 하여 예리하게 번쩍이면서도 허둥거리는것이 알리였다.

이것을 감촉한 리철은 분위기를 될수록 화기에 넘치도록 만들면서도 역습과 정면공격을 능숙하게 들이댐으로써 옥녀로 하여금 발작증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리라 결심하였다.

《꽃을 따르는거야… 나비지요. 맞습니까?》

옥녀는 《나비》라는 말에 신경을 더 곤두세우고 리철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리철은 《허허…》하고 웃으면서 다른 기미를 차리지 못하도록 너스레를 피웠다.

《옛날에도 나비와 꽃을 가지고 남녀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리철의 얼굴엔 순박한 농촌총각과 같은 표정이 짙게 어리였다.

리철의 얼굴표정을 지켜보던 옥녀는 한숨 비슷한 긴숨을 내쉬였다.

《맞았어요. 꽃을 따르는거야 나비지요. 그러니 그 나비가 있어야 하겠단 말이지요?》

옥녀의 목소리는 어딘가 없이 가엾게 떨리였다. 옥녀는 리철이가 《나비》라는 말을 스스럼없이 끄집어낸것

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기의 비밀을 조금이라도 알고있기때문에 《무궁화》와 《나비》를 련결시킨것이라고 단정하였다.

《어쩐지 이 수에는 여백이 많구만요. 바로 여기말입니다.》

리철은 수의 빈 공간을 짚었다.

《여기말입니다. 나비를 새기려고 남겨놓은것 같군요.》

《난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요? 오늘은 합평회인것만큼 길태동무가 제기한대로 나비 하나를 여기에 수놓겠어요.》

옥녀는 색실을 꺼내들었다.

《그런데 나비가 한마리 더 있어야 어울릴것 같군요. 한마리는 꽃에 앉아있고 한마리는 꽃을 향해 날아오는것을…》

옥녀는 그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긍정했다.

《좋아요. 그렇게 하겠어요.》

《오늘은 이만합시다.》

리철은 의자등받이를 짚고 일어섰다.

《왜요? 벌써 피곤해서 그러는가요?》

옥녀는 의아한 눈길로 리철의 얼굴표정을 살폈다.

《아니요. 무거운 과제를 또 맡아놔서 그럽니다. 관장이 글쎄 미술가가 하나 생기니 일을 시켜먹지 못해 몸살이 나는 모양이군요. 그림이라는게 뭐 붓을 들었다놓으면 하나씩 척척 완성되는줄 아는 모양인지… 제기랄, 자리를 옮기던가 해야지.》

《길태동무 요즘 달라지는것 같애요.》

옥녀는 수를 놓으면서 리철의 눈치만 살피였다.

《그렇게 하지 않게 됐나 생각해보시오. 아래실정을 모

르면 관료주의가 나오는 법인데 그 사람이 내가 그림그리는데 한번 나타나보기나 하는줄 압니까? 내 원, 입이 쓰거워서…》

리철은 분을 삭이지 못해하는듯 손가락매듭을 딱딱 꺾었다.

《또 뭐라고 해요?》

일손을 멈춘 옥녀가 귀가 솔깃해서 리철의 다음말을 기다렸다.

《참, 기가 막혀서… 다른 사람들하구는 말하지 마시오. 내가 동무한테 푹 빠져서 자기 임무에 불성실하다는거지요.》

순간 옥녀의 생각은 복잡해졌다. 옥녀는 어쩐지 리철이가 거치장스러운 인물로 느껴지기도 하고 《도마뱀》으로 가장한 안전원처럼 느껴지기도 하였다. 방금 수예합평회를 하면서 나비문제를 스스럼없이 끄집어낼 때 자기의 정체를 알고있는 사람같이 보이기도 하고 지금 하는 말을 들어보면 무슨 연극을 꾸미는것 같기도 하였다. 이런 느낌은 특히 어제밤 그의 방에서 구리단추를 본 다음부터 더욱 그러했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위구심은 숨가쁘게 목을 조이였다.

옥녀의 봉긋한 가슴은 세차게 오르내리였다.

숨소리가 높아졌다.

이것을 감촉한 리철은 《자, 오늘 저녁은 이만합시다. 어쩐지 머리가 무거운게…》하고 옥녀의 방에서 나왔다.

옥녀는 리철이가 방에서 나간 후 자기의 상전인 가리도시의 지령을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자기의 신변에 위험한 인물이 나타나면 례외없이 즉시

처단해야 한다.》

옥녀는 단호한 결심을 내리였다.

지금까지 옥녀는 가리도시의 지령대로 자기의 신분을 가리워줄수 있는 충실한 《빨갱이》하고 결혼해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으로 리철이를 따랐던것이다.

그러한 옥녀였지만 일단 그가 거치장스러운 인물로 변하였으니 단호한 결심을 내려야 하였다. 하지만 옥녀의 생각은 일순간 돌변하였다.

(그는 나의 상전인 패스맨의 휘하에 있는 《흰》망의 망책이고 또 나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업자가 아닌가. 검토해야 한다. …)

그는 돌아오는 일요일에 자기의 결심을 집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에 옥녀를 찾아온 리철이가 먼저 해안가로 낚시질을 가자고 제기해왔다.

옥녀는 리철의 의견을 극구 찬양하면서 아양을 떨었다.

일요일이 되였다.

리철은 옥녀와 같이 천렵놀이를 할 준비를 갖추어가지고 25리쯤 되는 해안가로 떠났다.

리철이와 옥녀는 썰물때에도 물이 찰랑찰랑 고이여있어 망둥어잡이에 제격인 물곬에 자리를 잡았다.

바위돌이 듬성듬성 서있는데다가 아카시아나무들이 우거져 풍치도 여간 좋은곳이 아니였다. 바다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시큼한 해감내를 실어왔다. 아카시아잎새들이 설레이고 수풀속에서는 이름모를 새들이 청아한 울음소리를 냈다.

하늘엔 끝없이 부풀어오르는 리철의 마음처럼 호함지

게 핀 흰 구름송이가 둥둥 떠갔다.

리철은 푸른 공간에 가득찬 신선한 대기를 폐부가 부풀도록 들이켰다. 그리고 미끼로 가져온 명태를 토막내여 낚시에 낀 다음 바다물속에 집어넣었다.

옥녀는 코노래를 부르며 마른 삭정이를 줏고있었다.

그는 간지러울 정도로 아양을 떨며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도 하고 격에 맞지 않는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리철은 옥녀의 예리한 감시속에 있다는것을 온몸으로 느꼈다. 그러나 리철의 행동은 놀랄만치 자연스러웠다.

《물렸다—》

리철은 이렇게 소리치면서 낚시줄을 힘껏 잡아챘다. 그러자 큰 망둥어가 땅바닥에 떨어져 푸득푸득 뛰였다.

옥녀가 달려와서 망둥어를 두손으로 잡았다. 망둥어가 푸득거리며 꼬리지느러미를 좌우로 흔들었다.

《어마나—》

옥녀는 코꿰인 송아지눈을 해가지고 망둥어를 황급히 내던졌다.

《호하하… 망둥어한테 먹히우겠소.》

리철은 눈물이 나올 정도로 웃었다.

옥녀는 동정할대신 심사 꼬이게 비웃는 리철이를 아니꼽게 치떠보았다.

리철은 또다시 배를 그러안고 웃었다.

새침해서 돌아선 옥녀는 남비가 놓여있는 곳으로 어정어정 걸어갔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돌아서서 리철이에게 다가왔다.

《나두 낚시질 한번 해보자요.》

옥녀는 리철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고기는 심장이 약한 녀자들한테는 물리지 않을겁니다.》

리철은 낚시줄을 끄당겨 낚시에 걸린 망둥어를 뽑고 미끼를 꿰려고 했다.

《고기두 녀자들을 아는가 뭐, 인주세요. 보자요.》

옥녀는 리철이앞에 손을 내밀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시우.》

리철은 낚시대를 옥녀한테 넘겨주었다.

옥녀는 낚시를 물속에 집어넣고 이제나저제나 하고 망둥어가 물리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아무런 기미도 없었다. 조바심이 난 옥녀는 물속만 뚫어지게 들여다보았다.

《자, 채시오.》

리철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옥녀는 낚시대를 뒤로 나꾸어챘다. 그러나 미끼를 떼운 낚시만 갑삭하게 들리였다.

《보시오. 고기도 녀자를 얼마나 잘 알아맞히는가. 공연히 미끼만 떼웠군요. 이리 주시오.》

리철은 낚시대를 넘겨받아 미끼를 끼운 다음 다시 물속에 집어넣었다.

《물렸어요.》

낚시를 집어넣기 바쁘게 옥녀가 소리쳤다.

리철은 덤비지 않고 낚시대를 들어보았다. 미끼를 통채로 집어삼킨 망둥어가 데룽데룽 매달려있었다.

《보시오. 얼마나 통쾌합니까?

옥녀동무, 보조를 맞추어주시오. 내가 잡은 고기의 밸을 따시오. 대가리도 잘라버리구… 그리고 저 남비에 넣고 부글부글 끓이시오.》

옥녀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리철은 낚시를 물에 집어던지며 휘파람을 휘휘 불었다.

옥녀는 씨근거리며 리철이가 잡아낸 고기의 밸을 따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퍼그나 흘렀다. 그러나 그사이에 둘은 한마디의 말도 서로 하지 않았다.

적지 않은 망둥어를 잡아낸 리철은 마른 삭정이를 한아름 꺾어다주었다.

큰돌을 《ㄷ》자형으로 놓고 그우에 망둥어가 담긴 남비를 올려놓은 옥녀는 마른 삭정이에 불을 지폈다.

탁탁 불찌를 튕기면서 삭정이가 불붙기 시작했다. 한참후엔 남비가 끓기 시작했다.

끓는 남비를 가운데 놓고 마주앉은 리철이와 옥녀는 서로 자기의 생각만을 굴리고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미묘해진 분위기는 풀리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은 약속이나 한듯 마주 쳐다보았다.

리철이 먼저 살뜰한 어조로 말을 떼였다.

《옥녀동무, 오늘은 내가 동무를 알게 된 이후 아무때에 가서도 꼭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한것을 얘기하겠는데…》

《얘기하세요. 어쩐지 파도소리와 바람소리만 귀전을 때리는게 고독하군요.》

그러면서 옥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였다.

(나의 정체를 발가놓으려고 접어든 안전원이 아닐가? 아니면 《흰》망의 망책으로서 나를 자기 망에 흡수하려는것이 아닐가?…)

옥녀는 무슨 심중한 말을 하려는듯 입술을 오물오물 하였다.

리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옥녀동무, 나의 사업을 방조하지 않겠소. 그러면 나는 동무를 일생 호의호식하게 해주겠소.》

《그건 무슨 소리예요?》

《옥녀동무, 하여간 나의 물음에 답변해주오. 일생 나의 사업을 자신의 사업처럼 방조해주지 않겠소?》

《그 사업이란 그림그리는건가요?》

《그보다 나에겐 더 중요한 사업이 있소.》

《원대한 포부라도 품은 모양이군요.》

《그렇소!》

《방조해주겠어요.》

《감사하오, 옥녀동무! 정말 감사하오! 오늘은 내 진심을 말하겠소.》

리철은 옥녀의 곁에 바싹 다가앉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옥녀동무, 놀라지 마오. 나는 옥녀동무를 믿기때문에 진심을 말하는것이요. 나에겐 저쪽에서 받은 중대한 임무가 있소!》

순간 옥녀는 와뜰 놀라며 뒤로 물러앉았다.

《저쪽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나는 미중앙정보국 남조선주둔 특별고문 패스맨으로부터 이 북조선에 오래동안 잠입하여있는 〈흰〉망의 망책으로 임명받았소.》

《길태동무, 롱담은 그만하세요.》

《아니요. 이런걸 어떻게 롱담으로 말하겠소? 나는 진실을 말했소.》

《길태동무는 그럴수 없어요. 그것을 나에게 무엇으로

증명할수 있어요?》

《자, 이래도 나를 믿지 못하겠소?》

리철은 가슴안주머니에서 구리단추를 꺼내여 옥녀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건 〈흰〉망의 망책이라는것을 증명하는 부적이요.》

그것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던 옥녀는 비명같은 소리를 질렀다.

《무서워요. 난 길태동무가 그런줄 몰랐어요.》

옥녀는 지어 입술까지 바르르 떨면서 뒤걸음질쳤다.

《옥녀, 말하오. 어떻게 하겠소. 나의 방조자로 일생을 살겠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리철은 엄포를 놓았다.

《길태동무, 지금은 더 말하지 말아요. 심장이 막 터질것 같아요.

길태동무, 남비를 보세요. 넘어가겠어요.》

리철이 남비를 바로잡으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옥녀는 가슴에서 시커먼 물건을 꺼내들었다.

리철은 그것이 권총이라는것을 감촉하였지만 태연하게 옥녀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옥녀, 그따위는 어디서 주어가지고 다니오. 집어던지오. 아이들 장난감같은것을 다 가지구 다니면서…》

《손들엇! 나는 안전원이다!》

옥녀의 표독스런 눈에서 파란 불이 일었다.

《사람 웃기지 마오.》

리철은 여전히 태연한체 하였다.

그러나 옥녀는 악에 받친듯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말말고 돌아섯!》

그때 리철은 슬쩍 남비를 발로 건드려 넘어뜨렸다. 남비에 담겼던 고기와 물이 쏟아져 불과 뒤범벅이 되면서 시커먼 먼지와 김이 확― 솟구쳐올랐다.

순간 옥녀도 거기에 눈을 팔았다.

때를 노린 리철은 권총을 잡은 옥녀의 손을 불이 번쩍나게 올리쳤다.

권총이 저만치 땅에 나가떨어졌다.

리철은 옥녀에게 달려들어 가느다란 팔을 으스러지게 잡았다.

옥녀는 비명을 지르며 죽는 시늉을 하였다.

《더러운 년, 네가 안전원인줄은 미처 몰랐다. 오늘 내 앞에서 불고기가 돼봐라, 이년!》

리철은 옥녀의 팔을 사정없이 비틀었다.

옥녀는 숨이 당장 넘어가는듯 소리치면서 그래도 살아보려고 악을 썼다.

《〈빨갱이〉들한테 떼운 아버지의 기름진 땅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

옥녀는 모진 아픔속에서도 이 말을 선명하게 들었다.

리철은 비틀어잡았던 옥녀의 팔을 놓고 땅에서 권총을 집어들었다.

옥녀는 땅바닥에 풀썩 주저앉았다.

《내 오늘 네년을 껍데기를 벗겨 죽일테다!》하고 리철은 철거덕 권총을 장탄했다.

《잠간만, 길태씨.》

기겁을 하여 벌떡 일어선 옥녀가 손을 내저으며 애원했다.

《길태씨, 쏘지 말아요. 당신이 나를 죽이면 편안할것

같아요? 나의 뒤에는 가리도시와 패스맨이라는 두 상관이 있어요.》

《이년이 금시 안전원이라구 큰소리치더니 뭐 어쩌구 어째? 이년, 방정맞게 나의 상관은 왜 함부로 건드리는 거야! 이년, 너 안전원이지?!》

《길태씨, 당신은 나를 몰라요. 패스맨은 당신의 상관이지만 나의 상관도 돼요. … 내 말을 들어보세요. 패스맨과 가리도시는 보통 막역한 사이가 아니지요. …》

《이년이 점점 한다는 소리가 패스맨을 어떻게 보구 하는 소리야?》

《길태씨, 알아보세요. 패스맨에게 알아보세요. 난 〈무궁화〉망의 망책 〈부나비〉예요. 이쯤하면 당신은 나를 믿어두 랑패가 없을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동업자가 아니예요?》

옥녀는 피발이 선 눈동자를 뱅글뱅글 굴리면서 리철이를 쳐다보았다.

《이년, 나를 꾀여가지고 잡아먹자는거지? 교활한 년!》

《아니예요. 나는 〈무궁화〉망의 망책이고 나의 상관은 황군첩보장교였던 가리도시예요. 그런데 패스맨은 나의 상관인 가리도시와 아주 친한 사이이지요.》

《야, 네가 〈무궁화〉망의 망책이라는것을 어떻게 증명해?!》

《나의 팔을 보아요.》

옥녀는 팔을 내밀었다. 거기에는 50전짜리 돈의 크기만한 무궁화가 새겨져있었다.

《이건 〈무궁화〉망의 망책이라는것을 의미하는거지요. 망책인 나에게는 망의 명단이 들어있는 귀중품도 있

지요.》

《그걸 보지 않고 내가 당신을 믿을수 있는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몸에는 없어요.》

《그럼 어데다 두었는가?》

《당신도 〈흰〉망의 망책인데 내가 당신에게 〈흰〉망의 명단을 대라고 하면 그렇게 서슴없이 내대겠어요?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은 내놔도 내놓을수 없는것이 바로 망원명단이라고 볼수 있지 않아요?》

옥녀는 점점 도도하게 나올 심산으로 이렇게 주어댔다.

그러나 리철은 계속 강경하게 들이댔다.

《흥, 교묘한 술책으로 업어넘길 생각은 하지도 말아. 여하튼 네가 〈무궁화〉망의 망책이라는것만 증명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가차없이 쏴버리겠다.》

《아, 길태씨, 나를 믿어주세요. 그렇게 다정하고 상냥하던 길태씨는 어디 갔어요.》

옥녀는 눈웃음을 살살 치며 리철의 다리를 부여안고 눈물을 흘렸다. 잠시 그를 내려다보던 리철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소. 그러면 당신을 〈무궁화〉망의 망책이라고 인정하겠소. 그러나 나의 요구조건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겠소.

첫째, 당신은 나의 방조자가 되여야 하겠소.》

《당신의 안해는 될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망이 있는것만큼 결코 방조자로는 될수 없어요.》

《좋소. 그럼 둘째로, 당신의 망을 나의 망과 합쳐야 하겠소.》

《저, 그건 생각할 여유를 줘야 하겠어요.》

《그러면 언제 결론을 줄수 있는가?》
《다음번 일요일에 주겠어요.》
《담보하는가?》
《담보해요. 믿어주세요.》
《장소는 여기로 합시다. 자, 받으시오. 앞으로는 흉기를 내흔들지 마시오.》

격 투

머리를 빗기 위해 경대앞에 다가앉은 옥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망을 합치잔 말이지? 가리도시는 무전을 통해 《도마뱀》이 그런 건의를 해올수 있는데 그땐 겉으로는 동의하는척 하면서 밸까지 뽑아주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형식상으로도 망합치는 놀음을 하면 망책은 누가 한단 말인가?)
옥녀는 거울에 비친 이그러진 얼굴을 들여다보며 입을 비쭉거리였다.
(주길태, 교활한 놈. 내가 고분고분하지 않으면 죽일수도 있지 않을가?)
일요일 아침이였다.
옥녀는 마음을 다잡고 약속된 해안가로 떠날것인가 좀 있다가 갈것인가 하고 망설이였다. 그런데 막상 리철이를 해치자고 하니 마음이 불안했다. 숨이 컥 막히고 진

땀이 온몸에 뿌지직 내돋았다. 옥녀는 창문을 열어젖히였다.

멀리서 스적스적 걸어오고있는 리철이가 눈에 띄였다.

현관문이 여닫기는 소리가 들려왔다.

옥녀는 제꺽 문을 열고 현관쪽으로 걸어가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리철은 불의에 나타난 옥녀가 너무도 깍듯이 인사를 하는 바람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먼저 가세요. 나는 파장이 찾아서 잠간 들렸다 가겠어요.》

《알았습니다.》

리철은 옥녀와 헤여져서 바다가로 나갈 준비를 갖추었다.

머리를 빗고 식당에 가서 식사를 마친 옥녀는 기술부사무실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일요일날까지 오라가라 하면서 이 야단이야.)

옥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누가 자기의 일거일동을 감시하면서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것만 같아 부지런히 걷기만 했다. 설계파장앞에 나타나서는 해죽해죽 웃으면서 될수록 그의 눈에 들도록 행동하였다.

이렇게 하는것도 가리도시가 준 지령을 수행하는것이다.

《옥녀동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설계파장은 어제 옥녀가 그린 설계도면을 앞에 내놓았다.

설계도면을 들여다보던 옥녀는 가슴이 섬찍했다.

이번의 설계도면은 일반공작기계가 아니라 ××공장에서 의뢰하여온 특수기계의 설계도면이였다.

옥녀는 될수록 사소한 흠집도 없게 책임적으로 하여 신망을 얻으려는 야심밑에 사도하였던것인데 일이 이렇게 되고보니 맹랑하기 그지없었다.

과장은 자책의 빛이 어린 옥녀의 얼굴을 지켜보며 조용히 타일렀다.

《앞으로는 이런 오사도현상이 없도록 해야 하겠소.》

《알았어요. …두번다시 그런 일이 없을거예요.》

《자, 가보오. 일요일아침에 이렇게 불러서 안됐소.》

파장의 방을 나선 옥녀는 자기 방에 들려 준비를 면밀히 갖춘 다음 약속된 바다가로 나갔다.

리철이는 전번 일요일에 왔던 그 바다가에서 배포유하게 낚시질을 하고있었다. 그가 잡은 망둥어들은 모래불우에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낚시질에만 정신이 팔린듯 한 리철의 뒤로 웬 사나이가 조용히 다가가고있었다.

리철의 신경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낚시질에만 옴하는체 하였다. 그런데 리철은 사나이가 서너발자국 뒤에 왔음직할 때 낚시대를 힘껏 뒤로 채면서 《또 잡았다.》하고 소리쳤다.

순간 비수를 몸뒤에 감추고 다가서던 사나이가 깜짝 놀라 뒤걸음질치며 사색이 되여 어쩔바를 몰라했다.

리철은 조개턱사나이의 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것을 대뜸 알아차렸다.

어쩐지 바다가에 차디찬 기운이 돌고 신경이 고도로 예

민해졌다.

(옥녀가 나타나기전에 왜 이놈이 나타났을가?)

리철이 잠간 기억을 더듬는 사이에 그의 옆에 가까이 다가선 사나이는 벌써 시퍼런 비수를 뽑아들었다.

순간 리철은 몸을 홱 날리면서 비수를 든 놈의 손을 세차게 올리쳤다.

한찰나였다.

비수가 첨버덩 물속에 떨어졌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굴러온 망나니야?》

리철이가 이렇게 으름장을 놓으며 태연하게 서서 쏘아보는데 사색이 된 사나이는 바위뒤에 몸을 숨기였다.

이때 옥녀가 리철의 몇발자국앞에서 쓴웃음을 지으며 나타났다.

리철은 옥녀의 배포유한 행동을 보고 놀랐다.

그런데 옥녀가 나타나자 주인을 만난 수캐마냥 사나이는 바위뒤에서 또 일어나는것이 아닌가.

순간 사나이의 등뒤에 된타격을 안기며 나타나는 또 한 사나이가 있었다.

조개턱사나이는 예상치 않았던 타격을 받고 푹 꺼꾸러졌다.

《악—》

이때 옥녀의 자지러지는 비명소리가 울리였다.

리철이에게 덤벼들려던 옥녀가 또 불쑥 나타난 한 사나이의 타격을 받고 주저앉으며 비명을 지른것이다.

부장이 파견한 경수상위와 인하중위였다. 이들은 망나니처럼 앞섶을 풀어헤친 잠바에 새까만 색안경을 끼고있었다.

너부러졌던 사나이와 옥녀는 한참만에야 꿈지락거리며 일어나앉았다.

이때 경수상위가 헌헌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두령님, 이자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경수의 말이 끝나기 바쁘게 눈치빠른 인하중위가 또 한마디 주어섬기였다.

《두령님, 이 망둥어보다 더 미련한것들하구 망을 합치자구 그러십니까?

두령님, 그만둡시다. 공연히 우리 일을 망치겠습니다.》

《야, 너희들이 뭘 안다구 주제넘게 참견하는거야. 썩 비키지 못해!》

리철은 놈들이 들으라는듯 호통을 쳤다. 그러자 경수와 인하는 굽석거리며 한쪽옆으로 물러섰다.

땅바닥에 일어나앉은 옥녀의 머리는 복잡하였다.

아침부터 불안하던 가슴이 이 지경에 이르니 막 터질것만 같았다. 리철이를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큰 경을 칠것 같았다.

리철이를 해치려던 자신이 민망스러웠다. 유일한 길은 리철이와 화해하는 길밖에 없었다.

사나이는 옥녀옆으로 기신기신 기여왔다.

《비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랭랭한 옥녀의 목소리에 흠칫 놀란 사나이는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비실비실 물러났다.

리철이 범상한 투로 한마디 하였다.

《옥녀, 이거 미안하게 됐소. 나는 이렇게 하길 바라지 않았는데…》

《난 길태씨를 해하자고는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용서해요.》

옥녀는 인하중위가 적당히 타격을 가한 탓으로 인차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앉았던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의견이 없소. 검토가 되였단 말이지. 그래 옥녀씨는 어떻게 하기로 결심하였소?》

리철은 상의 안주머니에서 망원명단이 들어있는 종이쪽지를 꺼내들었다.

《우리 〈흰〉망 명단이요.》

옥녀도 웃으면서 일어섰다.

《나도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우리 〈무궁화〉망의 명단이예요.》

옥녀에게서 망원명단을 받아든 리철은 망원들의 이름과 그들이 거처하고있는 주소를 쭉 훑어보았다.

12명의 이름이 적혀있었는데 알만한 놈은 한놈도 없었다.

《이것이 다요?》

《다예요.》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소. 망원명단이 들어있는 귀중품이 있다고 하지 않았소. …》

《길태씨, 그 귀중품에 대해서는 널리 리해해주세요. 거기에 들어있는 망명단을 그대로 적어온것이예요. 진심이예요. 내가 〈무궁화〉망의 망책이라는것을 이 팔을 보고 확인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세요. 때가 되면 그 귀중품을 꼭 보여드리겠어요. 믿으세요.》

리철은 양보하는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의심을 사게 할수 있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망을 합친 조건에서 이름은 〈흰무궁화〉망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옥녀씨, 망원명단을 철저

히 간수해야 하겠소.》

《걱정하지 마세요. 나에겐 아주 훌륭한 보관장소가 있어요. 오히려 길태씨가 걱정되여요. 그리고 오늘 한가지 조언을 주겠는데 길태씨는 트렁크를 너무 로출시켰어요.》

《나는 그렇게 하는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하여간 옥녀씨의 조언을 참작하겠소.》

《우리는 자리를 먼저 뜨겠어요.》

옥녀는 목례를 하고 돌아섰다.

《잠간만.》

옥녀를 돌려세운 리철은 경수와 인하를 보고 소리쳤다.

《야, 너희들은 저리 비켜!》

경수상위와 인하중위가 리철의 말에 굽석거리며 어정어정 물러났다.

《나는 어제 패스맨으로부터 〈무궁화〉망과 합치는데 동의한다는 결론과 함께 아주 중요한 조언을 받았소.》

이건 리철이가 꾸며낸 말이였다.

《그게 무엇이예요?》

《패스맨각하는 당신의 〈무궁화〉망 명단이나 우리 〈휜〉망의 명단을 노리는자들이 있을수 있으니 특별히 경계해야겠다고 했소.》

《고마와요.》

《나도 주의해야겠다고 생각했소. 우리는 어제 남쪽에서 침투된 한 사람과 접선했는데 그는 우리 〈휜〉망의 명단과 당신네 〈무궁화〉망의 명단을 가로채기 위해 들어온놈이라는것을 알아냈소.》

이것도 옥녀가 《금가락지》를 정확히 가지고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리철이가 꾸며낸 말이였다.

《뭐예요?》

옥녀의 눈은 왕사발처럼 커졌다.

《그놈을 보여줄가요?》

《그만두세요. 그따위 악당놈과 무엇때문에 만나요? 그래 그자를 살려두었단 말이예요?》

《〈무궁화〉망의 망책과 만날 의향이 있다기에 살려두었소.》

《필요없어요. 난 필요없어요.》

옥녀는 몸을 떨었다.

리철은 이 몇마디의 담화속에서 옥녀가 아직 그 어떤 자와도 접선한것이 없으며 만날 의향도 없다는것을 느꼈다. 이것은 옥녀가 망명단이 든 《금가락지》를 고수하고있다는 증거였다.

《알겠소. 그놈은 우리가 적당히 처리하지요.》

옥녀는 가버렸다.

경수와 인하가 리철이한테로 달려왔다.

《상위동지, 중위동지, 정말 감사합니다.》

리철은 경수와 인하의 손목을 잡고 눈물이 찔끔 나오도록 기쁨에 넘쳐 말했다.

《잘했소. 난 리철동무가 일을 그렇게 주도적으로 처리하리라고는 미처 생각 못했소. 내 생각이 너무 짧았댔지.》

경수상위가 리철의 손을 꽉 잡고 말하였다.

《상위동지, 부장동지에게 이 망원명단을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도미꼬년이 〈부나비〉라는것을 다시한번 확증하였는데 이제는 〈제2작전〉으로 넘어가겠다는 저의 결심을 전해주십시오.》

리철은 옥녀에게서 넘겨받은 《무궁화》망 명단을 경

수앞에 내밀었다.

경수는 망명단을 도로 내밀면서 말했다.

《동무의 결심을 부장동지에게 전하겠소. 이 명단은 리철동무가 건사하오. 우리는 한통 써가지고 가겠소. 엉터리명단일것이요. 그년이 자기 망의 명단을 그렇게 쉽게 내놓을수는 없소. 하여간 부장동지에게 전합시다. 부장동지는 이 명단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줄게요.》

《알았습니다. 참 요즘 부장동지랑 두성대위동지랑 다 잘 있습니까?》

《잘 있소. 대위동지는 〈제2도미끄〉때문에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있소.》

《〈제2도미끄〉가 보채는가요?》

《제2도미끄》라는 말이 나오자 리철은 제꺽 이렇게 물었다.

《보채다마다. 그년은 남 다 자는 재밤중에 녕월의 가짜묘까지 파보았소.》

《그렇다면 〈범나비〉가 죽지 않았다는것을 알았을게 아닙니까?》

《그렇소.》

《상위동지, 그렇다면 칠녀년은 물론 옥녀년이 더 미쳐날뛸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장동지는 그렇게 되리라 예견했소. 이제 긴급대책이 설거요.》

《상위동지, 그럼 모두에게 저의 인사를 전해주십시오.》

경수와 인하가 멀리 사라질 때까지 리철은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서 생각에 잠겨있었다.

약 속

이틀후였다.

리철은 부장으로부터 옥녀가 넘겨준 《무궁화》망 명단에 있는자들을 다 료해하여본데 의하면 가짜라는것과 《제2작전》으로 넘어가도 좋다는 동의를 받았다.

리철은 침대에 누워 명상에 잠겨있었다.

(《금가락지》를 어데다 두었을가?)

리철은 방에서 나와 옥녀의 방 출입문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옥녀는 저녁 7시차에 원포시로 출장간다고 하면서 점심때 리철이를 찾아왔던것이다.

옥녀의 방에 들어선 리철은 안으로 출입문을 걸고 달빛이 교교한 방안을 둘러보았다. 방안은 쥐죽은듯 괴괴하였다. 일순간 방 어느 구석에서 무엇이 뛰쳐나올것만 같았다. 리철은 숨을 죽이고 이미 눈에 익혀둔 방안의 가구들을 달빛속에서 분간해보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망명단을 어디에 두었는가 물었을 때 자기에겐 아주 훌륭한 보관장소가 있다고 하던 옥녀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곳이 어디인지 추측할수 없는것이 안타까왔다. 방안인지 바깥인지 사람들의 눈길을 끌수 있는 곳은 아니리라 생각되였다. 누구도 생각이 미치지 못할 그 어디

에 은밀하게 감추어놓았을것이였다.

리철은 먼저 트렁크 두개를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한번도 입어보지 않은 양복, 옥녀가 외출할 때에 입던 풀색 달린옷을 비롯하여 속옷들이 차곡차곡 개여있었다.

《금가락지》는 없었다.

리철은 전지불을 침대밑에 비쳐보았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었다. 리철은 무슨 손이 간 흔적이라도 없는가 하여 유심히 살펴보았다. 하지만 그런 흔적은 없었다. 리철은 천천히 전지불을 옮겨갔다.

이번에는 전지불이 멎은 책상우에 대록거리는 배불뚝이 오또기가 놓여있었다.

리철은 오또기를 들어보았다. 인형속에서 무엇이 덜그렁거렸다.

리철은 인형을 빙빙 돌리며 전지불에 비쳐보았다. 인형중심잡이 고정쇠가 떨어져 그것이 흔들거리면서 신경을 돋구었던것이다. 인형을 도로 제자리에 놓고 전지불을 또 다른 곳에 비쳤다. 불빛이 멎은 곳은 옥녀의 침대였다. 한쪽에 이불과 베개가 놓여있었다. 리철은 무심결에 이불밑에 손을 쑥 밀어넣었다. 순간 그의 손끝에 굳은 물체가 닿는것을 느꼈다.

(무엇일가?)

리철은 이불을 들어보았다.

이불밑에 진주조개껍질로 정교하게 문양을 돋친 고급수공품 과자통이 있었다.

리철은 뚜껑을 열었다. 그속에는 무궁화와 두마리의 나비를 수놓은 천외에 다른것은 더 없었다.

리철은 긴 숨을 내쉬며 침대우에 걸터앉았다.

옥녀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금가락지》를 그처럼 쉽사리 발견할수 있게 두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한가닥의 희망을 은근히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리철은 경대앞에 있는 분통위치를 약간 옮겨보았다. 그러나 역시 아무 소득이 없었다.

옥녀의 방에서 나온 리철은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고 자기 방에 돌아왔다. 창문을 비스듬히 열어놓은 리철은 출입문 자물쇠를 잠그지 않고 정거장으로 나갔다. 리철은 계획대로 0시 30분 렬차를 타고 원포시로 향하였다.

이튿날 오후였다.

원포시에서 돌아온 옥녀는 과장한테 출장결과를 보고한 다음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외출복을 벗어놓은 옥녀는 침대에 걸터앉아 방금 비밀련락장소에서 가지고온 쪽지를 펼쳐보았다.

《녕월의 묘를 파본데 의하면 가짜였음. 안전부에 체포된것이 분명함.》

옥녀의 얼굴은 일시에 새까매졌다.

(그렇다면 모든걸 다 불었을게 아닌가? 아 그렇다면?…)

불안과 공포속에 헤매이던 옥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흩어진 머리를 쓸어올리고 수건에 주전자의 물을 쏟아 얼굴을 문질렀다. 그리고 경대앞에 다가앉아 화장을 하기 시작했다.

분통을 들려고 하던 옥녀는 불에 덴것처럼 손을 분통에서 흠칠 떼더니 그것을 한참 지켜보았다.

분통위치가 변했던것이다.

일순간에 온몸이 화락하니 젖어드는것 같은감을 느낀 옥녀는 넋없이 주위를 살펴보았다.

방안의 모든것이 자기 위치에 있지 않고 자리를 옮겨 앉은듯한 환각이 눈앞에 펼쳐졌다.

생각없이 자기 방을 뛰쳐나온 옥녀는 리철의 방 출입문을 똑똑 두드렸다.

잠잠하였다.

전같으면 손기척이 있기 바쁘게 《들어오시오.》라고 했을 리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옥녀는 미심결에 출입문을 당겨보았다. 문이 열리였다.

옥녀는 제꺽 머리와 몸을 반쯤 방안으로 들이밀고 살펴보았다.

선선한 바람이 귀밑을 스쳤다.

옥녀는 창문이 비스듬히 열려져있는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문을 쾅— 하고 닫은 다음 자기 방으로 뛰여들어왔다. 출입문에 기대여선 옥녀의 가슴은 몹시 활랑거렸다.

(어떤놈의 작간일가? 나의 방만 아니라 길태의 방에도 침입하지 않았는가. 안전원들이? 아니야. 안전원들이 이처럼 어리석게 놀수야 없지 않은가. 그러면 도적이?…)

옥녀는 급히 트렁크를 뒤져보았다. 값진 물건들은 그냥 있었다.

(도적은 들지 않았어. 이건 분명 길태에게서 의심스러운 기미를 챈 안전원들이 무슨 단서라도 쥐려고 한짓이야…)

이런 생각을 굴리던 옥녀는 잠시후에 머리를 설레설레 저었다.

리철이를 빨리 만나보고싶었다. 그러나 리철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오후에는 출근하지 말고 휴식하라는 지시를 받은 옥녀였

지만 휴식은커녕 오만가지 생각으로 가슴을 앓았다. 옥녀는 저녁식사시간이 되여서야 먹고싶은 생각이 없었으나 식당으로 갔다.

은혜가 예나 다름없이 생글생글 웃으며 다가왔다.

《언니, 어데 편찮아요?》

머리를 갸웃하고 옥녀의 공포에 질린 눈을 살피면서 은혜가 물었다.

《아니－》

옥녀는 내리깔았던 눈을 치뜨면서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그럼 누구한테 욕을 들었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밥이나 빨리 갖다주렴.》

《예. 잠간만 기다려요.》

치마자락에 바람을 일구며 취사장으로 씽하니 들어갔던 은혜가 잰걸음으로 밥과 찬, 국그릇을 가져다 앞에 차려놓았다.

《길태동무가 어쩬지 보이지 않는구나.》

옥녀는 밥그릇을 당겨놓으며 슬쩍 한마디 건네였다.

《어제밤 원포시에 출장갔어요. 아마 저녁차로 올거예요. 9.9절을 맞으며 길태동무가 그리는 그림이 있는데 도에서 심사한대요. 합격되면 중앙에 올려보낸다나요? 그러니 길태동무는 지금 막 급해날거예요.》

《넌 그런걸 어떻게 그렇게두 잘 아니?》

옥녀는 은혜를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생글생글 웃는 그의 천진란만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은혜는 옥녀의 눈길에서 이상한 감촉을 느꼈지만 여전히 한떨기의 꽃처럼 예쁘장한 얼굴에 웃음을 담고 말

하였다.

《식당은 공장의 그 어느 직장과도 다 련결되여있으니깐요. 식사하러 와서는 안하는 얘기가 없지요. 그러니… 그럼 식사를 다 들어요.》

은혜는 나비처럼 취사장으로 사라졌다.

모래알 씹는 기분으로 밥을 몇술 뜨던 옥녀는 맹물만 한사발 들이키고 침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다시 의문과 공포의 함정속에서 가슴을 조이며 시간을 보내였다.

이때 리철이가 합숙현관쪽으로 걸어왔다.

그를 발견한 옥녀의 마음은 다소 안정되였다.

리철이한테 쏠리는 마음을 옥녀는 어찌할수 없었다.

그를 경시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그가 가까이 있으면 산란하던 마음이 다소 안정되는것을 어찌할수 없는 옥녀였다. 더우기 한날한시에 똑같이 수색을 당한 처지를 생각하는 지금에는 더욱 그러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옥녀는 전자석에 끌리는 철편처럼 리철의 방 출입문앞으로 다가가서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시오.》

리철의 응답이 있기 바쁘게 옥녀는 문을 열고 황급히 방안에 들어섰다.

리철은 들어서는 옥녀를 힐끔 쳐다보고는 이상하다는듯 고개를 기웃거리였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옥녀는 태연하게 물었다.

《도적이 든 모양이요.》

《뭘 보구 그래요.》

《자물쇠를 잠그었는데 열렸지, 창문도 보십시오. 분

명히 걸었댔는데…》

《물건들이 다 있는가 보세요.》

그제야 리철은 침대밑에서 트렁크를 끄집어내여 옷가지들을 두루 살펴보았다.

《도적놈도 량심이 있는 놈이였군. 가져간건 없구만.》

리철은 이렇게 배포유하게 말하면서 옥녀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왜 없어진게 없다고 그래요?》

옥녀는 자기를 속이는 리철이가 얄미웁다는듯이 눈을 할기죽거렸다.

《없어진게 없는데… 옥녀씬 뭘 보구?》

리철의 말이 끝나기도전에 옥녀가 대답하였다.

《그것이 없지 않아요. 바로…》

《바로 그것이라니?》

《있잖아요… 그…》

《허허, 옥녀씬 뭘보구 그러오?》

《길태씬 정말 경각성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서야 어떻게 원쑤와 싸우겠어요?》

《옥녀씬 뭘보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난 원쑤와 싸울 준비가 언제나 되여있소. 결코 원쑤와의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것이요. 원쑤놈들을 완전히 소탕하는 그날까지 나는 무자비할것이요.》

리철은 입술을 부르르 떨었다.

옥녀는 가소롭다는듯이 피씩 웃고나서 야유조로 말하였다.

《기고만장한 소리 그만해요.》

하지만 리철은 옥녀의 말을 탓하지 않았다.

《원쑤가 교활하면 나는 그보다 한수 더 뜰것이며 원쑤들이 나의 가슴에 칼을 박으려 한다면 나는 그놈들의 오장을 도려낼것이요. 원쑤들이 나에게서 그 무엇을 찾아내려고 한다면 나는 그놈들을 콩껍데기 벗기듯 발가놓을것이요.》

《흥, 길태씨는 꼬리가 밟히였어요. 그 구리단추가 있는가 확인해보세요.》

《아, 그걸 가지구 그러오? 전번에 옥녀씨가 경각성을 높이라고 귀띔해준 날 적당한 곳에 감추었지요. 나도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것을 예측했지요. 정탐가가 며칠 앞도 내다 못보구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 있다고 해도 그렇지 그들이 그걸 보고 뭔지 알겠소?》

리철은 호걸스럽게 웃었다.

《천진란만하군요. 그렇게 웃긴 아직 이르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놓구 달리 행동해야 할 때가 되였다구 생각해요. 저의 방도 수색을 당했어요.》

리철은 선불맞은 노루처럼 후닥닥 자리에서 일어서며 공포에 질린듯 두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소리요?》

《그러니 하는 소리예요. 그렇게 기고만장해서 흰소리만 치니 오히려 가엾게만 보여요.》

《다됐구나. 가만, 진짜 수색을 한것 같소? 아니면 도적이 든게 아니요?》

리철은 절반 풀이 죽어서 말했다.

《가져간것이 없는걸 봐서는 도적같지 않아요. 창피하게 트렁크속에 있는 속옷들을 다 뒤져본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져간 물건이 없단 말이지요. 이건 안전원들의 수색이 분명하오.》

리철은 겁에 질린듯 눈을 힐끔힐끔 하면서 바깥동정을 살폈다.

《그래요. 놈들은 분명 무슨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무엇을 뽑아내려고 하는것 같애요. 놈들이 하는 행동이 서툴긴 해도 난 그렇게 생각해요. 길태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옥녀는 씩씩거리면서 리철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나 리철은 입을 꾹 다물고 숨소리를 죽이였다.

초상난 집처럼 괴괴한 방안엔 옥녀의 숨소리만 쌕쌕 울리였다.

침묵… 침묵…

드디여 리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의심스럽게 보인게 뭐 있습니까? 이건 도적이 든것이 분명하오.》

《그런 장담을 어떻게 할수 있어요? 정탐가의 신경이 그렇게 무디면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옥녀는 리철이를 설득시키려 했다.

옥녀의 얼굴은 공포에 떨리는듯하였다.

《난 방금전에 위험신호를 받았어요. 그래 길태씨는 이렇게 그냥 앉아있을 작정인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소?》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체포하기직전에 이르렀다는것을 알아두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것을 말해주지 않소?》

《하긴 놈들이 지금 우리를 감시하고있을지도 모르지요.》

《그럴바엔…》

《그럴바엔 어떻게 하자는거예요?》

《자수하는것이 낫지 않을가요?》

《흥, 길태씨나 자수하세요. 그러나 자수해도 나만은 건드리지 말아요. 그때엔 마지막이라는것을 명심해요. 난 도망가겠어요. 난 어떻게 하든 놈들의 손에 잡혀서 개죽음을 당하진 않겠어요!》

옥녀는 이발을 사려물었다.

《도망가면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요? 도망갈수 있는 출로만 있다면 나도 도망가겠소. 자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하는것이고. 그렇지 않소? 옥녀, 그래 도망가면 그냥 가겠소?》

《왜 그냥 가겠어요? 요란한 폭파소리라도 내고 가야지요.》

《그래 어떻게 하겠소?》

《내가 생각이 다 있으니 길태씬 앉아서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잡수세요. 나에겐 주요공장설계문건을 찍은 필림도 있어요.》

《그래 옥녀, 혼자 〈공로〉를 세우자는거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공로는 곧 길태씨 공로가 아니겠어요. 됐어요. 그럼 래일을 기다려줘요. 오늘밤 조용히 지내세요.》

리철이가 다른 말 할 사이도 없이 옥녀는 방을 휭하니 나가버렸다.

은 혜

부장의 방에는 두성대위와 경수상위 그리고 인하중위외에 4명의 안전원이 더 앉아있었다.

부장은 이들을 마주하고 서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궁화〉망의 명단을 탈취하기 위한 우리의 작전이 마지막단계에 이른것 같습니다. 리철동무가 보내온 정보에 의하면 옥녀가 〈금가락지〉를 현재 자기의 몸이나 자기의 방에 보관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곳에 숨겨두고있는것 같다고 합니다.

옥녀가 어제밤에 사라졌댔다고 하는데 어디에 갔다오는가 하는것은 뻔합니다. 우리가 이미 전파도 잡았지만 자기의 상전인 가리도시에게 전파를 날려 구원선을 요청하러 갔댔습니다. 리철동무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였습니다. 옥녀는 가리도시와의 무전상면에서 칠녀가 녕월의 가짜묘를 파보았는데 그가 죽지 않고 우리에게 체포되여 심문을 받았으며 그 과정에 모든것을 다 분것 같다는 전파도 날리였소. 때문에 정체가 드러난 〈무궁화〉망이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고 인정한 가리도시는 옥녀를 소환할것을 결심한것이요.》

부장은 계속 말하였다.

《그리고 오늘 무역항에 상선 ××호가 들어왔는데 이것이 〈범나비〉와 〈까나리〉를 심문할 때마다 상정되군하

던 그 상선같습니다. 그런데 구원선을 요청한 옥녀에게 보낸 가리도시의 무전문을 해명한데 의하면 래일밤 0시 칼바위구역 앞바다에 구원선이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발화신호로 접선하는 방법도 대주었습니다. 무전문 마지막에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라〉라고 하였는데 이제 해득되겠지만 우리는 먼저 무슨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정황은 두성동무가 감시하고있던 〈제2도미끄〉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는것입니다. 〈제2도미끄〉가 어떻게 행동하겠는가 하는것은 아직 모르겠지만 우리의 손아귀에 든 칠녀이므로 문제될것이 없다고 봅니다.

때문에 두성동무에게 로농적위대원들을 배속시켜주겠는데 〈제2도미끄〉에 대한 처리를 심중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

부장의 말이 끝나자 일제히 일어서서 차렷자세를 취하였다.

이럴즈음 옥녀는 지난밤에 자지 못한 잠을 쫓으며 설계실에서 마지막 설계도면우에 선을 긋고있었다.

그러던 그가 설계도면우에 이마를 떨구고 갑자기 아픈 시늉을 하였다.

과장이 그에게 물었다.

《옥녀동무, 어디 아프오?》

《…》

옥녀는 잔뜩 찌프린 얼굴을 약간 들었다놓았다.

《병원에 가보오. 자, 어서. 그리고 심하게 아프면 합숙

에 가서 좀 눕소.》

《과장동지, 용서해요. 좀 나으면 다시 나오겠어요.》

사무실을 나선 옥녀는 병원으로 가는체 하다가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모포를 뒤집어쓰고 누웠다.

몸이 으시시 떨렸다. 거짓아픔이 진짜 아픔으로 변한것 같았다. 머리속에는 불길한 생각이 검은 구름처럼 밀려들었다. 몸은 천길땅속으로 사정없이 떨어져들어가는것 같았고 눈속에는 꺼실꺼실한 흙과 모래가 마구 쓸어드는것 같았다. 옥녀는 소리를 지르고싶었다. 이번에는 코구멍으로 모래들이 날아들어 숨구멍을 컥컥 막아놓는것 같았다. 순간 심장이 뚝 멎는감을 느낀 옥녀는 겁이 더럭 나서 일어나려고 버드럭거렸다. 하지만 몸은 천근 쇠덩이를 달아맨듯 까딱 움직여지지 않았다. 땀만 빠질빠질 났다. 불길한 생각에 허덕이던 옥녀는 뒤집어썼던 모포를 머리에서 활 벗어젖혔다. 온몸이 찐득찐득한 기름항아리에 빠졌다나난것처럼 축축했다.

옥녀는 복잡한 생각을 털어버리려고 머리를 흔들면서 마음을 다잡았다.

(흥, 《도마뱀》망원이 15명이라구? 어리석은 자식, 주길태를 어떻게 한다? 죽여버려? 아니야. 가리도시가 《흰》망에 대하여 잘 모를수도 있지 않는가?…)

순간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옥녀는 마치 사냥개에게 쫓긴 짐승처럼 모포속으로 기여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후닥닥 일어나앉으며 출입문쪽을 바라보았다.

《언니, 옥녀언니, 은혜예요. 문열어줘요.》

또랑또랑한 은혜의 목소리였다.

그제야 가슴을 옥조이며 숨도 크게 못쉬던 옥녀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리였다.

(저년은 왜 나타나서 신경을 자극하면서 그래!)

《언니, 식사를 가져왔어요. 문열어줘요.》

은혜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또다시 울리였다.

옥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제야 점심식사시간이 되였다는것을 알고 출입문 안걸개를 벗기였다.

은혜가 생글생글 웃으며 들어섰다.

《병원에 갔드랬어요? 얼굴이 수척해진것 같애요.》

《생각해줘 고마와.》

옥녀는 장마진 하늘처럼 찌뿌둥해서 말했다.

《입맛이 떨어진것 같아서 쑥갓을…》

은혜는 청신한 쑥갓과 밥, 찬그릇들을 앞에 내밀었다.

《쑥갓? 입이 써서 그러는데… 하여간 고마와.》

옥녀는 턱을 쳐들고 책상우를 가리켰다.

《그럼 부루를 좀 가져올가요?》

《괜찮어. 그저 잠만 자고싶구나.》

옥녀는 침대에 덜썩 드러누웠다.

《그럼 이따가 꼭 들어요.》

은혜는 음식그릇에 종이 한장을 덮어놓고 옥녀를 힐끔 바라보았다.

《은혜, 이제는 오지 말어. 저건 저녁에 먹어야겠어. 그릇은 내가 래일 아침에 가져다줄게.》

《알겠어요. 그럼 몸조리 잘해요.》

은혜는 나가버렸다.

(오늘은 저년까지 수상한 년으로 보이누나. 아무튼 다 보기 싫어, 죽이고싶어…)

옥녀는 모포를 뒤집어쓰고 눈을 꾹 감았다. 별찌들이 눈앞에서 가로세로 찍찍 뻗어내리는데 가리도시며 패스맨 그리고 숲속의 별장, 높은 담장을 친 으리으리한 고대광실이 얼른거리였다.

(제도사구 뭐구 고달프게 거짓열성 낼 필요없게 되였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아버지 가리도시, 감사해요. 아버지품으로 꼭 돌아가겠어요. 돌아가도 그냥 돌아가지 않겠어요. 《빨갱이》들이 분통이 터지게 꽉 폭파소리를 내고 돌아가겠어요. 그러면 패스맨선생도 나의 이마에 입을 맞춰주시겠지요. …)

옥녀의 눈앞엔 큰 공장의 주요설비들이 요란한 폭음과 함께 하늘공중에 날아나는 장면과 가리도시와 패스맨이 목을 뒤로 젖히고 통쾌하게 웃어대는 모습이 영화화면처럼 안겨왔다.

《작전은 다 면밀히 세워졌으니 념려마세요.》

옥녀는 혼자서 중얼거리였다.

(그런데 조개턱 그놈이 일을 망치지 않을가? 주색에 빠진 놈, 만나기만 하면 뭐 어째볼려구, 그만하면 됐지. 흥, 하긴 일을 성사시켜놓은 다음에 또 보자구 했으니 죽기내기로 해낼거야, 해내구말구. 사내들이란 밥통들이야.)

옥녀는 조급해지는 마음을 더욱 달랠수 없었다. 옥녀는 자리를 차고 일어나 출입문을 안으로 걸고 도망칠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다.

저녁이 되였다.

어슬어슬한 땅거미는 옥녀의 방에 지옥의 그림자처럼 비끼였다.

창문에 시선을 던진 옥녀는 창가에 어리는 어둠이 마치 목을 조이는 올가미처럼 마음을 산란하게 하였다.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똑똑똑》하고 세번 울렸다. 이것은 리철이가 두드린다는 신호였다.

옥녀는 문걸개를 벗기였다.

리철이가 바람처럼 옥녀를 떠밀면서 들어섰다.

옥녀는 자기를 떠미는 리철이가 괘씸하였지만 꾹 참으면서 눈귀가 째지도록 치떠보기만 하였다.

《불을 켤가요?》

《켜지 마세요.》

리철의 말을 밀막으며 옥녀가 다급하게 소리질렀다.

《아, 내가 눈치코치없이… 자, 그럼 어둑시근한데서 이야기합시다.》

리철은 이렇게 롱조로 말하면서 옥녀의 침대에 와서 앉았다.

《이제부터 행동을 어떻게 할 작정이요?》

《좋아요. 그럼 얘기하자요. 가리도시와 무전상면을 하였어요. 나를 구원할 밀선이 래일밤 0시 칼바위구역 앞바다에 나타나요. 발화신호로 접선하게 되였는데 전지면 돼요. 저쪽에서 먼저 〈무궁화〉라는 발화신호를 하면 그때 우리는 〈부나비〉라는 신호를 보내게 되여있어요. 길태씨도 꼭 전지를 가지고나와야 하겠어요.》

《알겠소. 그리구…》

《여기서 떠나는 시간은 밤 11시로 하자요. 그러되 서로 각이한 시간에 각이한 방향으로 나가자요.》

리철은 옥녀의 말에서 자기를 떼여버리려고 한다는것을 대번에 감촉했다.

《같이 행동하는게 낫지 않겠소?》

《불리해요. 또 위험해요.》

옥녀의 목소리는 단호하게 울리였다.

(교활한 년. 《금가락지》는 물론 주요공장설계문건을 찍은 필림을 나한테 빼앗길가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

이런 생각을 굴리던 리철이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같이 행동하는게 불리할뿐아니라 위험하단 말이지?》

《그래요.》

《내가 옥녀를 위험에서 구출해줄 은인이 되겠는지 알겠소?》

하지만 옥녀는 말없이 자기 생각을 굴리였다.

(찰거마리같은 자식, 자기를 떼여버리고 달아날가봐 겁이 나는 모양이지?)

《왜 대답이 없소?》

흠칠 놀란 옥녀가 엉겁결에 입을 열었다.

《그럼… 밤 11시에…》

《그래, 밤 11시에…》

옥녀는 갑자르더니 가까스로 다음말을 이었다.

《만약 함께 행동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바리봉 동쪽 기슭, 어느 일요일 저녁에 우리가 나간적이 있는 그 밤나무밑에서 만나자요.》

《좋소. 거기서도 만나지 못할 때에는…》

《그때엔 칼바위구역 해안가에서 만나자요.》

《혹시 옥녀가 나를 떼여놓고 혼자 도망칠 생각을 하고있는게 아니요?》

리철은 조금도 꺼려하지 않고 직선적으로 들이댔다.

《어쩌면 그렇게 생각해요?》

옥녀는 고개를 다소곳하고 불안한 미소를 던졌다.

어둠속에서도 리철은 옥녀의 얼굴에서 불안한 미소와 함께 자기를 경계하는듯 한 빛을 엿보았다.

《좋소. 나는 11시정각부터 구원선에 오를 때까지 당신과 같이 행동하겠소. 요구할건 이것밖에 없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자요. 11시정각에 나의 방에 들어와요. 그때에 아주 중요한것을 맡기겠어요. 그건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것이예요.》

《알겠소!》

교활하기 그지없는 옥녀를 쏘아보는 리철의 가슴은 바질바질 탔다.

(년이 어떤 음모를 꾸몄는지 그걸 알아내지 못한다면…)

순간 리철의 머리속에 무엇인가 번쩍 하고 번개쳤다.

《나도 뭔가 하고 나가야 패스맨각하를 떳떳이 만날게 아니요. 그래서 원포조선소와 통신기계공장에 가장 믿음직한 망원을 각각 한명씩 파견했소.》

리철은 거짓말을 했다.

《잘했어요. 2중으로 포치하면 어느쪽이든 성공할게 아니예요.》

《그럼 나는 가보겠소.》

자기 방에 들어온 리철은 옥녀에게서 알아낸 자료를 부장에게 알린 다음 예견되는 모든 정황에 대처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면서 초조하게 시간을 보냈다.

공장구내의 확성기에서는 방송원의 열띤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각지 근로자들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세차

게 올리고있는 소식을 전하는 방송이였다.

방송원의 목소리가 멎었다.

리철은 심장의 피가 끓는것을 느꼈다.

………
우리의 생활은 날마다 행복하여도
남녘동포 생각하면 피타는 심장
………

리철은 노래를 속으로 따라불렀다. 그는 노래가 끝나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원쑤놈과의 싸움은 정말 마지막까지 긴장해야 해. … 교활한 년, 지금 무엇을 하고있을가?…)

리철은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0시 30분이 되였다.

리철은 어쩐지 마음이 허전해지면서 나머지 30분을 더 기다려보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내가 옥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것이 아닌가? 혹시 창문으로 혼자서 내빼지 않았을가?)

초조한 마음을 안고 방안을 서성거리던 리철은 출입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문두드리는 소리가 다급하게 울리였다.

리철은 지체할사이없이 문을 열었다.

《…동지!》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방글거리던 은혜가 심상치 않은 인상을 짓고 리철이를 찾아온것이였다.

《무슨 일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요즘 저의 촉감엔 옥녀의 행동이 수상하게 느껴졌어요. 낮에는 점심식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 밥을 가져다주었는데 아프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때 보니 꾀병을 하는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 식당에서 돌아오면서 불이 꺼진 그의 방 창문을 지켜보았는데 글쎄 몸이 아프다고 하던 그가 창문으로 뛰여넘는게 아니겠어요. 한 20분 됐어요.》

《뭐요?》

리철은 가슴속에서 쇠뭉치같은것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옥녀의 뒤를 따르길래 동진줄 알았어요. 난 혹시 동지의 신변이 위태롭지 않겠나 하여 멀찌감치에서 뒤따랐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동지가 아니지 않겠어요.》

《감사하오. 은혜동무!》

리철은 은혜의 두손을 꽉 모두어잡았다.

참으로 각성이 높은 처녀였다. 리철은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다. 그는 은혜를 감동어린 눈길로 한번 더 쳐다보고는 급히 방에서 나갔다. 허지만 리철의 귀가에서는 자기를 《동지》라고 부른 처녀, 은혜의 목소리가 그냥 울리는듯싶었다.

추 격

밤 10시 10분에 창문을 넘어 뛰쳐나온 옥녀는 거리의 골목골목을 에돌아 바리봉 반대켠에 있는 수리봉으로 올랐다.

수리봉은 원포시로 가는 도로의 길옆에 있는 침엽수와 활엽수가 듬성듬성 섞여있는 나지막한 야산이다.

옥녀는 이 야산의 중턱에 오르자 바위들짬으로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였다. 그러다가 떡돌처럼 펑퍼짐한 바위가 있는곳에 와서 걸음을 멈추었다.

그닥 인상깊게 생긴 바위는 아니지만 그 밑창에 그처럼 귀중히 여기는 《금가락지》를 숨겨놓기 좋은 새둥지 비슷한 구멍이 있었던것이다.

옥녀는 안깐힘을 써서 바위 하나를 들어 옆에 옮겨놓았다. 그리고 바위밑창에서 무엇인가를 꺼냈다.

한편 옥녀의 일거일동을 예리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다. 경수였다.

그는 옥녀의 행동을 뚜렷이 볼수는 없었지만 그가 무엇을 하고있으리라는것은 짐작하였다. 경수는 그것이 바로 자기네가 그처럼 관심을 돌리고있는 《무궁화》망의 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라는것을 알았다. 그는 여기서 그것을 빼앗으리라 마음먹었다.

그렇지만 다음순간 그의 머리속에는 이 주변에 옥녀가 잠복시킨 그 어떤 인물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번개

쳤다. 그는 자기가 옥녀를 따르고있는 이상 더 손쉽게 잡을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리라 마음먹고 그대로 놔두었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옥녀는 이윽고 야산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경수는 그의 뒤를 따르는자들이 없는가를 한참동안이나 살펴보았다.

아무도 없다는것을 확인한 경수는 슬금슬금 옥녀의 뒤를 따랐다.

원포시로 가는 도로가 눈앞에 어슴푸레 안겨왔다.

옥녀가 도로에 내려서자 야음을 타고 승용차발동소리가 갑자기 《부르릉－》하고 울렸다.

경수는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도로쪽을 살폈다.

옥녀가 승용차에 몸을 실었다.

문이 쾅 하고 닫기자 승용차는 원포시방향으로 내달리였다.

경수는 휴대용자동무선기를 꺼내들고 부장의 대호를 찾았다.

《고래산! 고래산!》

한편 리철은 대기시켜놓았던 승용차를 잡아타고 원포방향으로 내몰았다. 승용차가 옥천읍내를 채 벗어나기도전에 휴대용 자동무선기에서 삑삑 호출신호가 울렸다.

응답신호를 보냈더니 빨리 원포방향으로 차를 몰아 《ㅍ》초소에서 경수상위를 만나라는 부장의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리철이 《ㅍ》초소에서 차를 세우고 뛰여내리니 그곳에서는 경수상위가 기다리고있었다.

《상위동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리철은 경수상위와 오래간만에 만나 인사도 차릴새없이 이렇게 물었다.

《옥녀를 미행하다가 놓쳤소. 그년은 승용차로 원포시방향으로 내뺐소. 자, 차에 오릅시다.》

리철은 경수와 함께 차에 오르며 말했다.

《운전사동무, 빠를수록 좋소.》

도로리정표말뚝이 이따금씩 나타났다.

어느덧 15키로메터는 실히 달린것 같았다.

그때였다. 맞은켠에서도 고속으로 달려오는 승용차 한대가 눈에 띄였다.

리철이와 경수는 앞을 계속 주의깊게 살폈다. 그런데 마주오는 승용차가 앞에 급히 멎어서더니 한 사나이가 뛰여내려 주변을 살폈다.

《리철동무, 부장동지가 아니요?》

승용차는 부장이 서있는 주변에 와서 급정거하였다.

리철이와 경수가 승용차에서 뛰여내리며 웨쳤다.

《부장동지!》

《리철동무!》

부장은 오래간만에 만나는 리철이였지만 수고했다는 말을 할 겨를이 없는듯 길 한복판을 가리키였다.

《저것은 어떻게 된 일이요?》

리철이와 경수는 길 한복판에 서있는 승용차에 시선을 던지였다.

옥녀가 타고 수리봉을 떠났던 그 승용차였다. 앞좌석에는 뚱뚱보사나이가 운전대를 잡은채 숨이 져있었다.

(옥녀는 어디로 샜단말인가?)

리철은 너무 안타까와 목단추를 끌러놓았다.

부장은 리철이와 경수가 신심을 잃지 않도록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밤에는 몸을 숨길수 있지만 날이 밝으면 끝장이 날거요. 오늘밤은 산에서 꿈이나 잘 꾸라고 놔둡시다.

그런데 이년이 왜 이쪽으로 발길을 돌렸는가 하는것이요. 동무네는 어떻게 생각하오?》

《우리의 주목을 원포방향으로 쏠리게 하자는것 같습니다. 이 밤엔 이렇게 해놓고 래일은 반대방향인 칼바위구역 해안가로 접근할것 같습니다.》

경수의 신심에 넘치는 목소리가 축축한 밤대기속에서 조용히 울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묘한 수가 있는것 같습니다. 나를 떼버리려고 한 그년이 칼바위구역 해안가로 갈 계획이면 저에게 밀선과의 상봉련락신호까지 대주지 않았을것입니다. 다른 묘한 수가 꼭 있겠는데 내가 그년에게서 그걸 알아내지 못한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봅니다.》

리철의 얼굴엔 자책의 빛이 짙게 어리여있었다.

《리철동무의 말에 일리가 있는것 같소. 그러나 아직 결론을 내릴수 없소. 가리도시가 날린 전보문의 마지막 문장 〈우리의 길은 오직 하나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라.〉 라는것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우리는 아직 해득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것이 분명하오. 믿읍시다. 조만간에 검증조동무들이 이 의문을 풀어줄것이요.》

《금가락지》는 누구에게…

부장의 방은 이따금 전화종소리가 울릴뿐 조용하였다.

그러나 그 조용한 방에 쉬임을 모르는 하나의 소리만은 여전히 가락맞게 울렸다. 그것은 《뚜거덕 뚜거덕》하는 부장의 발자국소리였다. 부장은 지금 사색의 심연속에서 시간을 보내고있었다.

(정인하중위가 조개턱을 미행하다가 옥천 다음역에서 그놈이 렬차칸에 설치해놓은 시한탄을 처리하다가 부상을 당했단 말이지. 그리고 거기서 빠져나온 조개턱이 옥천기계공장에 스며들어 특수기계조립직장을 폭파하려고 했단말이지? 교활한 놈. 아무리 교활하게 책동해도 각성된 군중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은혜, 은혜동무가 용해. 많이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다.)

부장의 눈앞에 섬약한 처녀인 은혜가 시한탄을 설치하는 조개턱앞에 벽돌장을 들고 결판을 내려고 당돌하게 서있는 모습이 마치 지울수 없는 영상처럼 안겨왔다.

정인하와 은혜의 영웅적행동을 놓고 생각에 잠겨있던 부장은 옥녀가 자기가 일하던 공장을 폭파하는것은 도주하는데 불리하므로 딴 장난을 안할것이라고 단정했던 자신을 질책했다.

(그런데 왜 놈들이 마수를 뻗치였다고 생각하는 원포조선소와 통신기계공장에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는가? 리철

동문 옥녀년이 이중으로 포치하면 실수없을것이라 말했다고 하지 않았는가. 리철동무가 혹시 옥녀년의 얼림수에 넘어간것이 아닐가?…)

부장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안을 거닐었다.

《따르릉…》

갑자기 조용한 방안에 전화종소리가 울리였다.

부장은 전화기가 있는 곳으로 다급히 걸어가 송수화기를 들었다.

《조선소라구? 그래 덜미를 잡았단 말이지! 한놈이요? 수고했소. 그놈을 여기로 끌어오시오.》

부장은 송수화기를 놓고 다시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이젠 통신기계공장이 문제로군. 옥녀년이 어디서건 폭파소리를 내여 그곳에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킨 다음 안전하게 빠지려고 한게 분명해. 그러면 옥녀는 어디로 빠지려는것인가?)

가리도시가 보낸 전보문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독자적인 해득은 곤난했다.

검증조동무들은 현재 사건진행의 모든 정황과 현상을 놓고 칼바위구역이 위험하니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것으로 추리해놓았다.

부장은 이번 작전을 성과적으로 결속짓기 위해 마지막으로 녕월이를 심문하여 비밀을 뽑아낼 결심을 하고 전화로 당직군관에게 그를 방에 끌어오라고 명령했다.

잠시후에 녕월이가 부장의 방에 들어왔다.

《조녕월, 여기 와 앉소.》

녕월은 떳떳하게 부장앞 책상을 마주하고 앉았다.

《그래 여기 와 앉고보니 감상이 어떻소?》

《즐겁수다.》

볼멘 녕월의 대답에는 야유조가 섞여있었다.

《즐겁다. … 그래 가리도시와 술상에 마주앉은 기분이요?》

《술이라두 한잔 있으면 더욱 즐겁겠수다.》

《당신은 정말 더럽게 늙었소. 술은 없지만 당신의 고백여하에 따라 담배는 피울수 있게 해주겠소.》

《이젠 더 고백할것이 없어요. 왜 성가시게 사람을 못살게 굴어요. 기분이 나빠요.》

녕월의 입가에는 미소비슷한것이 어리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무엇을 경시하는듯 심각하였다.

《무엇을 믿고 그렇게 아닌보살하는거요? 당신에게 한가지 예고하겠소. 만일 딴 마음을 먹으면서 심문을 연장시키려고 한다면 아예 그런 희망을 버리는게 좋겠소. 우리는 심문을 빨리 끝내고 당신에게 제기할게 있소.》

《호호.》

녕월은 돌연히 실성한 사람처럼 웃었다.

《그래 여기에 와앉았는데도 두렵지 않은 모양이군.》

《두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겁은 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묻는 말에 순순히 답변하시오.》

《그렇다면 목숨은…》

《최소한 목숨을 연장할수는 있을거요. 당신은 쉰살을 넘어살았소. 그러나 한생을 어떻게 걸어왔는가? 당신은 〈황군〉첩보장교 가리도시의 휘하에서 못된짓만 하다가 왜놈이 망하자 그놈의 지령을 받고 공화국북반부에 잠입한 간첩망의 망책이며 전쟁시기엔 또 하나의 상전 패스맨의 사타구니에 기여들어간 다음 무고한 우리 인민을 제손으로

학살했소.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당신을 사형장으로 끌어낼 충분한 근거가 있소. 그렇지 않소?》

《물론… 그렇테지요.》

녕월은 입술이 파래서 겨우 이렇게 대답하고나서 물었다.

《그래 나에게서 바라는것이 무엇이예요?》

낯색을 일변한 녕월은 구원을 바라는 눈길로 부장을 힐끔 쳐다보았다. 그의 머리속에는 복잡한 생각들이 범벅이 되여 돌아쳤다.

(××상선으로 나를 데려갈 구원자가 들어왔다가 체포된것이 아닌가, 아니면 혹시 칠녀를 잡지 못한것이 아닌가? … 하지만 나는 체포된 몸이 아닌가. 그러니 뻗친다는것은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워보자는거나 다름없지 않아…)

착잡한 생각을 머리속에 굴리던 녕월이 눈을 쪼프리고 부장을 넘겨다보며 태연하게 물었다.

《〈도미꼬〉가 체포되였는가요?》

《흐하하…》

부장은 의자등받이에 허리를 젖히고 호탕하게 웃다가 말했다.

《그건 때늦은 질문이 아니요? 묻는 말에 답변이나 하시오. 당신은 칠녀가 당신의 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딸은 오른쪽 눈섭우에 기미가 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도 칠녀를 진짜 딸로 믿었는가?》

녕월은 아무말없이 앉아있더니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떠보는듯한 눈길로 부장을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진짜 기미가 있는 〈도미꼬〉를 알아냈는가요?》

《보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우리를 속이고있었소.》

부장은 기미가 있는 옥녀의 사진과 기미가 없는 칠녀의 사진을 녕월이앞에 내밀었다.

그것을 들여다보는 녕월의 얼굴은 새까맣게 질렸다.

(이놈들이 옥녀까지 잡아냈구나. 망했다, 망했어. 아… 〈무궁화〉 망은 거덜이 났구나… 《금가락지》도 손에 쥐였겠지…)

아무 대꾸없이 묵묵히 마루바닥만 지켜보는 녕월의 주글주글한 얼굴엔 번뇌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어리여있었다.

《죄다 말씀드리겠어요. 칠녀는 옥녀를 위장하기 위한 인물에 불과해요. 〈무궁화〉 망의 망책은 나의 진짜 딸이며 〈도미꼬〉인 옥녀였어요.》

더는 어쩔수 없게 된 녕월은 모든것을 다 털어놓고 목숨이나마 부지해보려 했다. 그러나 가슴이 떨려 말이 잘되지 않았다.

《그럼 김순달은 어떻게 된 놈이며 옥녀와 칠녀가 어떻게 되여 그놈의 품에 기여들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말해보시오.》

녕월은 눈이 둥그래서 부장을 멍하니 쳐다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고 말했다.

《말하겠어요.》

《말하겠단 말이지?》

부장은 녕월의 면상에 눈총을 쏘았다.

녕월은 부장의 시선을 간신히 피하면서 헛기침을 몇번 했다. 그러다가 마른침을 꿀꺽 삼키고 말을 시작했다.

《김순달은 가리도시로부터 2년간의 첩보훈련을 받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젊었을 때는 기력도 있고 남보다 좀 령리한 편이여서 가리도시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일본이 망한 후 46년도에 가리도시는 그를 북조선에 잠입시키면서 일만 잘하고있으라고 하기때문에 토지개혁 때도 있는 열성을 다 내서 일한것 같애요. 전쟁시기 미국놈들이 들어왔을 때 나를 만난 가리도시가 말해주었는데 순달이를 만난 가리도시는 그에게 금붙이를 쥐여주면서 그의 가족을 다 죽이라고 했다구 해요. 그래서 그는 처와 하나밖에 없는 딸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였어요. 그리고 폭격에 죽은것으로 만들었지요. 그후 그는 가리도시가 시키는대로 금붙이를 팔아 생계를 유지하면서 그가 주는 임무를 수행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옥녀를 자기 딸처럼 기르면서 왜정때 만주에서 가리도시가 배워준 첩보공작방법을 비밀리에 배워주는것이였지요.》

녕월이 계속한 이야기내용은 이러하였다.

《도미꼬》를 일본으로 데리고 간 가리도시는 애가 일본에 오래 있게 되면 일본인으로 동화될수 있기때문에 녕월의 뒤를 이을 망책후비가 걸린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1952년도에 옥녀를 조선에 넘겨왔다. 그리고 고아처럼 만들어 거리를 돌아다니게 하다가 자식이 없는 령감로친이 데려가게 하였던것이다. 이때 옥녀의 뒤를 미행하던 김순달이 그 령감로친의 거처를 알아두고있다가 전후에 찾아가서 옥녀가 제 딸이라고 하면서 막무가내로 데려왔다는것이였다.

그후부터 김순달은 옥녀에게 체계적으로 첩보훈련을 시켜왔다.

《그럼 당신은 친딸인 옥녀가 어디서 살고있는지 알고있었으며 만나기도 했겠소?》

《물론 알고있었으며 만나기도 했지요. 만나는 경우엔

첩보공작의 요구대로 극비밀리에 만나군 했지요. 아, 그애가 보구싶군요.》

녕월은 긴 한숨을 내쉬였다.

《소원이라면 앞으로 보여줄수 있소.》

녕월은 칠녀에 대해서도 고스란히 이야기했다.

칠녀는 해방전에 안악군에서 살던 변지주의 딸이였다.

칠녀는 5살나던 1946년에 삼촌어머니를 따라 서울에 있는 삼촌네 집에 갔다가 길이 막혀 돌아오지 못했었다. 그런데 전쟁의 전략상 일시적후퇴시기에 《치안대장》질을 하면서 온갖 치떨리는 만행을 감행하던 애비와 에미가 그후 마을사람들에게 매맞아죽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패스맨과 가리도시는 칠녀를 옥녀의 신변을 가리워줄 인물로 선정하고 1952년도에 고아처럼 만들어 들여보냈던것이다.

김순달은 가리도시로부터 칠녀를 잘 키울데 대한 임무를 받았으며 옥녀를 위장하는, 말하자면 가장 위급한 순간에 옥녀의 생명을 담보할 미끼로 키워왔던것이다.

《한가지 더 물읍시다. 〈범나비〉, 당신이 넘겨준 〈금가락지〉는 지금껏 누가 보관하고있었소?》

부장의 련속적인 질문에 땀을 뻘뻘 흘리며 대답하던 녕월은 또 새로운 질문을 받자 부장을 겁에 질린 눈으로 힐끔 쳐다보았다. 그리고 손등으로 이마의 땀을 쭉 문지르고나서 가까스로 말했다.

《…나 물 좀 줄수 없습니까?》

부장이 일어서서 원탁우에 놓여있는 보온병에서 시원한 물 한고뿌를 따라 녕월이앞에 내밀었다.

《자, 받으시오.》

녕월은 물고뿌를 받아 꿀꺽꿀꺽 소리를 내면서 게걸스럽게 들이켰다.

그리고 아래턱으로 흘러내린 물을 주먹으로 문지르고나서 말을 시작했다.

《예, 그건 옥녀가 보관하고있었지요.》

녕월은 옥녀가 잡힌줄만 알고있었으며 《금가락지》도 우리 수중에 넘어온줄로 알고있었다.

《마지막으로 묻겠소. 무역항에 당신을 구원하게 될 ××상선이 들어왔소. 만약 그 상선으로 빠지려고 했었다면 당신을 구원해줄 상대방을 어떻게 만나려고 했소?》

《이제야 다 물거품이 된건데 숨겨서 뭘하겠어요?… 낮 12시부터 2시사이에 손잡이에 빨간천을 감은 우산을 들고 제가 무역항밖에 있는 외국인상점에 나타나게 되여있습니다. 그러면 상선 ××호에서 내린 한 사람이 그 우산을 든 저의 가방속에 차후 행동방향에 대한 쪽지를 집어넣게 되였어요. 저는 그 쪽지를 보고 거기에 적혀있는대로 행동하게 되였어요.》

《음, 비교적 솔직하게 나오는군… 그래 옥녀가 만약 도주하려고 시도하면서 그 상선을 리용하자고 했다면 그런 접선방법으로 해야 했는가?》

《그래요. 그러나 내가 잡혔다는걸 알면 가리도시는 다른 접선방법을 알려주었을거예요.》

역시 부장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렇다면…

어쨌든 옥녀를 잡아야 했다. 그래야 《무궁화》망의 명단이 들어있는 《금가락지》와 주요공장설계도면을 찍은 필림을 뽑아낼수 있었다.

부장의 생각은 리철이와 경수에게로 달려가고있었다.

《운수》나쁜 날

《역전동— 도자기》

경수는 뻐스정류소 표말을 힐끔 쳐다보았다.

이 뻐스만 타면 무역항과 해수욕장을 지나 도자기공장까지 갈수 있었다.

경수는 줄선 서너명되는 사람들의 뒤에 서서 뻐스가 오지 않나 하여 뒤로 눈길을 돌렸다.

경수는 부장한테서 옥녀가 외국인상점에 나타날수 있다는 무선련락을 받고 그앞에 있는 청량음료점으로 가는 길이였다.

《벌써 하늘이 높아졌수다.》

《예, 추분이 래일모레이니 날씨두 제법 선선해졌수다.》

경수는 앞에 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하늘을 쳐다보았다.

정말 구름 한점 없는 하늘은 높아보였다. 더운 계절은 지나가고 가을이 다가온것이였다.

하지만 경수는 계절에 대하여 생각해볼 경황이 없었다.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12시 15분, 허 뻐스가 빨리 와야겠는데.)

경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무역항근방에 리철동무가 가있겠는데 념려될것은 없지…)

진정 매사에 심사숙고하고 예리한 판단과 추리로써 사건

의 본질을 틀어쥐고 젊음에 넘쳐 맹활략을 벌리는 리철, 사건수사에 처음 참가하지만 그는 화살을 쏘아 목표를 명중시키는 명사수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고있는것이였다.

경수는 새 세대의 젊은 청년인 리철이가 어쩐지 부러웠다.

따라배워야 한다는 말을 하기는 좀 거북스러웠지만 여하간 당의 정치보위전사로서의 풍모를 그 누구보다 빨리 갖추어나가는 리철이가 돋보이기만 하였다.

어느덧 뻐스가 정류소에 와서 멎었다.

경수는 앞에 선 사람들의 뒤를 따라 뻐스에 올랐다.

먼저 오른 사람들이 빈 좌석에 앉았다.

경수는 빈 좌석이 없나 하고 앞을 살피다가 뒤를 돌아보는 로친과 눈이 마주쳤다.

경수는 흘기는듯한 그 눈길을 어데선가 본것 같았다.

(어데서 봤더라?…)

아무리 생각을 굴려봐야 떠오르지 않았다.

로친의 눈길을 피해서 차창밖에 시선을 던진 경수는 언뜻언뜻 흘러가는 가로수를 바라보았다.

로친은 변장한 옥녀였다.

(저자는 어떤 놈인가? 안전원인가? 안전원이라면 나를 알아본게 아닌가?)

옥녀는 자리를 고쳐앉는체 하면서 머리를 돌려 경수의 동향을 살폈다.

(저자는 틀림없는 안전원이다.)

옥녀의 눈앞에는 족쇄와 올가미가 엇바뀌여 어른거렸다.

《어데 편찮으세요?》

옆에 앉은 처녀가 안절부절 못하는 옥녀를 동정어린 눈길로 쳐다보며 말했다.

《아, 아니…》

옥녀는 순간 자제하지 못한 자신을 나무람하면서 억지로 마음을 다잡고 창밖을 넌지시 내다보았다. 그러면서 생각했다.

(장밤 고생하며 빠져나왔는데 이제 와서 잡히는게 아닌가?)

옥녀는 어제밤 캄캄한 산으로 게바라올랐다.

그때 도로 량쪽에서 전조등불빛을 번쩍이며 나타난 승용차에서 옥녀는 리철을 알아보았다.

(주길태! 저건 틀림없는 주길태야. 그럼 같이 내린 사람은?… 또 다른 승용차에서 내린 저 사나이는?… 주길태, 안전원 주길태!)

희끄무레한 불빛에 어른거리는 몸의 륜곽에서 리철을 똑똑히 알아본 옥녀는 뿌드득 소리가 나도록 이발을 사려물었다.

(정말 어리석었구나. 안전원도 가려보지 못하다니. 주길태. 너를 천당에 보내지 못한게 원통하구나.)

옥녀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 사이에 한참 서성거리던 사람들이 승용차를 타고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그때에야 옥녀는 《후-》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였다.

(저놈들이 왜 산을 수색하지 않고 되돌아갈가?)

옥녀는 풀덤불속에서 기여나와 몸을 털었다. 그리고 산기슭으로 얼마간 가다가 도로에 내려섰다.

그는 리철이가 간 반대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

뻐스가 무역항정문이 바라보이는 도로 건너편 정류소

에 와서 멎었다.

내릴것인가 말것인가. 일순간의 결심으로 운명이 좌우되는 결정적인 찰나에 엉치를 의자에 꾹 붙이고앉아서 자기의 눈과 마주쳤던 사나이의 동향을 살폈다.

경수는 뻐스에서 내렸다.

(아직 나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뻐스문이 닫기면서 뻐스가 부르릉 하고 앞으로 내달렸다.

(잘못했어. 안전원이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여기서 내려도 무난할것이였는데…)

옥녀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간은 넉넉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맞이해줄가? 무궁화꽃송이 두개라구 했지.)

옥녀는 활랑거리는 가슴을 누르며 입귀에 웃음을 실었다.

손가방안에 있는 꾸레미를 헤치고 그속에 있는 종이로 만든 무궁화꽃송이를 빠끔히 들여다보았다.

만시름이 다 놓이게 하는 꽃송이였다.

옥녀는 거기에 취해있던 나머지 뻐스가 정류소에 멎는것도 인차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옥녀는 뻐스에서 내리자바람으로 몹시 아픈듯 허리를 서너번 툭툭 쳤다.

옥녀는 주위를 살피고나서 건늠길을 건너 무역항쪽으로 내리걷기 시작했다.

무역항근방에 이른 옥녀는 외국인상점앞을 그저 지나치면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며 스적스적 걸었다.

이때 뻐스 한대가 정류소에 스르르 와서 멎었다.

옥녀는 뻐스에서 내리는 리철이를 보았다.

순간 옥녀는 눈앞이 캄캄해지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귀신같은 놈이구나. …)

옥녀는 뻗뻗해지는 다리를 애써 놀리며 역전동방향으로 내리걷기 시작했다.

리철은 옥녀를 따라 활개에서 바람이 일도록 걸었다.

오가는 사람들의 틈새를 빠지면서 이따금 뒤를 힐끔힐끔 살피는 옥녀를 리철은 놓치지 않았다.

옥녀는 공업품상점안으로 꼬리를 사리고 붐비는 사람들속에 휩쓸렸다. 그러다가 《녀자옷 입어보는 곳》앞에서 사방을 살피다가 그안으로 들어갔다.

리철은 그제야 상점안으로 들어갔다.

옥녀를 찾아내기엔 아주 불리한 장소였다. 여느때없이 초만원을 이룬 상점이였다.

그러나 리철은 재빠른 동작으로 상점안을 한바퀴 훑으려는 생각으로 사람들속을 헤집고 들어갔다.

《아갸갸―》

눈앞에서 명주필 찢는듯한 애된 소리가 귀전을 때렸다.

그러나 리철은 아랑곳하지 않고 사람들을 헤집고 나갔다.

《젊은 사람이 오새없이…》

발등을 밟히운 아주머니가 리철의 등뒤에 대고 늘어놓는 불평이였다.

(용서하십시오―)

리철은 사과할 경황도 없이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자, 좀 나갑시다.》

리철은 가뜩이나 좁은 상점안에서 꽃천을 사서 펼쳐들고 꽃은 고운데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느니 뭐니 하는 아주머니들에게 사정을 구했다.

다음칸은 지은옷을 파는 매대였다. 거기는 천파는 매대보다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리철은 그 사람들을 하나씩 뜯어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도 《로친》으로 변장한 옥녀는 없었다.

그래서 《녀자옷 입어보는 곳》을 지나 다음매대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도 다음매대에도 옥녀는 없었다.

아무리 날래게 행동한다 해도 이렇게 홍길동처럼 사라지다니 정말 모를 일이였다.

리철은 밖에 나와 길가는 사람들을 살폈다. 하지만 옥녀는 눈에 띄지 않았다.

순간 뇌리를 치는 생각이 있었다.

(내가 왜 그걸 미처 생각 못했는가. 이제라도 한번 가보자.)

리철은 지은옷 파는 매대로 다시 들어갔다.

그리고 지은옷 입어보는 곳으로 스적스적 걸음을 옮겼다.

리철은 《남자옷 입어보는 곳》이란 패딱지를 올려다보다가 그옆에 써붙인 《녀자옷 입어보는 곳》이란 글자를 힐끔 곁눈질해보았다.

길게 내리드리운 가림천을 잡아헤치고 그안을 들여다보리라 생각했다.

그러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 저도모르게 무안해졌다.

(무엇을 주저하겠는가.)

리철은 가림천을 활 젖히면서 그안을 들여다보았다.

《어마나—》

질겁한 녀자의 소리와 함께 아니꼽게 쏘아보는 젊은 녀인의 눈길이 리철이를 아연하게 만들었다.

옥녀와는 전혀 판이하게 생긴 중년부인이 한창 웃을 입어보고있었다.

《실례했습니다.》

리철은 얼결에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상점안에서 선불맞은 노루처럼 뛰여나왔다.

《에이, 〈운수〉나쁜 날이군…》

무안할 때 두덜거리면 한결 낫다고 리철은 혼자서 두덜거리며 무역항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늦어진 인사

또 한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리철은 무역항 맞은켠 집에서 망을 보고있었다.

푸름푸름 날이 밝아왔다.

거리에는 하나 둘 사람들이 나타나고 뻐스가 다니기 시작했다.

이틀밤을 꼬박 새운 리철의 눈가에 피곤이 실렸지만 이새벽 망을 보는 그의 눈빛은 불을 뿜는듯 했다.

그러나 그의 가슴속에서는 갈피를 잡을수 없는 생각으로 해서 불심지가 탁탁 소리를 내며 타는듯 했다.

(난 아직 이 구역에서 옥녀의 원형을 한번도 보지 못

했다. 변장한 《로친》, 《젊은 부인》, 그것이 진짜 그녀이였을가?

가만, 그녀이 나를 여기로 유인해놓고 칼바위구역으로 빠져나간것이 아닐가?)

리철의 머리속에는 은혜가 집에 온것을 계기로 두성대위가 자기 집으로 초청한 날 경숙이실종문제가 제기되던 일, 복실이를 만나 《금가락지》이야기를 듣던 일 그리고 《두꺼비》를 찾아내던 일, 《까나리》를 미행하다가 칠녀를 알게 되고 칠녀를 미행하는 과정에 옥녀와 뜻밖에 맞다들던 일, 《무궁화》망과 《흰》망을 합칠 연극을 꾸미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언뜻언뜻 스쳐지나갔다.

얼마나 착잡하면서도 고심분투한 투쟁의 나날이였던가.

자신의 첫 전투행로를 돌이켜보는 리철의 가슴은 뿌듯해왔다.

제딴에는 정황에 대한 정확한 추리와 판단에 기초하여 원쑤를 추적해왔다고 하지만 결말이 어떤가.

리철은 허전하기 그지없었다.

(칼바위구역 해안에서는 일이 순조롭게 돼가는지. 거기에 옥녀가 불현듯 나타난다면 두성대위는 얼마나 당황할것인가? 아, 아니다. 절대로 그럴수 없다. 그녀은 반드시 이곳에 나타날것이다.)

착잡한 생각에 잠겨 모대기던 리철의 눈길이 정류소에 멎었다 떠나는 뻐스에 미쳤다.

차창밖에로 내민 하얀 머리수건이 바람에 하르르 떨었다.

리철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래서 눈을 손으로 마구 비비고나서 다시 내려다보았다.

꿈이 아니였다.

옥녀가 분명했다.

(드디여 걸려들었구나!)

리철은 아빠트층계를 두세개씩 건너디디며 뛰여내려갔다. 그리고 곧장 뻐스정류소로 달려갔다.

리철이가 정류소에 가닿기 바쁘게 뻐스가 한대 왔다.

리철은 뻐스앞문으로 뛰여올라가서 운전수에게 증명서를 내보이고 속력을 높여 앞뻐스를 따라잡자고 하였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운전수는 변속기를 돌려놓고 가속답판을 지그시 밟았다.

뻐스가 몸부림치듯 내달렸다.

《뻐스가 바람나지 않았소?》

《글쎄말이요. 무시무시하오.》

《사고치겠수다.》

뻐스칸에 탄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운전수쪽을 지켜보며 한마디씩 했다.

《걱정놓수다. 30만키로무사고주행을 보장한 운전수웨다. 뻐스에 그려놓은 붉은별이 몇개인지 보지 못했소.》

늙수그레한 남자가 걸걸한 목소리로 한마디 했다.

사람들은 그렇다는듯 머리를 끄덕이면서 기분좋게 창밖을 내다보았다.

속력을 내여 달리던 뻐스가 앞뻐스를 따라잡았다.

앞뻐스가 정류소에 멎을 때 리철이가 탄 뻐스도 동시에 멎었다. 손님들이 내리였다.

리철은 옥녀가 앞뻐스에서 내리면 자기도 내리려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앞문쪽에 바싹 붙어서있었다.

그러나 내린 손님가운데는 옥녀가 없었다.

다음 뻐스정류소는 해수욕장앞이였다.

두 뻐스는 거의 동시에 출발하여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리였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해수욕장정류소를 얼마 앞둔 거리에서 리철이가 탄 뻐스가 푸드득 하더니 멎어버렸다.

랭각수주입구에서 김이 문문 서려올랐다.

리철은 하는수없이 뻐스에서 내려 수영장앞 정류소를 향해 뛰다싶이 걸었다.

앞뻐스에서 내린 손님들이 마주오기도 하고 뻐스가 가던 방향으로 곧장 가기도 했다.

리철은 사람들을 하나하나 눈여겨보았다. 그러다가 해수욕장쪽으로 냅다 달리는 옥녀의 뒤모습을 보았다.

(저년이 왜 저기로 갈가? 저기서 〈구원자〉와 상면하게 된것이 아닐가? 아니면 내가 탄 뻐스가 바싹 따라서는것을 보고 누가 자기를 추적하리라는 위구심을 가지게 된것이 아닐가? 어쨌든 오늘은 절대로 놓칠수 없다.)

리철은 더 다른 생각을 할 사이없이 두주먹을 부르쥐고 옥녀가 사라진 소나무숲을 향해 내달렸다.

신선한 새벽바람이 귀뿌리를 스치며 지나갔다.

이때 승용차 한대가 해수욕장앞 뻐스정류소에 와서 멎기 바쁘게 문이 열리면서 사람이 한명 뛰여내렸다. 경수였다.

그는 옥녀가 달려가는 앞쪽에서 그년을 향하여 마주 달려왔다.

소나무숲속으로 한참 내달리던 옥녀가 아름드리나무뒤에 숨더니 머리를 언뜻 내밀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리철이도 옥녀가 몸을 사린 소나무에서 대여섯번째 되는

소나무뒤에 붙어서서 앞쪽을 내다보았다.
《옥녀—》
숨이 턱에 닿은 리철은 이렇게 이름을 불러놓고 더 다른 말을 하지 못했다.
잠시 숨을 돌린 다음 리철은 앞쪽에 대고 살뜰한 어조로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옥녀, 이런 법이 어데 있소? 그래 나를 남겨두고 혼자 갈수 있다고 생각했소? 난 옥녀를 찾아 이틀밤이나 꼬박 새웠소. 옥녀, 옥녀…》
리철의 목소리는 축축한 새벽공기를 가르며 절절하게 울렸다.
옥녀가 불손한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리철은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옥녀는 죽은듯이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옥녀, 옥녀— 이렇게 이틀밤을 헤매게 해놓고도 생각되는바가 없소?》
《…오세요. 여기로 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옥녀는 머리를 내밀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웨치다싶이 말했다.
리철은 이 소나무 저 소나무에 의지하면서 한발자국 한발자국 옥녀가까이로 접근해갔다.
옥녀와 소나무 두개를 남기고 몸을 로출시켰을 때였다.
번쩍하는 쇠붙이가 눈에 띄였다. 비수였다.
리철은 바람처럼 소나무뒤에 몸을 감추었다.
순간 비수는 소나무에 푹— 박히였다.
《더러운 년!》
리철은 권총을 뽑아들었다.

단말마적인 발악을 하는 이년앞에서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숨길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 리철은 안전장치를 풀었다.

(총탄 한알이면 저년을 간단히 처리할수 있다. 그러나 《금가락지》를 빼앗아내지 못하고 저년을 없애치운다는것은 아직 이르지 않는가. 내가 지금껏 저년을 살려둔 목적이 무엇이던가? 저년을 산채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리철은 갑자기 앞쪽에 대고 《중위동지!》하고 다급하게 웨쳤다.

순간 옥녀는 홱 머리를 돌리였다.

그 순간 리철이 바람처럼 몸을 날려 옥녀의 뒤덜미에 강한 타격을 안겼다.

《악ㅡ》

외마디비명을 지르며 옥녀가 그 자리에 쓰러졌다.

옥녀는 사지를 쭉 늘어뜨리며 머리를 외로 젖히였다.

리철은 옥녀가 이제는 더 어쩌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가까이에 접근했다. 그러나 오산이였다.

옥녀는 바람처럼 몸을 솟구쳤다.

리철은 몸을 날래게 피하면서 옥녀의 두팔을 잡고 뒤로 비틀어 묶었다.

온몸이 푸들푸들 떨리는대로 옥녀의 머리카락도 으시시 떨리였다.

《〈도미꼬〉! 〈부나비〉! 우리의 마지막 상봉은 그다지 유쾌하지 못하군!》

야유조가 섞인 리철의 목소리였다.

옥녀는 흩어진 머리카락사이로 리철이를 표독스럽게 쳐다보았다.

《칼바위구역 바다가에서 당신을 〈영접〉하려고 하였

는데 이렇게 예견치 않았던 해수욕장 소나무숲에서 〈영접〉하고보니 언젠가 우리가 그림그리러 왔던 그 일요일이 회상되는군요. 〈부나비〉! 우리의 〈우정〉을 봐서 이 마지막 상봉의 기념으로 나에게 금붙이를 선물하지 않겠소.》

옥녀의 가슴이 세차게 오르내리였다.

그러나 리철은 여전히 태연하게 말했다.

《〈부나비〉! 당신의 손가락에서 〈금가락지〉를 뽑겠는데 내가 략탈한다고는 생각지 마오. 내가 당신에게서 바라는것은 그것뿐이요. 그것을 위해서 나는 〈흰〉망의 망책〈도마뱀〉이 되였던것이며 당신과 함께 도주시도도 하였던것이요. …》

리철은 옥녀의 손가락에서 《금가락지》를 뽑았다.

《참 잊었군. 주요공장설계도면을 찍은 필림이 있겠는데 그걸 나에게 선사하지 않겠소?》

옥녀는 헝클어진 머리를 땅에 박고 아무 대척도 없었다.

리철은 옥녀의 손가방에서 필림꾸레미를 꺼내들었다.

이때 등뒤에서 흥분기어린 목소리가 울렸다.

《리철동무!》

《상위동지!》

경수상위가 숨이 턱에 닿아 달려왔다.

《내가 한발 늦었구만. …》

《정말 아까는 누구든 한두명 있었으면 했습니다.》

《치렬했던 모양이군!》

《녀자가 얼마나 악종인지…》

리철은 땅에 코를 박고 어푸러져있는 옥녀를 쓰거운듯 내려다보더니 경수에게 《금가락지》와 필림을 내밀었다.

경수는 그것을 받아쥐고 만지작거렸다.

칼바위구역 바다가에서 오는 승용차와 리철이가 탄 승용차가 꼬리를 물고 안전부의 마당에 일시에 들어섰다.

리철이가 《도미꼬》를 앞세우고 승용차에서 내리자 두성대위가 칼바위구역 해안가에 나타난 구원선에 탔던 세명의 원쑤를 소멸하고 사로잡은 옥녀와 신통히도 같이 생긴 《제2도미꼬》 칠녀를 떠밀며 차에서 내렸다.

안전부마당에는 부장을 비롯한 안전부일군들이 마중나와 있었다.

부장은 거수경례를 붙이고 동시에 보고하는 리철이와 두성의 손을 잡아내리며 감격어린 어조로 말했다.

《수고했소! 수고했소!》

이때 《도미꼬》가 《제2도미꼬》를 힐끔 쳐다보았다.

두눈이 마주치자 놀라움과 분격, 실망의 빛이 뒤엉켜 잠시 지켜보던 두 《도미꼬》는 서로 무엇인가 말하려고 입귀를 놀렸다.

《흥, 맹추같은 년. 그만큼 뒤받침해주었는데두 잡혀? 〈금가락지〉는 어떻게 했어?》

칠녀는 옥녀에게 악다구니질을 하였다.

옥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얼이 나간채 칠녀를 어리벙하니 쳐다만 보며 서있었다.

이때 무역항과 외국인상점주변을 남모르게 봉쇄하고있던 조가 돌아왔다.

《리철동무!》

그들은 모두 리철이를 둘러싸고 저마다 그의 손을 잡아주느라 헤덤비였다.

부장은 혁명동지의 아들이 몰라보게 성장하였다고 생각하면서 환히 웃는 얼굴로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뒤에서 어깨에 붕대를 한 처녀가 긴 속눈섭을 슴벅이면서 리철이를 지켜보고있었다. 합숙식당 접대원이였던 처녀 은혜였다.

부장은 언젠가 두성이가 리철이와 은혜를 대면시켜야겠는데 반대의견이 없는가고 묻던 생각이 났다. 그래 리철이를 찾았다.

《리철이!》

대답이 없었다.

《리철동무!》

두성이가 다시 찾았다.

부장은 리철이가 사람들속에 휩쓸려 끼여있었으므로 보지 못했던것이다.

《리철이, 젠장, 리철동무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얻어온 사람처럼 서있나. 자기 위치를 지켜야지.》

두성이 나무람했다.

《대위동지, 나의 위치야 여기지요. 막내가 아닙니까.》

리철은 마치 천진란만한 아이처럼 발그레해진 얼굴에 웃음을 담고 말했다.

동무들이 리철이를 떠밀어 앞에 내세웠다.

《이러지 마십시오. 내가 뭐 한게 있다구 그럽니까?…저는 앞으로 더 잘 싸우겠습니다.》

리철은 얼굴을 붉히며 뒤더수기를 슬슬 어루만지였다.

부장이 은혜의 등을 밀어 앞으로 내보내였다.

은혜는 홍시처럼 얼굴을 붉히며 어쩔줄 몰라했다.

그러나 호수처럼 반짝이는 눈, 그 긴 속눈섭아래에 물기가 잔잔히 어리기 시작했다.

억실억실한 리철의 눈은 까딱 움직이지 않고 은혜의 눈

만 지켜보았다.

리철은 어줍게 웃으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소나기오는 날 사과하려고 따라갔는데 사내라는게… 늦었지만 받아주십시오. 그날은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가방속의 단지는 깨지지 않았습니까?》

《아이…》

은혜는 점직해서 한발 뒤로 물러섰다.

《무슨 인사들이 그렇소?》

부장이 의아쩍은 눈길로 리철이와 은혜를 쳐다보았다.

《우리는 구면입니다. 그리구 은혜동무는 나의 사업을 방조해준…》

리철이 말끝을 흐리는데 두성이 한발 나서며 말했다.

《그러니 가방안의 그 꿀단지를 깬게 리철동무였구만. 꿀단지는 깨졌어두 꿀은 그냥 있으니 오늘저녁에 축을 냅시다. 젠장.》

그 소리에 모두 소리내여 웃었다.

부장이 입을 열었다.

《리철이, 꿀을 먹어보면 꿀이 얼마나 단가를 알수 있듯이 보이지 않는 원쑤와의 싸움을 직접 해보면 얼마나 힘겹고 치렬한것인가를 알게 되지. 하지만 우리는 계급적원쑤를 완전히 소멸하는 그날까지 마음의 탕개를 늦추지 말고 그 어려운 싸움을 계속 벌려야 하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명심해야 하오.》

《알겠습니다.》

리철은 힘있게 대답하였다.

동녘하늘이 훤해지고있었다. 이제 바야흐로 새날을 알리는 아침해가 찬란히 솟아오를것이다.

중편소설 《금가락지》의 비밀

저　　자 리용연　　　　편집 리복은
미술장정 강상준, 김국보　교정 김옥녀

낸　곳 금성청년출판사
인쇄소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1988년 4월 10일
발　행 1988년 4월 20일

ㄱ－66108